

2002 연구보고서 230-20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연구책임자 : 문 유 경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성 지 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객원교수)

안 주 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발 간 사

지금까지의 여성노동정책은 주로 임금근로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산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방지와 보호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버는 집단으로 정의되는 여성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율적이고 비교적 고소득이라는 인식아래 이들에 대한 연구와 정책수립이 등한시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영세민에서 최고 부유층까지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영업의 선택과 지속, 사멸에 이르기까지 남성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내에서 수행된 자영업자의 연구들은 주로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남녀를 합하여 동일집단으로 분석하고 있거나, 아니면 여성 자영업자를 제외한 남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여성 자영업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의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 역시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채 임금근로자에만 초점을 맞추어져 수행되어 온 결과 2001년 현재 여성 전체 취업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자영부문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본 연구는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여성자영업자의 전체적인 규모와 시계열적인 추이, 이들의 근로조건과 활동상의 특성, 자영업의 결정요인, 자영업의 진입과 지속, 이탈, 생애단계와 자영업의 관계 등이 이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본 연구결과가 여성 자영업자의 실태파악과 정책수립에 귀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연구를 수행하신 문유경 연구위원님, 성지미 교수님, 안주엽 박사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심도깊은 자문을 해주신 금재호 박사님, 김영옥 연구위원님, 김태홍 수석연구위원님, 류재우교수님 및 원자료 분석과 자료정리를 도와주신 주재선 전문연구원과 심재희 위촉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2002년 12월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장 하 진

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부족함을 인식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여성자영업자의 전체적인 규모와 시계열적인 추이, 이들의 근로조건과 활동상의 특성, 자영업의 결정요인, 자영업의 진입과 지속, 이탈, 생애단계와 자영업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내용에 따라 집단을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을 비농가부문 취업자 또는 비농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통계원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제4차 한국노동패널』, 본원의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이다.

2. 연구결과

규모와 추이

한국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다른 국가에 비해 자영업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특히 1990년대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자영업 증가가 서비스부문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자영업자의 진출에 의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남성자영업자의 증가가 여성보다 더욱 가파르며, 여성의 종사업종도 아직은 전근대적인 업종에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고용주집단의 여성비율 증가하고, 자영자의 여성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향후 자영부문의 여성취업자들의 성격변화가 예상된다.

인구학적 특성

여성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낮은 인적자본의 집단일 확률이 높다. 반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으면서 동시에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 성과가 좋은 집단이 성공적으로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영업주내의 학력의 편차가 매우 커서 자영자들이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같은 비임금근로자 집단으로 양쪽 모두 기혼의 비율이 높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 자영자는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유배우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인다. 여성 자영자 다음으로 일용근로자의 사별의 비율이 높는데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자영업이나 일용직이 취업선택에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성 자영자 중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 남편이 있는 자영자에 비해 가구총수입이 절반에 불과해 이들의 자영업 선택이 결코 좋은 대안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근로조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고용주가 60시간, 자영자 50.7시간으로 평균인 48.7시간에 비해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노동패널』 역시 전체 표본에 비해 평균 5-6시간 긴 것으로 나타나며 남녀 집단 모두에서 고용주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근로시간의 분포를 볼 때 여성 자영자는 남성 자영자와 여성 임금근로자

에 비해 가장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을 탄력있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노동패널』에 의하면 여성 고용주와 자영자의 근로소득이 임금근로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주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를 고려할 때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취업실태조사』결과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종사상의 지위별 수입을 보면 고용주, 자영자, 상용고, 임시/일용고의 순서로 적어지나, 시간당 수입을 보면 상용고와 자영자의 수입수준이 역전되어, 상용고의 수입이 자영자보다 약간 높게 나온다. 즉 자영자의 높은 수입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 자영자의 수입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여성 자영자가 가구주일 경우이다. 여성 자영자의 가구주일 경우 본인의 수입은 다른 자영자의 비슷한 수준이나 가구의 총 수입은 160만원으로 가구내 다른 위치에 있는 여성 자영자의 가구 총수입인 300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수입은 기초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여성 자영업자의 정책마련시 특별 관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자영업 종사자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자영업 종사자는 여성 임금근로여성과 남성 자영업 종사자에 비해 가입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자영업 종사자가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낮은 가입비율의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낮은 취업률, 고용 불안정성, 자영업 종사자들의 외면 등이 총체적으로 여성들의 국민 연금 가입률을 낮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에서 여성 노인의 빈곤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분석의 첫 단계인 취업/미취업의 결정요인을 살펴 보면 여성의 취업에 어린 자녀의 존재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존재여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임금/자영업의 결정요인을 보면 이전 직장의 자영업 경험여부와 부모의 자영업 경험여부가 정의 효과를 타나내고 있다. 학력효과를 보면 여성은 고졸미만자가 자영업을 할 확률이 높은 반면 남성은 그 반대로 대졸미만과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성의 자영업 선택요인이 남성과 매우 이질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영업에 대한 정책수립 시 남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진입, 지속, 퇴장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자료를 패널화하여 자영업의 진입과 지속, 퇴장과정을 분석할 결과 결정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미혼의 경우 자영업에 진입하는 확률이 낮은 반면 혼인 후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특히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혼인해소(기혼무배우) 시에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자영업이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영업 진입과정을 볼 때, 남녀의 차이가 보여지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한 후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로서 일자리를 이직 또는 실직한 후 진입하는 경우는 남성의 경우 60%를 초과하지만 여성은 40%를 하회한다. 이는 앞서의 지적처럼 자영업의 선택이 임금근로자보다 진입이 용이한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영업을 시작하기 때

문에 자영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기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을 그만둔 후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의 1/4만이 미취업상태로 이행하며, 다시 자영업으로 복귀하는(새로이 창업) 비중이 37%에 이르고 있으며 임금근로로 이행하는 비중도 37%에 이른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한 비중 역시 39%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임금근로로 재진입할 때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재진입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로부터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자 중 상용직으로부터 진입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수준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이다 볼 수 있다.

생애경력과 자영업

『여성취업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영업 선택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 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첫 종사상의 지위별 시작연령 역시 상용직은 20대 이전에 대부분 시작한 반면 나머지 집단들은 그 진입연령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취업력 상 여성취업자는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종사상의 지위별 이전의 노동력 상태 역시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크게 대별되어 상용직은 97%이상이 무직자에서 이전한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들은 상용직에서 이전한 비율이 8~12%의 높은 비율을 보여 상용직에서 다른 지위로의 이전이 용이한 반면 그 역의 이전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론은 앞의 결정요인 분석과 유동성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출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

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혹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 및 취업력 분석 결과 여성의 취업구조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별되기 보다는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별할 때 훨씬 특성이 잘 파악될 수 있다.

저학력 고연령으로 특징되는 자영자 집단의 특성이 점차 변하고 있음이 취업력 분석에서 드러난다. 취업력 분석결과 세대별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의 종사비율이 높아지며 직종 역시 전문직/준전문직의 비율이 높아져 자영자 내부의 이질성을 가져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력별 지속기간의 차이 역시 최근세대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 내부에서 학력에 따른 자영업의 운영결과가 더욱 달라질 전망이다.

자영업의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특성보다는 가족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진다. 즉 개인의 학력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가족의 특성인 결혼여부, 출산여부, 배우자유무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대차이가 있어 50대 이상세대가 더욱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변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산업변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자영업을 길게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정책방향

노동시장에서의 기능

지금까지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자영업자는 비경제 활동과 임금근로자사이의 중간지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력

단절로 재취업이 어려운 기혼여성들이 이전의 직장경험, 자본, 기술이 없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대안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입이 용이한 반면 안정된 상태에서 일정 소득을 취득하기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이 취약하다는 점도 임금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충할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의 유동경로를 남성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남성은 상용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확률이 남성이 더욱 높다. 반면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진입이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에서의 진입은 매우 적다. 퇴출 역시 비슷하여 자영업을 그만 둔 뒤 상용근로자로 진입확률은 매우 낮으며, 재창업 또는 임시/일용직으로 취업이 큰 비중을 보인다. 이러한 각 진입단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발성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의 자료 수준으로는 판단이 불분명하다. 다만 여성의 경우 자영자의 수입이 상용근로자의 비슷한 수준임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나 복지혜택이 상용근로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영업 선택이 비자발적인 가능성이 높다. 즉 노동시장의 차별로 인해 상용근로자로의 진입이 어려운 여성들이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을 대안으로 진입했을 확률이 높다. 즉 소수의 젊은 고학력여성들은 상용직으로 진입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학력 여성들은 임시/일용직으로 기혼여성들은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연령, 학력등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혼인상태등을 보았을 때 여성 취업자의 특성이 크게 상용직과 자영/임시/일용근로자로 대별되는 결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 변화를 보면 고용주의 비중과 함께, 시간당 수입이 높은 전문직/개인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자영업자의 비중이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성 자영업자 내부에 점차 학력별, 연령별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수이지만 임금근로자보다 고수입의 자발적인 자영업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여성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경제활동상

태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관련교육이나 훈련이수비율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영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등이 부족함을 예상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하여 효과적일 것이다.

자금과 기술지원, 상담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자금의 중요성과 제약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자영업 운영에 있어 운영자금은 매우 중요하다. OECD국가의 여성 자영자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자금지원이 주요 핵심 내용임이 나타난다. 노르웨이처럼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은 필히 사전에 상담과 훈련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가도 좋은 선례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자영업자의 융자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창업과 자영업의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성 자영업자의 창업자금신설이 필요하다.

여성 자영업자의 대상별 정책 수립

1)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지원 정책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가 제출한 『2002년도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에는 세가지 추진방향으로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 ‘여성기업의 내실있는 성장기반을 조성’, ‘여성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판로확대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정책들은 여성의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실효성과 효율성이 엄밀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여성부, 2002) 첫째는 여성기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로 제반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창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금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융자자금에 대한 접근 강화 및 새로운 여성창업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여성 신생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의 운용이다. 셋째, 지식정보분야의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강력한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한 지식집약업종으로 특화한, 피교육생의 수준에 적합한 유연한 지식집약적 창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을 제안한다.

2) 영세 자영자 지원 정책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행상, 가두판매 등 영세 자영자들은 고연령, 저학력을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사별, 이혼 등으로 가구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영세 자영자는 일용직근로자와 비슷한 인적자본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수입 또한 근로자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들에게는 비정규직근로자 집단에게 적용되는 보호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4대보험에의 적용율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여성근로자에게 제한되어 있는 모성보호정책을 이들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의 가입을 권고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비의 일부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지원에 드는 예산은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했을 때의 생계지원비보다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후 90여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여성 근로자와는 달리 영세 자영자의 경우 전혀 소득보전이 되지 않고 있어,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이 여성 근로자보다 과중하다. 90일의 출산 유급휴가 자체는 국제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는 산모는 일부 안정된 기업의 상용직근로자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는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체 여성취업자의 출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무급가족종사자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부인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실제 부부내 업무에의 기여도 혹은 결정 권한정도가 파악되지 못하여 여성 자영업자의 정확한 현실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일용직근로자의 40시간보다 4시간 많은 주당 평균 4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수준이다. 남성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은 36시간으로 여성과 이질적인 집단일 가능성이 있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로 시간상 전일제 수준의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취업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많은 불리함을 안고 있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이들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공동자영업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부부 공동 자영업의 규모파악, 부부간의 업무분담정도, 의사결정권한, 수입에 대한 귀속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판별기준의 개선과 기초통계 인프라의 구축

본 연구의 한계중의 하나는 통계자료의 제한에서 오는 것으로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여성취업실태조사』에서 자영업부문을 강화한 『여성자영업실태조사』나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기초로 한 『자영업패널조사』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자영업 실태조사』는 자영업의 운영에 있어 여성이 고유하게 직면하는 문제점 예를 들어 부부 공동운영의 애로점, 가족병행과의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영업 패널조사』는 남녀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자영업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정보를 연계하고, 자영업자가 유급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이거나 고용보험 및 여타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 사회보험의 DB에 나타나는 정보, 더 나아가 기업정보에 나타난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 및 국세청의 정보를 연계할 경우 자료상에 나타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다.

자영업 연구가 범위와 깊이의 양 측면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자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이 요구되어지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통계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 2. 연구 방법 | 5 |
|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7 |
| II.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특성 | 9 |
| 1. 여성 자영업자의 규모와 추이 | 11 |
| 2.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 | 21 |
| 가. 여성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 | 21 |
| 나. 취업구조적 특성 | 26 |
| 다. 여성 자영업자의 근로조건 | 30 |
| 3. 소결 | 45 |
| III. 여성의 자영업선택 결정요인 | 47 |
| 1.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의 특성 | 49 |
| 가. 자료 및 표본 | 49 |
| 나. 표본의 특성 | 49 |
| 2. 자영업표본의 특성 | 53 |
| 3.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분석 | 56 |
| 가. 분석모형 | 56 |
| 나. 취업 및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및 가설의 검증 | 57 |
| 다. 실증분석의 결과 | 61 |
| 4. 여성과 남성의 비교분석 | 65 |
| 5. 소결 | 70 |

| | |
|---------------------------|-----|
| IV. 자영업의 진입과 지속 | 73 |
| 1. 자영업 진입과 지속연구의 의의 | 75 |
| 2.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표본의 특성 | 77 |
|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 77 |
| 나. 자료의 패널화 및 표본의 설정 | 78 |
| 3. 자영업의 시작 - 어디에서 오는가? | 84 |
| 가. 자영업 경험자의 특성별 분포 | 84 |
| 나. 자영업으로의 진입과정 | 88 |
| 4. 자영업 지속기간 | 94 |
| 가. 자영업 지속기간 | 94 |
| 나.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 | 102 |
| 다. 어디로 가는가? | 105 |
| 5. 소결 | 113 |
| V. 여성의 생애와 자영업 | 117 |
| 1.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취업력 | 119 |
| 가. 세대별 피고용률 | 120 |
| 나. 생애단계별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경험 | 120 |
| 다. 자영업 이전의 노동력 상태 | 124 |
| 라. 세대별 종사산업과 직업 | 125 |
| 2. 자영업의 지속 | 128 |
| 가. 자영업 지속기간 | 128 |
| 나. 자영업 지속요인 | 130 |
| 3. 소결 | 135 |
| VI. 결론 및 정책방향 | 137 |
| 1. 결론 | 139 |
| 2. 정책방향 | 144 |
| 참고문헌 | 153 |
| 부 록 | 155 |

표 목 차

| | |
|--|----|
| <표 I-1> 본 보고서 각 장별 사용된 통계 원자료 | 5 |
| <표 II-1> 연도별 전체 취업자(비농가)의 자영업주 비율 | 11 |
| <표 II-2> 연도별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 | 12 |
| <표 II-3> 연도별 남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 | 12 |
| <표 II-4> 자영부문의 성별 전년대비 증가율 | 13 |
| <표 II-5> 경제위기 전후의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기별 증감율 · 15 | |
| <표 II-6> 경제위기 전후의 남성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기별 증감율 · 15 | |
| <표 II-7> 자영업자와 민간부문고용의 연간 평균 성장률 | 16 |
| <표 II-8> OECD회원국의 성별 자영업 증가율 | 18 |
| <표 II-9> OECD회원국의 자영업내 성별 비중 | 19 |
| <표 II-10> 각국의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1963-1983) | 20 |
| <표 II-11> 자영부문의 연도별 여성비율 | 20 |
| <표 II-12> 성별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 연령(2001년) | 22 |
| <표 II-13> 종사상의 지위별 혼인상태(2001년) | 23 |
| <표 II-14> 종사상의 지위별 부부 교차표(2001년) | 24 |
| <표 II-15> 성별 자영업자의 배우자의 공동경영 여부 비율 | 25 |
| <표 II-16> 성별 종사상의 지위별 학력별 분포와 평균 교육년수 | 26 |
| <표 II-17> 성별 산업별 분포(비농업) | 28 |
| <표 II-18> 자영부문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산업별 분포 | 28 |
| <표 II-19> 자영부문 종사자의 성별 직업별 분포(2001년) | 29 |
| <표 II-20> 미국 자영업자의 성별 직업별 분포(1950, 1980) | 30 |
| <표 II-21> 종사상의 지위별 노동시간 | 32 |
| <표 II-22>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성별 · 연령집단별 | 34 |
| <표 II-23>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성별 · 교육수준별 | 35 |
| <표 II-24>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성별 · 연령집단별 | 36 |
| <표 II-25>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성별 · 교육수준별 | 37 |
| <표 II-26> 종사상의 지위별 월수입비교 | 39 |

| | |
|---|----|
| <표 II-27> 자영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별 월수입 | 39 |
| <표 II-28> 국민연금가입상태 | 40 |
| <표 II-29> 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가입의사 | 41 |
| <표 II-30> 종사상의 지위별 직업만족도 | 42 |
| <표 II-31> EU회원국의 성별 자영업자 만족도(1995/96) | 43 |
| <표 II-32> 자영업의 유리한 점에 대한 성별 분포: 캐나다 | 44 |
| <표 II-33> 자영업자의 불리한 점에 대한 성별 분포: 캐나다 | 44 |
| <표 III-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 50 |
| <표 III-2> 결정요인 변수의 정의 | 51 |
| <표 III-3> 경제활동상태의 특성 | 53 |
| <표 III-4> 성별·연령집단별 경제활동상태의 특성 | 54 |
| <표 III-5> 성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의 특성 | 56 |
| <표 III-6> 취업선택과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분석 | 62 |
| <표 III-7> 취업선택과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분석: 여성과 남성의 비교 | 66 |
| <표 IV-1> 자영업 진입시점의 월별 분포(1998.6~2002.10) | 80 |
| <표 IV-2> 자영업 진입시점의 월별 분포 | 81 |
| <표 IV-3> 자영업 진입시점의 월별 분포(인원) | 82 |
| <표 IV-4> 자영업 진입시점의 월별 분포(성별) | 83 |
| <표 IV-5> 자영업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 85 |
| <표 IV-6> 자영업의 산업별 분포 | 85 |
| <표 IV-7> 자영업 진입시 종사상지위 | 86 |
| <표 IV-8> 자영업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초기 종사상지위 | 87 |
| <표 IV-9> 자영업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초기 종사상지위(성별) | 88 |
| <표 IV-10> 자영업 진입 직전 3개월 간의 경제활동상태(전체) | 90 |
| <표 IV-11> 자영업 진입 직전 3개월 간의 경제활동상태(남성) | 91 |
| <표 IV-12> 자영업 진입 직전 3개월 간의 경제활동상태(여성) | 92 |
| <표 IV-13> 자영업자는 어디에서 왔는가? | 93 |
| <표 IV-14>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 초기 종사상지위별 | 96 |
| <표 IV-15>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 상태의 완료형태별 | 96 |
| <표 IV-16>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가구주와의 관계별 | 98 |
| <표 IV-17>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연령대별 | 98 |

| | |
|---|-----|
| <표 IV-18>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 · 교육수준별 | 99 |
| <표 IV-19>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 · 혼인상태별 | 99 |
| <표 IV-20>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산업별(전체) | 100 |
| <표 IV-21>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산업별(남성) | 101 |
| <표 IV-22>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산업별(여성) | 101 |
| <표 IV-23>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 | 106 |
| <표 IV-24>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 · 초기 자영업의 종사상지위별 | 106 |
| <표 IV-25>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 · 가구주와의 관계별 | 108 |
| <표 IV-26>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 · 연령대별 | 108 |
| <표 IV-27>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 · 교육수준별 | 109 |
| <표 IV-28>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 · 혼인상태별 | 109 |
| <표 IV-29>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산업별 | 111 |
| <표 IV-30>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산업별(남성) | 111 |
| <표 IV-31>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산업별(여성) | 112 |
| <표 IV-32> 자영업 탈출자의 재취업 여부 | 112 |
| <표 V-1> 최초의 종사상의 지위별 결혼상태 | 124 |
| <표 V-2> 최초의 종사상의 지위별 이전의 노동력 상태 | 124 |
| <표 V-3> 세대별 자영업 지속기간 | 129 |
| <표 V-4> 학력별 자영업 지속기간 | 130 |
| <표 V-5> 자영업 지속요인 설명변수 | 132 |
| <표 V-5> 자영업 지속기간 추정결과 | 134 |
| <표 VI-1> OECD국가의 여성 자영업 지원 정책 | 146 |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1] 여성 자영업주의 연령별 분포 | 22 |
| [그림 II-2] 캐나다의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근로시간 | 33 |
| [그림 IV-1] 성별잔존률 | 103 |
| [그림 IV-2] 탈출률 | 103 |
| [그림 IV-3] 탈출경로별 탈출률 | 104 |
| [그림 IV-4] 남성 탈출률 | 105 |
| [그림 IV-5] 여성 탈출률 | 105 |
| [그림 V-1] 생애단계별 종사상의 지위 변화 | 121 |
| [그림 V-2] 종사상의 지위별 경험자의 현재 나이 분포 | 123 |
| [그림 V-3] 첫 종사상의 지위별 시작 연령 | 123 |
| [그림 V-4] 세대별 자영업 산업분포 | 126 |
| [그림 V-5] 세대별 자영업 직종분포 | 127 |

부 표 목 차

| | |
|---|-----|
| <부표 II-1> 연도별 전체 취업자(비농가)의 자영업주 비율 | 157 |
| <부표 II-2> 종사상의 지위별 노동시간 (1985, 2001) | 158 |
| <부표 II-3>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 교육년수(2001) | 159 |
| <부표 II-4> 자영자의 직업, 산업, 학력별 월수입 | 159 |
| <부표 II-5> 연령집단별 종사상의 지위별 부부 교차표(2001) | 160 |
| <부표 III-1> 경제활동상태,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여성표본의 분포 | 163 |
| <부표 III-2> 경제활동상태, 연령 및 학력에 따른 남성표본의 분포 | 164 |
| <부표 III-3> 종사상지위별, 연령 및 학력별 여성취업자의 근로시간 | 165 |
| <부표 III-4> 종사상지위별, 연령 및 학력별 남성취업자의 근로시간 | 166 |
| <부표 III-5> 종사상지위별, 연령 및 학력별 여성취업자의 근로소득 | 167 |
| <부표 III-6> 종사상지위별, 연령 및 학력별 남성취업자의 근로소득 | 168 |

I

.....

서론

| | |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
| 2. 연구 방법 | 5 |
|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경제활동상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8년의 IMF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서는 창업이 실업난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관심이 증가하는 또 다른 관점은 국가의 경제적 발전단계와 자영업의 비율이 대체적으로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자영업의 비율이 높고 또한 1990년 이후 그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인 관심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자영업의 선택과 이동, 성장과 사멸의 과정, 취업 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떤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노동시장에서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자영업을 선택하는지, 이들의 자영업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이고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자영업자들의 근로조건 혹은 소득이 임금근로자와 비교할 때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됨으로써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임금근로자에 대한 연구와 균형을 맞추고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구조와 특성 및 역동성에 대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잔여범주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수행된 자영업자의 연구들은 주로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을 무시한 채 남녀를 혼합하여 동일집단으로 분석하고 있거나, 여성 자영업자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여성 자영업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여성의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 역시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채 임금근로자에만 초점을 맞추어져 수행되어 온 결과 2001년 현재 여성 전체 취업자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자영부문의 실태는 연구가 미친한 상황이다. 국내의 연구현황을 보면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을 분석한 연구와 (성지

미, 2000)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괄하는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특성과 생애경력에 대한 연구(정진성, 장지연, 2001)가 최근에 발표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첫째 여성이 자영업을 선택할 때 남성과는 달리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점이다. 남성은 자영업 결정요인으로 연령, 학력, 경력년수 등의 시장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반면, 여성은 이러한 변수외에 결혼상태, 자녀수, 가구수입, 남편의 취업상황 등 가족과 관련된 변수가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근로자에 비해 여성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가족의 특성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셋째 자영업의 결정요인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직종 역시 남성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자영업에 대한 이질성과 정의의 문제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경우 남편은 대개 자영업자나 고용주로 분류되는 반면 부인은 국가에 따라 공동 자영업자로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는 국가에서는 여성 자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여성 자영업자의 이론적, 정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결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와 함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첫째 여성 자영업자의 전체적인 규모와 시계열적인 추이를 남성과 혹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로는 여성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인구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직종, 노동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셋째 여성이 자영업을 하게 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넷째 자영업으로의 진입, 지속, 탈출의 전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사실들을 발견한다. 다섯째 여성 자영업자들의 취업력에 대한 분석이다. 이들이 생애주기

별로, 세대간에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자영업자로 진입한 시점과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여성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의 관련 문헌 검토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통계자료는 원자료의 전산처리를 병행하였는데, 주로 이용된 통계원자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평균자료(1985-2001)와 1998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월별자료를 패널화한 패널자료, 본원의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제4차 한국노동패널』이다. 이와 같이 여러 원자료가 사용된 이유는 각각의 자료가 자영업의 분석시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원자료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기본적인 성격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영업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일부 반복되어 분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분석의 전단계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은 중복을 감수하고 게재를 하였다.

각 장별로 사용된 통계원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 -1> 본 보고서 각 장별 사용된 통계 원자료

| 보고서 | 사용된 통계원자료 | 비 고 |
|-----------------------|--|------------------------|
| 제2장 여성 자영업의 규모와 특성 | 『경제활동인구조사』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제4차 한국노동패널』 | |
| 제3장 여성 자영업의 결정요인 | 『제4차 한국노동패널』 | 『제4차 한국노동패널』 자료설명 |
| 제4장 여성자영업의 생성, 지속, 퇴출 |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 『경제활동인구-패널자료』 자료설명 |
| 제5장 여성의 생애와 자영업 |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자료설명 |

여성 자영업자의 분석에서 나타나는 통계원자료의 장단점을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장기간에 걸쳐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고, 월별, 분기별, 연도별 분석이 가능하나, 자영업자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고, 특히 소득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 전체 규모와 기본특성의 파악에 사용되었다. 여성개발원의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는 여성취업자의 가구사항이 자세히 조사되어 있고, 간단하나마 취업력조사가 되어 있어 가족과 생애사건이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반면 남성 자영업자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노동연구원의 『제4차 한국노동패널』은 상세한 가구사항과 상세한 자영업자의 문항이 있으며, 남녀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나 시계열적인 분석에 제한이 있다.

자영업자의 개념은 다양하고 범위가 일정하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업체 소유유무, 피고용인 유무와 고용규모 등을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 혹은 기업주와의 구별을 위해 유급직원 없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거나 조금 범위를 넓혀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통계청의 기준에 준하여 자영업자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자영자는 유급직원 없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자영업주는 자영자와 고용주를 합한 개념으로, 자영부문 종사자 또는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합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자영업은 유급직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가족의 일을 무보수로 돕는 것(주당 18시간 이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게 잡고, 필요에 따라 종사상의 지위를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여 자영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단 『여성취업실태조사』 원자료를 주로 사용한 제5장 여성의 생애와 자영업에서는 고용주의 사례가 극히 적어(4명) 이를 제외한 자영자의 활동을 자영업으로 간주하였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을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경제인’은 여성기업의 임원으로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여

성자영업자와의 차이를 보면 여성 자영업자는 사업체 등록이나 기업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버는 광범위한 범위의 집합체인 반면 여성경제인은 여성기업의 임원이라는 협소한 범위로서 자영업자의 일부집단이라 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고용주나 자영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자영업자의 범위에서 벗어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는 비농업부문 취업자 혹은 비농가가구원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통계자료와 분석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국내에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수행된 연구라는 점에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여성 자영업자에 대한 역사적인 추세와 구조적 특성, 유동 상태, 생애과정 등 기초적인 제반사항에 대한 초석을 놓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반면 보다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특히 여성에게 자영업이 임금근로자의 긍정적인 대안으로 기능하는지 혹은 한계적 상황에서 비자발적 선택인지에 대한 성격규명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여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이 한계로 남는다.

또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각 장별로 다른 통계 원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본문 중 가능한 사용된 원자료를 거명하였다.

Ⅱ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특성

| | |
|--------------------|----|
| 1. 여성 자영업자의 규모와 추이 | 11 |
| 2.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 | 21 |
| 3. 소결 | 45 |

1. 여성 자영업자의 규모와 추이

지난 30년간의 우리나라 비농가 부문의 자영업 규모를 보면 1963년의 약80만명에서 2001년에 4백9십만명으로 6배 이상의 증가를 보인다. 비율면에서 1963년에 29.6%에서 점차 감소하였다가 1990년의 22.4%를 최저점으로 반전하여 그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여 2001년에는 25.8%를 보인다. 즉 도시지역 취업자 4명 중 1명인 셈이다.

<표 II-1> 연도별 전체 취업자(비농가)의 자영업주 비율
단위: 천명, %

| | 전체 취업자(비농가) | 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
|------|-------------|-------|------|---------|
| | | | 자영업주 | 자영업주 비율 |
| 1963 | 2691 | 1686 | 796 | 29.6% |
| 1970 | 4580 | 2933 | 1236 | 27.0% |
| 1980 | 8575 | 5660 | 2273 | 26.5% |
| 1990 | 14629 | 10418 | 3273 | 22.4% |
| 2000 | 18583 | 12693 | 4715 | 25.4% |
| 2001 | 18959 | 12895 | 4892 | 25.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이러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경제수준이 비슷한 OECD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높은 편에 속한다. 경제 발전 수준과 자영업주의 비중간의 관계를 연구에 의하면 둘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하여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영업주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주의 비율이 회귀선보다 상당히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발전단계에서 기대되는 수준보다 자영업근로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류재우, 최호영 1999).

자영부문을 여성으로 국한하여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부문은 2001년 현재 여성은 31.7%, 남성은 31.0%로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좀 더 세분하여 보면 여성 취업자 중

<표 II-2> 연도별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

단위: %

| 취업자(여자) | 1985 | 1990 | 1995 | 2000 | 2001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자영업주 | 21.3 | 16.9 | 18.1 | 18.5 | 18.8 |
| 고용주 | 3.0 | 3.3 | 3.9 | 3.5 | 3.8 |
| 자영자 | 18.3 | 13.6 | 14.2 | 15.0 | 15.0 |
| 무급가족종사자 | 16.4 | 13.8 | 14.0 | 13.5 | 12.9 |
| 임금근로자 | 62.3 | 69.2 | 67.9 | 68.0 | 68.3 |
| 상용 | 31.9 | 26.8 | 29.3 | 21.0 | 22.3 |
| 임시 | 19.5 | 28.1 | 28.2 | 32.1 | 32.2 |
| 일용 | 10.9 | 14.3 | 10.4 | 14.9 | 14.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II-3> 연도별 남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포

단위: %

| 취업자 | 1985 | 1990 | 1995 | 2000 | 2001 |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자영업주 | 26.9 | 25.0 | 27.1 | 29.1 | 29.8 |
| 고용주 | 9.6 | 10.4 | 11.3 | 10.6 | 10.9 |
| 자영자 | 17.3 | 14.5 | 15.8 | 18.5 | 18.8 |
| 무급가족종사자 | 1.2 | 1.1 | 0.9 | 1.1 | 1.2 |
| 임금근로자 | 71.8 | 73.9 | 72.0 | 69.7 | 69.0 |
| 상용 | 52.2 | 48.3 | 49.0 | 41.5 | 41.8 |
| 임시 | 10.7 | 16.3 | 14.1 | 18.3 | 18.0 |
| 일용 | 8.9 | 9.3 | 8.9 | 9.9 | 9.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여성 고용주는 3.8%, 자영자는 15.0%, 무급가족종사자는 12.9%로 남자에 비해 고용주비율이 적은 대신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게 나온다. 이는 자영 부문 종사비율이 남녀 비슷한 수준이지만 내부적으로 자영부문에서의 여성 취업자의 경제적 상황이 남성보다 열악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근로자 부분에서도 유사하여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여성은 22.3%임에 비해 남성은 41.8%로 여성의 고용불안정이 훨씬 높아, 자영 부문과 임금근로자 부문 모두 여성의 고용환경이 취약함을 보여준다. 자영부

문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자영자는 지속적으로, 고용주는 불규칙한 가운데 미미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임시고와 일용고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임금근로자부문과는 자못 다른 양상이 추후 예측된다.

다음의 표는 지난 10년간 자영부문의 세부집단별 취업자수에 대한 연도별 증가율이다. 이 표에 의하면 고용주집단의 증가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지난 10여년간 평균 증가율이 여성은 4.3%인 반면 남성은 2.8%로 큰 차이를 보인다. 반면 자영자 집단의 증가율은 남성이 높아 여성이 3.6%인 반면 남성은 4.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이 사실은 지난 10여년간 자영부문의 증가가 주로 남성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 준다. 여성 고용주의 증가는 그 비율은 높지만 점유율이 적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98년 IMF경제위기를 전후한 자영업주의 비율변화이다. 1998년에 여성 고용주는 21.9%, 남성은 11.5%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반면 남성 자영자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다. 또한 1999년의 남성 무급가족종사자는 무려 20.0%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

<표 II-4> 자영부문의 성별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 | 여 자 | | | 남 자 | | |
|------------|-------|------|---------|-------|------|---------|
|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
| 1991 | 6.4 | 6.9 | 5.1 | 11.5 | 5.1 | 6.3 |
| 1992 | 5.1 | 4.9 | -2.0 | 6.6 | 5.1 | 2.8 |
| 1993 | 0.1 | -1.0 | 14.1 | -0.4 | 10.1 | 0.5 |
| 1994 | 13.6 | 3.2 | 1.5 | 5.7 | 2.2 | -8.5 |
| 1995 | 10.0 | 8.8 | 1.0 | 4.4 | 5.6 | -6.1 |
| 1996 | 8.4 | 4.8 | 1.9 | 5.1 | 2.1 | 5.1 |
| 1997 | 5.6 | 5.7 | -0.6 | 1.0 | 5.8 | -3.9 |
| 1998 | -21.9 | -6.3 | 2.9 | -11.5 | 4.7 | 2.8 |
| 1999 | 2.7 | 7.3 | -2.6 | -4.1 | 4.3 | 20.0 |
| 2000 | 5.4 | 3.0 | 3.3 | 7.8 | 2.2 | 5.4 |
| 2001 | 11.6 | 3.4 | -1.3 | 4.1 | 3.2 | 10.4 |
| 연평균 증가율 | 4.3 | 3.7 | 2.1 | 2.8 | 4.6 | 3.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고용주의 경우 폐업, 부도 등으로 감소한 반면, 남성 자영자는 기업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퇴출을 당한 임금근로자들이 대거 자영자로 전환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고용주의 증가율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자영부문의 규모는 개인의 선택과 함께 경기에 강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자영업자의 변화를 분기별로 분석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큰 타격을 받았음이 드러나 1998년 1/4분기 감소율이 여성이 9.5%, 남성이 4.4%로 여성이 두배이상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후퇴시 여성이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종사상의 지위별로는 고용주가 25.9% 감소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일용근로자, 자영자, 상용근로자의 순서이다. 반면 남성은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고용주의 순서로 나타나 감소양상이 성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1998년 2/4분기는 남녀 모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기존의 직장에서의 퇴출이나 폐업으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집단이 무급가족종사자로 편입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무급가족종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보인다.

분기별 증감율의 평균을 보면 전체 여성취업자의 평균은 0.04%로 3년동안 거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 준다. 종사상의 지위별로는 고용주와 상용근로자는 감소한 반면 일용근로자가 가장 높이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와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는 미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부문 내에서 종사상의 지위별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남성취업자의 증감율 평균을 보면 전체적으로 0.03% 감소하여 여성보다 감소율이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과 유사하게 고용주와 상용근로자의 증감을 평균은 마이너스인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과 비교하면 남성은 자영자의 증가율이 남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일용직의 증가율이 높고 상용직의 감소율은 여성이 더 크다. 고용주의 감소율은 여성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5> 경제위기 전후의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기별 증감율
단위: %

| | 여성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 종사자 | 상용 근로자 | 임시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
| 1997 1/4 | -3.7 | 0.7 | -4.9 | -11.2 | -0.4 | 1 | -7.6 |
| 1997 1/2 | 6.1 | 2.9 | 9.4 | 14.7 | -0.1 | 3.4 | 7.6 |
| 1997 3/4 | -0.4 | 3.2 | -0.5 | 0.9 | -4.2 | 1.7 | -0.9 |
| 1997 4/4 | -1.7 | -0.3 | -4.5 | -5.2 | -2.2 | 2.4 | 0 |
| 1998 1/4 | -9.5 | -25.9 | -14.5 | -0.5 | -11.1 | -6.7 | -16.8 |
| 1998 1/2 | 4.9 | 4.2 | 7.9 | 15.2 | -4.1 | 0.4 | 11.3 |
| 1998 3/4 | -1.3 | -2.8 | 2.8 | -2.6 | -3.6 | -3.1 | 5.5 |
| 1998 4/4 | -0.9 | 3.7 | 1.5 | -10.3 | -1.4 | 0.5 | 12.3 |
| 1999 1/4 | -4.9 | -1.2 | -4.4 | -13.7 | -3.4 | -2 | 0.3 |
| 1999 1/2 | 9.2 | 0.8 | 5.9 | 20.1 | 0.1 | 2.8 | 27.6 |
| 1999 3/4 | 1.4 | -1.2 | 4.1 | 0.8 | 2.6 | 0.8 | -0.5 |
| 1999 4/4 | 1.3 | 6 | -0.2 | -4.4 | 1 | 5 | 4.1 |
| 분기증감율 평균 | 0.04 | -0.8 | 0.2 | 0.3 | -2.2 | 0.5 | 3.6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주: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농가와 비농가가 모두 포함됨.

<표 II-6> 경제위기 전후의 남성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분기별 증감율
단위: %

| | 남자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 종사자 | 상용 근로자 | 임시 근로자 | 일용 근로자 |
|-------------|-------|------|------|-------------|-----------|-----------|-----------|
| 1997 1/4 | -2.3 | -2.8 | -2.9 | -11.7 | -0.5 | 0.6 | -12.2 |
| 1997 1/2 | 3 | 2.7 | 6 | 10.3 | -0.7 | 4.2 | 12.1 |
| 1997 3/4 | 0.4 | 0.2 | 1.4 | 0.5 | -2.6 | 5.7 | 4.5 |
| 1997 4/4 | -1 | -0.5 | -3 | -5.2 | -1.5 | 4.6 | -2.7 |
| 1998 1/4 | -4.4 | -7.8 | -0.2 | -3.8 | 0.7 | -11 | -23.8 |
| 1998 1/2 | 0.8 | -3 | 7 | 28.4 | -3.3 | -0.6 | 7.3 |
| 1998 3/4 | -0.8 | -1.4 | 0.2 | 2.2 | -2.8 | 0.3 | 5.6 |
| 1998 4/4 | -0.4 | -0.6 | -1.5 | -11.7 | -2.1 | 2.4 | 9.5 |
| 1999 1/4 | -3.6 | -3.6 | -5.2 | -1.5 | -2.7 | 0.8 | -11.4 |
| 1999 1/2 | 4.8 | -0.7 | 6.9 | 21.4 | -0.9 | 4.7 | 30.7 |
| 1999 3/4 | 1.8 | 2.4 | 1.2 | -0.8 | 0.4 | 4.7 | 4.1 |
| 1999 4/4 | 1.3 | 3.2 | -0.8 | -3.7 | 1.7 | 3.4 | 0.4 |
| 분기증감율 평균 | -0.03 | -1.0 | 0.8 | 2.0 | -1.2 | 1.7 | 2.0 |

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주: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농가와 비농가가 모두 포함됨.

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자영업부문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와 달리 여성의 자영업 증가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970년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1.2%인 반면 자영업주는 0.2%로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증가율은 역전되어 자영업주는 2.2%,

<표 II-7> 자영업자와 민간부문고용의 연간 평균 성장률

단위: %

| | 1973-1979 | | 1979-1990 | | 1990-1998 | |
|--------------------|-----------|------------|-----------|------------|-----------|------------|
| | 자영업자 | 민간부문 고용 | 자영업자 | 민간부문 고용 | 자영업자 | 민간부문 고용 |
| 호주 | 5.6 | 1.0 | 2.8 | 2.4 | 0.0 | 1.1 |
| 오스트리아 | -3.2 | 1.3 | -1.4 | 1.2 | 2.5 | 1.2 |
| 벨기에 | 0.1 | 0.1 | 1.5 | 0.2 | 1.2 | 0.3 |
| 캐나다 ²⁾ | . | . | 4.1 | 2.0 | 4.7 | 0.9 |
| 덴마크 | 0.6 | 0.9 | -1.4 | 1.0 | -0.1 | 0.4 |
| 핀란드 | 0.4 | 1.2 | 4.8 | 1.5 | 0.6 | -1.0 |
| 프랑스 | -0.5 | 0.8 | -0.5 | 0.6 | 1.2 | 0.4 |
| 독일 | -1.8 | 0.0 | 0.3 | 0.8 | 5.6 | 3.2 |
| 그리스 ²⁾ | . | . | 0.5 | 1.5 | 1.1 | 1.3 |
| 아이슬란드 | -0.3 | 2.7 | 6.3 | 2.2 | 5.7 | 2.3 |
| 아일랜드 | 2.5 | 2.1 | 2.8 | 0.4 | 4.6 | 4.6 |
| 이탈리아 | -1.7 | 1.0 | 2.6 | 1.1 | 0.0 | -0.3 |
| 일본 | 1.0 | 1.2 | -0.2 | 1.8 | -1.4 | 0.7 |
| 한국 | . | . | . | . | 3.8 | 2.1 |
| 룩셈부르크 | -1.7 | 1.0 | -0.6 | 2.0 | . | . |
| 멕시코 | . | . | . | . | 10.0 | 6.5 |
| 네덜란드 | -0.2 | 1.1 | 1.5 | 2.4 | 5.0 | 2.3 |
| 뉴질랜드 | . | . | 5.5 | 1.4 | 4.1 | 2.2 |
| 노르웨이 | -0.3 | 2.7 | 0.2 | 0.8 | -0.1 | 1.6 |
| 포르투갈 ²⁾ | 0.9 | 1.1 | 6.4 | 3.5 | 2.4 | 0.5 |
| 스페인 | -0.9 | -0.3 | 2.2 | 1.5 | 1.5 | 1.1 |
| 스웨덴 | 0.5 | 1.5 | 5.3 | 0.8 | 1.4 | -1.3 |
| 터키 | . | . | . | . | 2.0 | 2.7 |
| 영국 | -1.3 | 0.3 | 6.6 | 0.5 | -0.9 | 0.1 |
| 미국 | 3.6 | 2.7 | 2.3 | 1.8 | 0.4 | 1.3 |
| 평균 ³⁾ | 0.2 | 1.2 | 2.2 | 1.4 | | |
| 평균 ⁴⁾ | | | 2.3 | 1.4 | 1.7 | 1.0 |

1) 이 표의 농업종사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비율이며 일부국가에서는 기업소유주가 제외된 비율이다.

2) 1990-1998 대신 1990-1997까지 자료이용

3) 캐나다, 그리스,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를 제외한 평균

4) 그리스,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를 제외한 평균

출처: OECD(2000), Employment Outlook, p. 159.

전체 취업자는 1.4%로 자영업주가 더욱 빠르게 증가한다. 국가별로는 민간부문 고용에 비해 자영업자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은 국가는 캐나다, 독일, 아이슬란드, 멕시코 등이다. 특히 캐나다와 독일은 높은 수준의 GDP를 기록하는 국가의 자영업자율이 저하되는 것에 비해 높은 자영업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만하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증가는 주로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는 성별 자영업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여성이 각각 3.4%, 1.0%로 남성의 2.3%, 0.5%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자영업내 여성비율이 높아져 1970년대의 26.4%에 비해 1990년대는 29.2%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자영업의 증가는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른 서비스부문에서 나타나는데 서비스부문의 여성자영업자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OECD, p.157; Aronson, pp.16-17).

우리나라의 여성 자영업주의 비율은 OECD회원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 앞선 종사상의 지위별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의 16.0%에서 2001년에는 19.3%로 증가하였으나 자영자는 38.8%에서 35.6%로 절대 규모면에서는 증가하였지만 여성비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자영자를 합한 자영업주의 여성비율은 1985년에 비해서는 감소한 반면 2000년에 비해 약간 증가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업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업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자영업주의 여성비율은 OECD선진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표 II-8> OECD회원국의 성별 자영업 증가율

단위: %

| | 여성 | | | 남성 | | |
|------------------------|------------|------------|-------------------------|------------|------------|------------|
| | 1973-1979 | 1979-1990 | 1990-1997 ²⁾ | 1973-1979 | 1979-1990 | 1990-1997 |
| 호주 | 8.5 | 4.1 | 0.0 | 4.6 | 2.4 | -0.2 |
| 벨기에 | 0.0 | 1.7 | 1.9 | 0.2 | 1.4 | 1.4 |
| 캐나다 | . | 5.3 | 6.5 | . | 3.6 | 3.8 |
| 덴마크 | . | . | . | . | . | -0.7 |
| 핀란드 | -2.4 | 4.3 | 0.9 | 2.0 | 5.1 | 0.1 |
| 프랑스 | . | . | 0.6 | . | . | -0.9 |
| 독일 | -3.2 | -1.2 | 6.4 | -1.1 | 1.0 | 5.0 |
| 그리스 | . | -0.1 | 3.2 | . | 0.7 | 1.1 |
| 아일랜드 | . | . | 5.7 | . | . | 2.4 |
| 이탈리아 | -6.0 | 3.7 | 0.1 | -0.3 | 2.3 | -0.2 |
| 일본 | 0.4 | 0.0 | -2.8 | 1.3 | -0.3 | -0.8 |
| 한국 | . | . | 5.2 | . | . | 5.0 |
| 멕시코 | . | . | 19.2 | . | . | 7.0 |
| 네덜란드 | . | . | -0.2 | . | . | 3.6 |
| 노르웨이 | 1.5 | 2.6 | 0.4 | -0.7 | -0.5 | -1.1 |
| 스페인 | -2.3 | 2.9 | 2.6 | -0.5 | 1.9 | 1.2 |
| 스웨덴 | 7.0 | 5.7 | 1.0 | -1.2 | 5.2 | 1.5 |
| 터키 | . | . | 1.3 | . | . | 2.1 |
| 영국 | -1.9 | 8.9 | -1.0 | -1.1 | 5.9 | -1.5 |
| 미국 | 5.7 | 4.2 | 1.9 | 2.9 | 1.4 | -0.2 |
| 평균³⁾ | 0.7 | 3.4 | 1.0 | 0.6 | 2.3 | 0.5 |

1) 농업종사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비율이며 일부국가에서는 기업소유주가 제외된 비율이다.

2) 벨기에, 그리스, 영국은 1996년 자료임.

3)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터키를 제외한 평균

출처: OECD(2000), Employment Outlook, p. 161.

<표 II-9> OECD회원국의 자영업내 성별 비중

단위: %

| | 여성 | | | 남성 | | |
|------------------|-----------|-----------|-------------------------|-----------|-----------|-----------|
| | 1973-1979 | 1979-1990 | 1990-1997 ²⁾ | 1973-1979 | 1979-1990 | 1990-1997 |
| 호주 | 27.5 | 30.5 | 32.9 | 72.5 | 69.5 | 67.1 |
| 벨기에 | 28.1 | 28.3 | 28.9 | 71.9 | 71.7 | 71.1 |
| 캐나다 | . | 29.8 | 32.7 | . | 70.2 | 67.3 |
| 핀란드 | . | 34.1 | 31.1 | . | 65.9 | 68.9 |
| 프랑스 | . | . | 26.0 | . | . | 74.0 |
| 독일 | 34.2 | 26.4 | 28.3 | 65.8 | 73.6 | 71.7 |
| 그리스 | . | 16.6 | 19.4 | . | 83.4 | 80.6 |
| 아일랜드 | . | . | 20.1 | . | . | 79.9 |
| 이탈리아 | 24.5 | 21.9 | 23.4 | 75.5 | 78.1 | 76.6 |
| 일본 | 33.6 | 35.5 | 33.9 | 66.4 | 64.5 | 66.1 |
| 한국 | . | . | 30.3 | . | . | 69.7 |
| 멕시코 | . | . | 33.8 | . | . | 66.2 |
| 네덜란드 | . | . | 32.8 | . | . | 67.2 |
| 노르웨이 | 21.3 | 23.5 | 28.3 | 78.7 | 76.5 | 71.7 |
| 스페인 | 25.2 | 24.7 | 26.8 | 74.8 | 75.3 | 73.2 |
| 스웨덴 | 22.3 | 27.3 | 25.7 | 77.7 | 72.7 | 74.3 |
| 터키 | . | . | 6.8 | . | . | 93.2 |
| 영국 | 20.4 | 23.9 | 24.8 | 79.6 | 76.1 | 75.2 |
| 미국 | 27.2 | 32.9 | 37.0 | 72.8 | 67.1 | 63.0 |
| 평균 ³⁾ | 26.4 | 28.1 | 29.2 | 73.6 | 71.9 | 73.8 |

1) 농업종사자와 무급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비율이며 일부국가에서는 기업소유주가 제외된 비율이다.

2) 벨기에, 그리스, 영국은 1996년 자료임.

3)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터키를 제외한 평균

출처: OECD(2000), Employment Outlook, p. 161.

<표 II-10> 각국의 여성 자영업자의 비율(1963-1983)

| | 1963 | 1967 | 1971 | 1975 | 1979 | 1983 |
|-------|--------------------|------|------|------|------|------|
| 호주 | 20.5 ¹⁾ | 27.0 | 26.7 | 28.4 | 29.1 | 30.8 |
| 벨기에 | 30.5 | 30.5 | 27.9 | 27.8 | 27.3 | 27.8 |
| 캐나다 | N.A | 30.6 | 31.9 | 30.6 | 35.3 | 37.4 |
| F.R독일 | 23.7 | 22.1 | 22.5 | 22.5 | 23.0 | 23.4 |
| 이탈리아 | 30.3 | 27.6 | 27.5 | 27.3 | 20.8 | N.A |
| 일본 | 36.3 | 36.9 | 34.1 | 32.2 | 34.3 | 36.6 |
| 스페인 | N.A | N.A | 23.4 | 25.4 | 22.9 | 24.3 |
| 스웨덴 | N.A | N.A | 19.6 | 21.4 | 25.4 | 28.9 |
| 영국 | 23.3 | 23.6 | 21.5 | 20.7 | 19.3 | 25.2 |
| 미국 | N.A | 25.2 | 25.2 | 26.0 | 29.2 | 32.3 |

1) 1964년

주: 비농업부문

출처: Aronson(1991), p.17.

<표 II-11> 자영부문의 연도별 여성비율

단위: %

| |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 |
|------|------|---------|------|
| | | 고용주 | 자영자 |
| 1985 | 32.3 | 16.0 | 38.8 |
| 1990 | 30.8 | 17.3 | 38.0 |
| 1995 | 30.2 | 18.4 | 36.7 |
| 2000 | 30.2 | 18.3 | 35.6 |
| 2001 | 30.5 | 19.3 | 35.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2.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

이 절에서는 여성 자영부문 중 여성자영업자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첫째 인구학적 특성 및 인적자본적 특성, 둘째 취업구조상의 특성 셋째 근로조건 및 소득 넷째 복지적 측면에서 산재보험에의 가입현황과 일의 만족도를 살펴 보려 한다.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및 남성 자영업자를 근거집단으로 비교함으로써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을 파악하려 한다. 여성 임금근로자와 비교를 통해 임금근로자에 진입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불안정, 저소득을 특징으로 하는 잔여 집단인지 혹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입한 집단인지에 대한 판단근거로 사용하려 하며, 남성 자영업자와의 비교를 통해 여성자영업자가 처한 여성 특유의 어려움등을 파악하려 한다.

가. 여성 자영업자의 개인적 특성

다음의 표는 2001년 현재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 연령이다. 우선 여성 자영업주를 고용주와 자영자로 세분하여 보면 고용주의 평균 연령은 43.1세 자영자는 45.7세로 오히려 고용주의 연령이 높다. 이는 고용주가 자영자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성공을 거친 뒤 고용주가 되기보다는 임금근로자나 무직상태에서 곧바로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남성 고용주의 평균연령에 비하면 여성 고용주는 조금 낮은 반면 자영자는 여성의 평균연령이 더욱 높아 여성 자영자 집단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음을 보여 준다. 여성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상용직이 31.9세로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는 반면 일용직은 41.5세로 연령상 자영자 집단에 가장 근접한 연령집단임을 보여 준다. 무급가족종사자도 42.5세로 일용직 집단과 유사한 수준이다. 남성 취업자의 평균연령이 임시직이 가장 낮고,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과 다른 양상을 보여 노동시장내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연령별 구조가 성별로 다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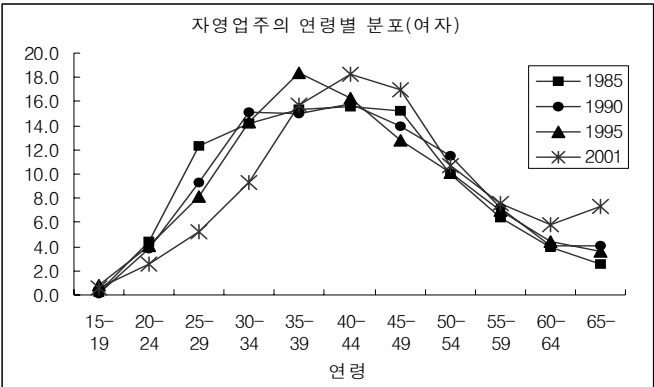
<표 II-12> 성별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 연령(2001년)

단위: %

| | 연령 | 가주주여부 | 유배우율 | 교육년수 |
|---------|------|-------|------|------|
| 여자 | 38.7 | 24.4 | 64.2 | 10.9 |
| 고용주 | 43.1 | 39.8 | 76.5 | 11.9 |
| 자영자 | 45.7 | 38.4 | 70.7 | 9.5 |
| 무급가족종사자 | 42.5 | 0.2 | 94.8 | 10.4 |
| 상용 | 31.9 | 21.3 | 47.6 | 12.9 |
| 임시 | 37.0 | 27.1 | 57.2 | 11.0 |
| 일용 | 41.5 | 26.2 | 68.3 | 9.2 |
| 남자 | 40.2 | 82.1 | 76.2 | 12.4 |
| 고용주 | 43.6 | 95.9 | 93.6 | 13.0 |
| 자영자 | 44.9 | 91.6 | 87.9 | 11.4 |
| 무급가족종사자 | 38.6 | 17.5 | 50.2 | 11.8 |
| 상용 | 38.7 | 85.2 | 78.4 | 13.4 |
| 임시 | 36.4 | 66.5 | 56.6 | 11.8 |
| 일용 | 41.4 | 71.2 | 63.8 | 10.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다음은 여성 자영업주 집단의 연령별 분포에 대한 시기별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여성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는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의 전형적인 연령별 분포는 M형과는 달리 종형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II-1] 여성 자영업주의 연령별 분포

즉 결혼, 출산에 의한 단절현상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자영업주의 연령과 혼인상태를 고려할 때 출산을 마친 후 자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결혼과 출산에 의한 부담이 조직 내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 보다 적기 때문에 즉 근로시간과 양의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하여 가사노동과의 병행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연도별 변화를 보면 평균연령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째는 저연령층의 비율이 낮아지고 반면 40대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자영업주의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른 하나는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분포의 폭이 좁아지면서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연령편차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985년의 경우 30대와 40대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반면 2001년은 30대 후반에 대폭 증가하여 40대 전반에 정점을 보이다가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체 여성 취업자와 비교하여 여성 자영업주의 특성중의 하나는 기혼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2001년 현재 전체 취업자는 미혼이 25.1%, 기혼이 74.9%로 1:3의 비율인 반면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미혼의 비율이 6.1%로 낮은 반면

<표 II-13> 종사상의 지위별 혼인상태(2001년)

단위: %(명)

| | 계 | | 미혼 | 유배우 | 사별 | 이혼 |
|---------------|-------|-----------|------|------|------|-----|
| 계 | 100.0 | (7858777) | 25.1 | 64.2 | 7.0 | 3.6 |
| 비임금근로자 | 100.0 | (2492834) | 6.1 | 81.2 | 9.0 | 3.6 |
| 자영업주 | 100.0 | (1476400) | 8.1 | 71.9 | 14.2 | 5.8 |
| 고용주 | 100.0 | (296339) | 6.1 | 76.5 | 10.3 | 7.1 |
| 자영자 | 100.0 | (1180060) | 8.6 | 70.7 | 15.2 | 5.5 |
| 무급가족종사자 | 100.0 | (1016435) | 3.3 | 94.8 | 1.5 | 0.4 |
| 임금근로자 | 100.0 | (5365942) | 33.9 | 56.3 | 6.1 | 3.6 |
| 상용 | 100.0 | (1753211) | 48.7 | 47.6 | 2.4 | 1.2 |
| 임시 | 100.0 | (2527521) | 31.2 | 57.2 | 6.6 | 5.0 |
| 일용 | 100.0 | (1085210) | 16.3 | 68.3 | 10.9 | 4.4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임금근로자는 33.9%로 혼인상태에 따라 종사상의 지위의 분포가 크게 달라진다. 자영업주 세부 집단별 차이를 보면 고용주 집단의 유배우율이 자영자보다 높은 반면 자영자는 사별상태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아 가장 고연령층 집단임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가 되었을 때 자영업의 진입이 다른 종류의 취업보다 용이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자영자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 중 사별비율이 높은 사실에서도 추측이 가능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예상대로 유배우율이 94.8%로 가장 높아 여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은 남편의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여성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남편의 종사상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II-14> 종사상의 지위별 부부 교차표(2001년)

단위: %

| 배우자 여성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 | 실업자 | 비경활 |
|-----------|-------|------|------|------|------|------|------|------|------|
| 전체 | 100.0 | 35.8 | 10.9 | 6.1 | 11.6 | 18.7 | 0.6 | 2.4 | 13.8 |
| 상용직 | 100.0 | 59.2 | 9.2 | 4.4 | 6.7 | 9.9 | 0.0 | 3.1 | 7.6 |
| 임시직 | 100.0 | 34.9 | 19.8 | 8.5 | 5.1 | 14.5 | 0.0 | 4.1 | 13.1 |
| 일용직 | 100.0 | 31.3 | 15.3 | 15.8 | 5.4 | 14.0 | 0.0 | 3.6 | 14.6 |
| 고용주 | 100.0 | 35.2 | 8.8 | 3.1 | 20.2 | 11.4 | 6.7 | 1.6 | 13.0 |
| 자영자 | 100.0 | 32.6 | 10.4 | 7.5 | 7.6 | 19.5 | 5.3 | 2.4 | 14.7 |
| 무급가족 | 100.0 | 0.4 | 0.1 | 0.0 | 34.1 | 65.0 | 0.2 | 0.0 | 0.2 |
| 실업자 | 100.0 | 32.6 | 15.2 | 12.0 | 3.3 | 12.0 | 0.0 | 10.9 | 14.1 |
| 비경활 | 100.0 | 40.9 | 10.5 | 5.4 | 10.8 | 12.8 | 0.0 | 2.2 | 17.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캐나다의 자영업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30%가 배우자와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자는 28.4%, 여자는 35.9%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15> 성별 자영업자의 배우자의 공동경영 여부 비율

| | 전 체 | 남 | 여 |
|-----------------------|-------|-------|-------|
| 배우자와 함께 자영업을 하는 경우 | 30.7% | 28.4% | 35.9% |
| 배우자와 함께 자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 69.3% | 71.6% | 64.1% |

출처: Benoit(2002), p.76.

1982년의 국제 노동 통계인 회의(ICLS)에서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의 동반자의 개념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주당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취업자로 간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solution) 한국은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을 할 경우 공동운영자의 개념이 없어 일방적으로 부인이 무급가족종사자로 속하게 되고, 주당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유실되고 있다. 향후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통하여 공동운영자의 개념을 도입해야만 여성의 경제활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자영업주의 학력은 남성에 비해 혹은 다른 여성취업자 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여성취업자의 평균 교육년수인 10.9년에 비교할 때 고용주는 평균 이상인 반면 자영자는 평균이하의 수준이다. 고용주의 학력은 11.9년으로 상용근로자와 거의 유사한 반면 자영자는 9.5년으로 일용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고용주와 자영자의 학력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부표 III-3> 참조) 학력별 분포를 보면 고용주는 고졸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중졸이하, 대졸이상의 순서인 반면 자영자는 86%가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의 순서로 낮아지는 가운데 고졸이하가 86%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 자영업주와 비교하면 여성 자영업주의 학력수준이 낮으며, 특히 자영자의 학력수준의 차이가 1.9년으로 고용주의 1.1년보다 더욱 크다. 이는 여성 고용주와 자영자의 학력수준의 차이가 남성간의 차이보다 더욱 큼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성 자영자의 학력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준다.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자영자의 학력분포는 중졸이하가 가장 많지만 대졸이상이 10.5%의 수준임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는 고졸이 48.3%로 가장 많

은 반면 대졸이상은 5.1%에 불과해 자영자의 학력이 이질적인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학력은 보다 균질적임을 알 수 있다. 1985년과 비교하면 자영자의 학력수준이 2.5년 상승하여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졸이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고졸이상 집단은 증가세를 보여준다.

<표 II-16> 성별 종사상의 지위별 학력별 분포와 평균 교육년수

| | 평균년수 | 계 | 취업자수 | 중졸이하 | 고졸 | 전문대 | 대졸이상 |
|----------|------|-------|---------|------|------|-----|------|
| 2001년 여성 | 10.9 | | | | | | |
| 고용주 | 11.9 | 100.0 | 296339 | 24.5 | 49.6 | 6.0 | 20.0 |
| 자영자 | 9.5 | 100.0 | 1180060 | 49.9 | 36.1 | 3.5 | 10.5 |
| 무급가족종사자 | 10.4 | 100.0 | 1016436 | 42.4 | 48.3 | 4.1 | 5.1 |
| 2001년 남성 | 12.4 | | | | | | |
| 고용주 | 13.0 | 100.0 | 1235242 | 13.7 | 48.1 | 6.9 | 31.3 |
| 자영자 | 11.4 | 100.0 | 2131767 | 29.4 | 54.3 | 4.7 | 11.6 |
| 1985년 여성 | | | | | | | |
| 고용주 | 10.2 | 100.0 | 128095 | 51.0 | 33.6 | 2.7 | 12.7 |
| 자영자 | 7.0 | 100.0 | 770382 | 80.0 | 16.0 | 0.5 | 3.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나. 취업구조적 특성

제3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겠지만 여성의 자영업 선택동기와 선택업종은 남성과 차별성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수익성을 주로 고려하는 남성과 달리 가사와의 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융통성이 있고, 진입이 쉬우며, 비용 또는 자본이 적게 드는 업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Hundley, 2000) 한국 역시 여성 자영부문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는 남성과 대조를 이룬다. 먼저 전체 취업자와 자영부문 종사자와를 비교하면 남성은 자영부문 종사자집단이 전체에 비해 도소매업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제조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율이 낮다. 여성 역시 도소매업이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다음으로 음식숙박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제조업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율은 남성 자영자와 마찬가지로 여성 전체 취업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자영부문 내에서 남녀비교를 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은 반면 남성은 제조업, 운수통신업에의 종사비율이 높아 남녀차이를 보인다. 1985년과의 비교를 통해 시기별 차이를 보면 1985년의 여성 자영부문 종사자의 절반이상이 도소매업에 집중되어 있던 반면 2001년은 집중도가 다소 완화되었으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도소매업의 감소비율과 같은 정도로 증가하였다. 또한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이 1985년의 0.6%에 비해 3.0%로 그 절대수치는 낮지만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남성 자영부문 종사자의 경우 1985년에 비해 2001년은 비중이 컸던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감소한 반면 건설업, 운수통신업,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조금씩 증가하여 산업간의 편차가 적어지고 있다.

미국과 서유럽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성장은 여성 자영업자들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대거 진입한 것을 큰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여성 자영업주의 비중이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업종별 변화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자영부문종사자를 세분하여 살펴보면 종사상의 지위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2001년 현재 자영자는 도소매업에 40.5%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으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27.9%로 높다. 그러나 고용주의 경우 음식숙박업이 45.4%로 가장 높아 자영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비교하면 도소매업의 비율이 비슷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조업의 비율이 높고, 자영자는 상대적으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율이 높다. 1985년과 비교하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종사비율이 전체의 약 2/3를 상회하는 것은 여전하나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도소매업집중도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고용주의 경우 음식숙박업의 집중도가 완화되었으며 세 집단 모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자영자의 증가가 괄목할만하다. 또한 금융보험업의 증가는 세 집단에서 고르게 나타난다.

<표 II-17> 성별 산업별 분포(비농업)

단위: % (천 명)

| | 1985 여성 | | 2001 여성 | | 1985 남성 | | 2001 남성 | |
|-------------|-----------|----------|-----------|----------|-----------|----------|-----------|----------|
| | 전체 취업자 | 자영 부문 | 전체 취업자 | 자영 부문 | 전체 취업자 | 자영 부문 | 전체 취업자 | 자영 부문 |
| | 4212 | 1589 | 7859 | 2493 | 7000 | 1971 | 11310 | 3508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광업 | 0.1 | 0.0 | 0.0 | 0.0 | 2.1 | 0.2 | 0.2 | 0.1 |
| 제조업 | 32.1 | 10.7 | 19.2 | 10.6 | 30.7 | 17.0 | 23.8 | 13.5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0.1 | 0.0 | 0.2 | 0.0 | 0.5 | 0.0 | 0.4 | 0.0 |
| 건설업 | 1.5 | 0.2 | 1.7 | 1.2 | 12.0 | 5.0 | 12.8 | 9.9 |
| 도소매업 | 26.6 | 53.4 | 23.2 | 38.8 | 19.0 | 46.5 | 18.1 | 33.7 |
| 음식숙박업 | 14.8 | 23.5 | 17.0 | 23.3 | 4.2 | 9.2 | 5.4 | 9.8 |
| 운수통신업 | 1.5 | 0.1 | 1.9 | 0.8 | 9.1 | 6.1 | 10.4 | 11.8 |
| 금융보험업 | 3.3 | 0.1 | 5.1 | 1.1 | 2.3 | 0.3 | 2.9 | 1.0 |
|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 1.3 | 0.6 | 6.0 | 3.0 | 3.0 | 5.0 | 9.2 | 7.0 |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18.6 | 11.3 | 25.7 | 21.3 | 17.1 | 10.7 | 16.9 | 13.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II-18> 자영부문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별 산업별 분포

단위: % (천 명)

| | 1985 여성 | | | 2001 여성 | | |
|-------------|---------|-------|-------------|---------|-------|-------------|
|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 종사자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가족 종사자 |
| 계 | 128 | 770 | 691 | 296 | 1180 | 1016 |
| 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광업 | 0.1 | 0.0 | 0.0 | 0.1 | 0.0 | 0.0 |
| 제조업 | 8.8 | 9.6 | 12.2 | 6.2 | 7.0 | 16.1 |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0.0 | 0.0 | 0.0 | 0.0 | 0.0 | 0.0 |
| 건설업 | 0.4 | 0.0 | 0.4 | 0.6 | 0.3 | 2.3 |
| 도소매업 | 13.2 | 55.7 | 58.3 | 18.1 | 40.5 | 42.9 |
| 음식숙박업 | 53.6 | 20.4 | 21.4 | 45.4 | 18.4 | 22.5 |
| 운수통신업 | 0.2 | 0.0 | 0.3 | 0.1 | 0.6 | 1.2 |
| 금융보험업 | 0.2 | 0.1 | 0.0 | 0.5 | 2.0 | 0.1 |
|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 | 0.5 | 0.5 | 0.7 | 2.7 | 3.3 | 2.7 |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 23.0 | 13.6 | 6.6 | 26.3 | 27.9 | 12.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여성 자영업주의 직업을 보면 서비스종사자 38.1%, 판매종사자 33.8%로 앞의 산업별 분포와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전문가와 준전문가의 비율도 15.1%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 자영업주가 단순히 서비스, 판매직에만 몰려 있지는 않다. 자영업주와 비교할 때 무급가족종사자는 사무종사자와 판매종사자, 기능직의 비중이 높으며 서비스종사자의 비중이 낮다. 남성자영업주는 의회직 및 고위임직원의 비중이 8.4%로 여성 자영업주보다 직업적 위세가 매우 높은 직종의 비율이 높으며, 서비스종사자와 판매종사자의 비중이 낮고, 반면 기능직 및 장치기계조립직의 비중이 높다. 이와 같이 남녀 자영업주는 매우 다른 직업적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표 II-19> 자영부문 종사자의 성별 직업별 분포(2001년)
단위: %(명)

| | 여성 | | 남성 |
|-------------------|--------------------|--------------------|--------------------|
| | 자영업주 | 무급종사자 | 자영업주 |
| 계 | (1476398) 100.0 | (1016434) 100.0 | (3367012) 100.0 |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1.4 | 0.0 | 8.4 |
| 전문가 | 4.3 | 0.9 | 4.4 |
| 기술공 및 준전문가 | 10.8 | 1.9 | 10.7 |
| 사무종사자 | 1.2 | 14.3 | 1.3 |
| 서비스종사자 | 38.1 | 26.5 | 11.9 |
| 판매종사자 | 33.8 | 39.1 | 26.6 |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6.1 | 10.0 | 16.7 |
|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1.2 | 3.3 | 17.1 |
| 단순노무 종사자 | 3.1 | 3.9 | 2.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미국 자영업자의 직종분포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우선 1980년을 기준으로 서엽으로 비교하면 숙련직의 비율이 남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개인 서비스관련 직종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1950년과 1980년을 비교하면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 관리자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판매직과

개인서비스직이 대폭 증가하였고, 전문기술직도 조금 증가하였다. 1980년의 전체 여성취업자와 비교하면 판매직의 비율이 높고 반면 취업자는 사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개인서비스직의 비율은 자영업이 높게 나타난다.

<표 II-20> 미국 자영업자의 성별 직업별 분포(1950, 1980)

| 종사자 | 남 자 | | | | 여 자 | | | |
|------------------|--------|----------|--------|----------|--------|----------|--------|----------|
| | 1950 | | 1980c | | 1950 | | 1980c | |
| | 전체 | 자영 업자 | 전체 | 자영 업자 | 전체 | 자영 업자 | 전체 | 자영 업자 |
| 전체종사자 (단위:천명) | 33,900 | 4,320 | 53,597 | 3,984 | 15,154 | 845 | 41,231 | 1,401 |
| 전문기술직 | 8.6 | 12.2 | 14.5 | 19.9 | 12.8 | 12.1 | 18.2 | 19.2 |
| 관리직 | 12.4 | 49.7 | 13.2 | 14.9 | 4.4 | 38.5 | 7.4 | 12.9 |
| 판매직 | 7.6 | 7.4 | 9.5 | 20.0 | 8.7 | 11.8 | 11.3 | 24.4 |
| 사무직 | 7.6 | 0.5 | 10.0 | 0.9 | 28.2 | 5.7 | 32.0 | 8.9 |
| 숙련직 | 22.3 | 16.5 | 21.7 | 29.6 | 1.6 | 1.8 | 2.4 | 4.6 |
| 조립직 | 23.7 | 6.9 | 17.7 | 8.5 | 19.9 | 8.2 | 9.7 | 3.1 |
| 비농업 노동자 | 9.6 | 2.5 | 6.5 | 1.2 | 0.8 | 0.3 | 2.1 | 0.6 |
| 개인서비스직 | 6.9 | 3.8 | 7.2 | 4.7 | 12.6 | 17.8 | 16.3 | 26.3 |
| 개인가구 | 0.2 | -c | -c | -c | -c | -c | -c | -c |

a: 자신의 회사에 고용인 제외

b: 성별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1960년과 1970년 자료는 생략함

c: 0.1보다 작은 비율

출처: Aronson(1991), p.11.

다. 여성 자영업자의 근로조건

Eden(1975)는 그의 연구에서 자영업자가 일의 만족도와 자율성을 획득하는 대신, 장시간노동과 불안정한 수입, 정신적 긴장 등의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유리함은 실제보다 상향평가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자영업자의 근로조건은 임금근로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선 노동정책의 주요 대상이 임금근로자인 만큼 고용보험, 산

재보험 등의 국민보험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장시간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의 여성 자영업자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및 본원의 여성취업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연도별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주로 남녀 자영업자와 근로자집단의 소득실태를 비교하였고, 여성취업실태조사로는 가족관계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화를 파악하였다.¹⁾

1) 근로시간

여성 자영업주의 노동시간을 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고용주는 59.5시간, 자영자는 50.7시간으로 여성 전체 취업자의 평균 근로시간인 48.7시간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고용주는 54시간 이상이 68.5%로 3명 중 2명꼴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자영자는 평균 근로시간이 상용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보다 높지만 시간분포를 보면 35시간 이하의 비율과 54시간 이상의 비율이 자영자가 높고, 반면 36-53시간의 비율은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보다 낮다. 이는 자영자의 노동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자영자의 장시간 근로는 업무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주는 2/3이상이 54시간이상 일하고 있어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자 역시 약 50%, 무급가족종사자 43%로 장시간 근로자 집단의 비율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특히 72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고용주는 22.2%, 자영자는 14.2%, 무급가족종사자는 11.3%로 임금근로자의 1.8%(상용직), 5.3%(임시직), 3.0%(일용직)과 비교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U회원국의 근로시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

1) 노동패널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III장 여성의 자영업 결정선택요인' 제1절을, 여성취업실태조사는 '제V장 여성 자영업자의 취업력' 앞부분을 참고하시오.

를 보면 지나치게 근로시간이 길 경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캐나다의 조사 역시 자영업자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장시간에 걸친 근무를 들고 있어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이들의 업무만족도를 크게 위협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고용주는 56.2시간, 자영자는 55.2시간으로 역시 장시간 노동이지만 남성 전체 취업자의 52.9시간에 비해 그리 길지 않다. 또한 고용주와 자영자와의 시간의 차이가 여성만큼 크지 않으며, 35시간 미만 자영자와 54시간 이상 자영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적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 자영업주가 고용주와 자영자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며, 각 집단간의 시간편차 역시 남자보다 큰 것으로 남성보다 이질적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1985년과 비교하면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근로시간이 감소하였음이 드러난다. 특히 1985년의 고용주는 주당 68시간으로 상당히 장시간 근로하였으나, 2001년에는 주당 60시간으로 8시간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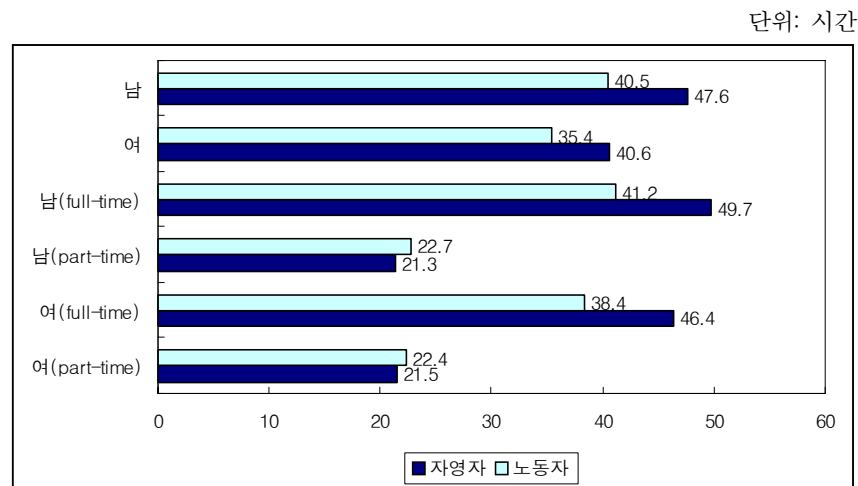
<표 II-21> 종사상의 지위별 노동시간

단위: % (시간)

| | 평균노동 시간 | 계 | 0-17 시간 | 18-35 시간 | 36-53 시간 | 54-71 시간 | 72시간 이상 |
|-----------|------------|-------|------------|-------------|-------------|-------------|------------|
| 여자(2001년) | | | | | | | |
| 전체 | (48.7) | 100.0 | 8.1 | 8.6 | 46.9 | 29.4 | 7.1 |
| 고용주 | (59.5) | 100.0 | 2.8 | 3.3 | 25.4 | 46.3 | 22.2 |
| 자영자 | (50.7) | 100.0 | 10.1 | 9.5 | 29.5 | 36.7 | 14.2 |
| 무급가족종사자 | (44.1) | 100.0 | 19.7 | 7.9 | 29.9 | 31.2 | 11.3 |
| 상용직 | (47.7) | 100.0 | 2.7 | 2.2 | 69.9 | 23.4 | 1.8 |
| 임시직 | (48.7) | 100.0 | 4.0 | 7.9 | 51.2 | 31.7 | 5.3 |
| 일용직 | (40.1) | 100.0 | 11.8 | 21.9 | 44.2 | 19.2 | 3.0 |
| 남자(2001년) | | | | | | | |
| 전체 | (52.9) | 100.0 | 3.0 | 4.0 | 45.1 | 38.2 | 9.6 |
| 고용주 | (56.2) | 100.0 | 1.8 | 2.3 | 37.5 | 45.4 | 13.0 |
| 자영자 | (55.2) | 100.0 | 4.2 | 5.0 | 32.7 | 43.0 | 15.1 |
| 무급가족종사자 | (36.3) | 100.0 | 25.5 | 14.5 | 32.4 | 23.0 | 4.6 |
| 여자(1985년) | | | | | | | |
| 전체 | (57.6) | 100.0 | 1.2 | 5.0 | 34.3 | 43.0 | 16.5 |
| 고용주 | (68.8) | 100.0 | 1.6 | 2.7 | 15.0 | 36.1 | 44.5 |
| 자영자 | (61.5) | 100.0 | 1.3 | 7.1 | 25.9 | 37.9 | 27.8 |
| 무급가족종사자 | (59.6) | 100.0 | 0.1 | 7.7 | 29.6 | 41.2 | 21.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캐나다의 자영업자 조사결과도 역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즉 전일제와 시간제의 비율은 피고용자와 자영업자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각각의 집단에서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근로자보다 긴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Benoit Delage(2002), p.79.

[그림 II-2] 캐나다의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근로시간

<표 II-22>에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근로시간이 성별·연령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종사상지위별 근로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1.3시간으로 비임금근로자의 56.6시간에 비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주의 근로시간은 전반적으로 (40대자영업자는 예외) 자영업자 또는 가족종사자에 비해 약간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근로시간의 차이는 남녀집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성·남성집단을 비교해 보면 임금근로의 경우에는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은 47.6시간이고 남성의 근로시간은 53.8시간으로 여성의 근로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간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전체 평균시간은 여성과 남성집단 모두에서 56.6시간으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I-22>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성별·연령집단별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 | | |
|-------|-------|---------|-------|---------|-------|---------|-------|---------|-------|---------|
| | | | 소계 | | 고용주 | | 자영자 | | 가족종사자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전체 | 51.33 | (16.16) | 56.59 | (23.75) | 57.49 | (21.80) | 56.58 | (24.62) | 55.53 | (23.94) |
| 여성 | 47.64 | (16.15) | 56.57 | (24.88) | 59.03 | (23.71) | 56.64 | (26.22) | 55.80 | (24.03) |
| 20대 | 47.32 | (13.73) | 54.73 | (30.77) | 62.75 | (20.93) | 41.64 | (34.60) | 67.33 | (23.40) |
| 30대 | 45.89 | (14.87) | 56.74 | (25.41) | 58.32 | (26.41) | 53.98 | (25.66) | 58.20 | (25.05) |
| 40대 | 49.70 | (18.19) | 57.48 | (23.94) | 59.17 | (23.21) | 61.48 | (25.71) | 53.89 | (22.44) |
| 50대이상 | 47.64 | (19.89) | 55.66 | (24.84) | 58.95 | (23.08) | 55.95 | (25.25) | 54.73 | (24.84) |
| 남성 | 53.75 | (15.71) | 56.61 | (22.92) | 57.07 | (21.25) | 56.56 | (23.82) | 53.37 | (23.37) |
| 20대 | 54.30 | (14.72) | 61.61 | (26.84) | 55.91 | (22.07) | 68.32 | (29.91) | 51.10 | (19.68) |
| 30대 | 53.76 | (14.46) | 59.23 | (22.63) | 57.76 | (23.02) | 60.67 | (21.77) | 54.30 | (30.27) |
| 40대 | 53.41 | (15.14) | 57.69 | (20.71) | 57.18 | (19.28) | 58.20 | (21.76) | 54.90 | (22.07) |
| 50대이상 | 53.64 | (19.50) | 52.66 | (24.57) | 56.18 | (23.05) | 51.37 | (25.11) | 53.23 | (23.68)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여성임금근로자의 경우 30대의 주당근로시간은 45.9시간을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40대는 49.7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의 경우에는 20대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어 62.8시간이고 30대의 근로시간은 58.3시간으로 20대에 비해 30대의 근로시간은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영자의 경우에는 30대의 근로시간 54시간에서 40대에는 근로시간이 61.5시간으로 길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린 자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30대의 경우 임금근로자와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는 근로시간을 감축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피고용인이 없는 40대 자영자의 경우에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지는 시기에 근로시간이 61.5시간으로 비교적 장시간 일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23>에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근로시간이 성별·교육수준별로 제시되어 있다. 여성·남성집단을 비교하면 여성임금근로자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근로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

는 고졸미만보다는 고졸집단의 근로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대졸미만·대졸이상의 학력을 갖는 여성자영업자에게서 나타나는데 여성자영업 종사자의 근로시간이 각 학력집단에서 50시간 이상인데 반해 이 집단에서는 38시간대로 18시간 정도 짧게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학력 집단의 남성표본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23> 종사상 지위별 근로시간: 성별·교육수준별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 | | |
|------|-------|---------|-------|---------|-------|---------|-------|---------|-------|---------|
| | | | 소계 | | 고용주 | | 자영자 | | 가족종사자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전체 | 51.33 | (16.16) | 56.59 | (23.75) | 57.49 | (21.80) | 56.58 | (24.62) | 55.53 | (23.94) |
| 여성 | | | | | | | | | | |
| 고졸미만 | 47.64 | (16.15) | 56.57 | (24.88) | 59.03 | (23.71) | 56.64 | (26.22) | 55.80 | (24.03) |
| 고졸 | 49.96 | (18.91) | 57.92 | (24.59) | 61.60 | (25.84) | 59.36 | (23.71) | 55.82 | (25.09) |
| 대졸미만 | 48.04 | (15.60) | 57.09 | (25.50) | 59.50 | (22.03) | 57.87 | (29.78) | 55.93 | (23.24) |
| 대졸이상 | 46.45 | (13.83) | 47.69 | (24.63) | 50.33 | (29.02) | 38.00 | (24.28) | 54.56 | (22.10) |
| 대졸이상 | 44.18 | (13.43) | 49.25 | (22.68) | 56.05 | (21.19) | 37.63 | (23.17) | 55.73 | (17.64) |
| 남성 | | | | | | | | | | |
| 고졸미만 | 53.75 | (15.71) | 56.61 | (22.92) | 57.07 | (21.25) | 56.56 | (23.82) | 53.37 | (23.37) |
| 고졸 | 54.30 | (18.85) | 55.08 | (24.61) | 59.32 | (22.80) | 54.46 | (25.15) | 45.94 | (21.76) |
| 대졸미만 | 55.75 | (15.12) | 57.90 | (22.90) | 56.78 | (22.51) | 58.67 | (23.05) | 55.44 | (24.60) |
| 대졸이상 | 53.39 | (14.81) | 57.10 | (21.87) | 56.84 | (17.07) | 55.87 | (25.94) | 65.14 | (22.48) |
| 대졸이상 | 50.37 | (13.54) | 56.01 | (19.17) | 55.93 | (19.67) | 56.10 | (18.51) | 60.00 | .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2) 수입

자영업에서 예상되는 높은 수입은 자영업 선택의 주요 동기이다. Hundley는 남성은 주로 고용주의 준비단계로서 자영업을 선택하지만 여성은 경우는 가사와의 병행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여성의 가사노동, 결혼, 가족규모가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근로자보다 자영업부문에서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Hundley, 2000)

<표 II-24>에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근로소득이 성별·연령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종사상지위별 근로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 전체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20.1만원이고 비임금근로자 전체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139.2만원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주의 평균 근로소득은 247.1만원으로 자영자의 124.3만원과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 120.1만원에 비해 약 2배에 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임금근로의 선택을 고학력·고능력자집단과 저학력·저능력집단으로 대별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자영업이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표 II-22>와 <표 II-23>에서 나타났듯이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높은 근로소득을 근로시간과 연결하여 분석·설명하는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24>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성별·연령집단별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 |
|--------|--------|---------|--------|----------|--------|----------|--------|----------|
| | | | 소계 | | 고용주 | | 자영자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전체 | 120.12 | (77.37) | 139.19 | (273.06) | 247.05 | (427.39) | 124.26 | (183.79) |
| 여성 | 85.03 | (47.63) | 78.37 | (157.17) | 162.15 | (195.90) | 94.16 | (173.87) |
| 20대 | 86.19 | (35.64) | 98.93 | (138.66) | 120.00 | (72.57) | 84.86 | (60.11) |
| 30대 | 91.74 | (59.24) | 89.35 | (136.89) | 185.89 | (168.43) | 96.11 | (117.47) |
| 40대 | 86.59 | (51.21) | 78.70 | (156.63) | 180.21 | (240.68) | 99.81 | (158.70) |
| 50대 이상 | 66.61 | (43.91) | 67.26 | (173.30) | 94.00 | (92.76) | 89.67 | (215.90) |
| 남성 | 143.18 | (84.20) | 183.21 | (325.71) | 270.38 | (469.03) | 138.75 | (186.79) |
| 20대 | 107.12 | (42.59) | 116.09 | (114.34) | 184.55 | (118.86) | 123.60 | (109.50) |
| 30대 | 156.80 | (83.59) | 178.36 | (198.30) | 224.85 | (237.72) | 155.69 | (161.09) |
| 40대 | 160.12 | (94.02) | 207.10 | (404.53) | 296.17 | (566.35) | 137.40 | (174.49) |
| 50대 이상 | 130.45 | (89.98) | 167.25 | (313.09) | 283.93 | (488.63) | 131.80 | (216.35) |

주: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단위는 만원. 비임금근로자 소계의 평균값은 가족종사자의 평균 근로소득을 합한 평균값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면 각 종사상지위 집단에서 여성의 근로소득이 남성의 근로소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평균 85만원이고 남성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183만원이며 여성고용주의 근로소득은 평균 162만원이고 남성고용주의 근로소득은 270만원이다. 여성자영자의 근로소득은 94만원이고 남성자영자의 근로소득은 139만원으로 성별집단간 차이는 고용주에서 가장 커서 108만원 정도이고 자영자의 경우는 45만원으로 임금근로자간의 차이인 58만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25>에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근로소득이 성별·교육수준별로 제시되어 있다. 여성·남성을 비교하면 임금근로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월 평균근로소득이 높아지고 있음을 남녀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표 II-23>에서 보았듯이 학력수준에 따라 근로시간이 일관성 있게 증가하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시간당 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을 추측하게 한다. 여성고용주와 여성자영자의 경우는 대졸이상의 학력집

<표 II-25> 종사상 지위별 근로소득: 성별·교육수준별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 |
|------|--------|----------|--------|----------|--------|----------|--------|----------|
| | | | 소계 | | 고용주 | | 자영자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전체 | 120.12 | (77.37) | 139.19 | (273.06) | 247.05 | (427.39) | 124.26 | (183.79) |
| 여성 | 85.03 | (47.63) | 78.37 | (157.17) | 162.15 | (195.90) | 94.16 | (173.87) |
| 고졸미만 | 64.82 | (29.28) | 62.77 | (118.24) | 137.25 | (123.93) | 71.70 | (109.33) |
| 고졸 | 80.76 | (44.23) | 83.79 | (185.76) | 135.63 | (145.49) | 131.11 | (270.84) |
| 대졸미만 | 90.00 | (44.32) | 76.51 | (127.44) | 100.00 | (83.67) | 82.92 | (52.20) |
| 대졸이상 | 121.54 | (58.21) | 181.63 | (249.58) | 262.95 | (324.77) | 161.05 | (173.75) |
| 남성 | 143.18 | (84.20) | 183.21 | (325.71) | 270.38 | (469.03) | 138.75 | (186.79) |
| 고졸미만 | 105.59 | (49.80) | 133.36 | (253.89) | 186.42 | (415.33) | 122.78 | (182.80) |
| 고졸 | 133.51 | (66.45) | 191.47 | (390.92) | 277.95 | (599.66) | 154.06 | (208.56) |
| 대졸미만 | 138.79 | (59.38) | 208.82 | (255.31) | 306.11 | (340.17) | 137.89 | (96.51) |
| 대졸이상 | 191.90 | (115.51) | 258.82 | (275.80) | 307.13 | (288.59) | 136.40 | (113.55) |

주: 월평균 근로소득으로 단위는 만원. 비임금근로자 소계의 평균값은 가족종사자의 평균 근로소득을 합한 평균 값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단에서 근로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고졸집단의 근로소득이 대졸미만에 비해 높은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남성고용주의 근로소득은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높아지지만 남성자영자의 경우에는 고졸집단의 근로소득이 대졸집단에 비해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본원의 취업실태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간의 관계에 따른 수입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²⁾ 우선 종사상의 지위별 수입분포를 보면 우선 고용주가 월 202만원으로 가장 높고 자영자 126만원,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의 수준이다. 그러나 고용주와 자영자의 근로시간이 임금근로자보다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시간당 수입을 계산하면 여전히 고용주가 가장 높지만 자영자와 상용근로자는 그 순위가 뒤바뀌어 상용근로자가 더 높게 나온다.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선택에 있어 가구 총수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가구총수입에서 여성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였다. <표 II-26>의 평균기여율은 개별 여성취업자의 수입이 가구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값을 취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여성 고용주의 수입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의 기여율이 가장 낮은 반면 자영자의 기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자영자의 기여율이 높은 이유는 첫째 여성 자영자의 가구주 비율이 다른 취업자 집단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여성 취업자 전체의 가구주 비율인 14.6%임에 비해 자영자는 37.3%로 두 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에 따라 가구총수입은 적지만 여성 자영자의 기여율이 높은 가구가 자영자 집단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구총수입과 기여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음의 상관관계($r=-.534$, $\text{sig}=.000$)를 보여 주는데 이는 가구총수입이 낮을수록 즉 가난할수록 여성의 기여율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노동패널』의 근로소득과 본원의 『여성취업실태조사』의 수입액의 절대액을 비교하면 본원의 수입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조사시 소득과 수입액의 개념차이에 의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다. 절대액의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종사상의 지위별 수입의 순서는 두 조사자료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26> 종사상의 지위별 월수입비교

단위: 천원, 원, 천원, %

| | 월수입 | 시간당수입 | 가구총수입 | 평균 기여율 |
|---------------|-------|--------|--------|--------|
| 고용주 (4) | 201.7 | 8559.4 | 1063.8 | 31.9 |
| 자영자 (204) | 126.0 | 5405.9 | 245.4 | 60.5 |
| 무급가족종사자 (189) | | | 225.4 | |
| 상용고 (712) | 108.3 | 5532.3 | 259.8 | 51.1 |
| 임시/일용고 (293) | 62.7 | 4703.0 | 180.9 | 48.7 |
| Total (1402) | 100.6 | 5320.7 | 238.9 | 52.0 |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자영자의 가구 총수입중 기여율이 높은 이유가 가구주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자영자가 가구주일 때와 가구주의 배우자일 때를 비교하여 각각의 수입과 총수입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영자가 가구주일 때 월수입과 시간당수입이 모두 높지만 가구 총수입은 자영자가 가구주의 배우자일 때 즉 남편과 같이 사는 부인일 경우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 자영자의 경우 남편의 유무가 개인의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구총수입에는 큰 영향을 미쳐 여성이 속한 가구의 생활정도가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가구주인 여성자영자는 빈곤에 처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 자영자의 정책수립시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표 II-27> 자영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별 월수입

단위: 만원(원)

| 가구주와의관계 | 월수입 | 시간당수입 | 가구총수입 | 가구 수입중 비율 |
|--------------|-------|----------|-------|-----------|
| 가구주 (76) | 128.0 | (5161.6) | 160.6 | 85.7 |
| 가구주배우자 (125) | 125.1 | (5565.5) | 295.6 | 45.6 |
| 그외가족 (3) | 116.7 | (4944.9) | 300.0 | 38.7 |
| total (204) | 126.0 | (5405.9) | 245.4 | 60.5 |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3)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가입실태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정규직 임금근로자집단이 가장 확실한 수혜자인 반면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패널조사에 의하면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28>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개인의 빈도와 백분율이 제시되어 있다. 전체표본 8577명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개인은 3605명으로 42%에 해당한다. 가입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 61.8%, 비임금근로자 24.8%로 임금근로자의 가입비율이 비임금근로자의 가입비율에 비해 40%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집단별로 비교해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종사상지위에 관계없이 여성의 가입비율은 남성의 가입비율에 비해 낮다. 전체 표본 중 여성의 가입비율(32.2%)은 남성의 가입비율(67.8%)에 비해 현저히 낮는데 이는 여성의 높은 미취업 비율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임금근로자중에서는 46.3%, 비임금근로자중에서는 25.8%이고 남성근로자의 가입비율은 임금근로자중에서는 71.8%, 비임금근로자중에서는 68.3%로 여성은 남성에

<표 II-28> 국민연금가입상태

| | 전체 | 미취업 | 임금 | 비임금 | | | |
|----|------------------|-----------------------------|------------------------------|-----------------------------|-----------------------------|-----------------------------|----------------------------|
| | | | | 소계 | 고용자 | 자영자 | 가족종사자 |
| 전체 | 3605 (100.00) | 484 (13.43) ^c | 2227 (61.77) ^c | 894 (24.80) ^c | 304 (34.01) ^a | 507 (56.71) ^a | 83 (9.28) ^a |
| 여성 | 1160 (32.18) | 305 (13.68) ^b | 663 (46.30) ^b | 192 (25.81) ^b | 37 (37.00) ^b | 88 (29.43) ^b | 67 (19.42) ^b |
| 남성 | 2445 (67.82) | 179 (18.57) ^b | 1564 (71.78) ^b | 702 (68.29) ^b | 267 (73.35) ^b | 419 (67.47) ^b | 16 (37.21) ^b |

주: () 안은 백분율.

a: 비임금근로에 종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894명 중의 비율

b: 각 셀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

c: 전체표본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3605명 중 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비해 가입비율이 낮으며 특히 여성자영업종사자의 가입비율은 여성임금근로자와 남성자영업종사자에 비해 크게 상당히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여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본 결과가 <표 II-29>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0.2%는 절반 정도이고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는 40.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해대상범위에 대한 질문에서는 자영업자 뿐 아니라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높아 77.3%로 나타난다. 주요한 서비스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병원치료비 전액으로 71.3%에 해당한다. 자영업의 형태별로 비교하여 보면 필요성을 인식하거나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는 자영자 또는 가족종사자에 비해 고용주집단에서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수해대상자를 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고용주집단(75.3%)보다도 가족종사자집단(86.3%)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29> 산재보험의 필요성 및 가입의사

| | 전체 | | 고용주 | | 자영자 | | 가족종사자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필요성 | | | | | | | | |
| 예 | 890 | (50.23) | 247 | (53.23) | 459 | (49.89) | 184 | (47.42) |
| 아니오 | 884 | (49.77) | 217 | (46.77) | 461 | (50.11) | 204 | (52.58) |
| 가입의사 | | | | | | | | |
| 예 | 724 | (40.86) | 219 | (47.20) | 359 | (39.02) | 146 | (37.63) |
| 아니오 | 1050 | (59.14) | 245 | (52.80) | 561 | (60.98) | 242 | (62.37) |
| 수해대상범위 | | | | | | | | |
| 자영업자 | 400 | (22.66) | 114 | (24.68) | 233 | (25.41) | 53 | (13.73) |
| 가족종사자포함 | 1365 | (77.34) | 348 | (75.32) | 684 | (74.59) | 333 | (86.27) |
| 주요한서비스 | | | | | | | | |
| 병원치료비전액 | 1260 | (71.31) | 343 | (73.92) | 641 | (69.98) | 276 | (71.32) |
| 간병인 비용지급 | 59 | (3.34) | 10 | (2.16) | 32 | (3.49) | 17 | (4.39) |
| 휴업으로 인한 손실액 보상 | 229 | (12.96) | 59 | (12.72) | 128 | (13.97) | 42 | (10.85) |
| 장애발생시 급여지급 | 136 | (7.70) | 34 | (7.33) | 70 | (7.64) | 32 | (8.27) |
| 사망시 유족에게 급여지급 | 74 | (4.19) | 18 | (3.88) | 37 | (4.04) | 19 | (4.91) |
| 사망시 장의비 지급 | 7 | (0.40) | . | . | 60 | (0.66) | 1 | (0.26) |
| 기타 | 2 | (0.11) | . | . | 2 | (0.22) | . | .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중 비임금근로자 1772명. 고용주 464명, 자영자 920명, 가족종사자 388명.

4) 직업만족

자영업자가 장시간 근로와 불규칙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 대신 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자신의 일에 자율성이 있기 때문이다.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일의 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매우 만족하는 비율은 상용고가 6.6%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자영자가 4.9%로 높다. 만족과 매우 만족의 비율을 합하면 사례수가 너무 적어 신뢰도가 낮은 고용주 집단을 제외한 다섯 집단에서 여전히 상용고의 만족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는 자영자, 임시고, 무급가족종사자, 일용고의 순서로 나타나 자영자의 만족도는 상용고 다음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I-30> 종사상의 지위별 직업만족도

| | 매우불만족 | 불만족 | 그저그렇다 | 만족 | 매우만족 | 전체 |
|------|-------|------|-------|-------|------|-------------|
| 고용주 | 0.0 | 0.0 | 0.0 | 100.0 | 0.0 | 100.0 (4) |
| 자영업자 | 2.2 | 16.8 | 46.6 | 29.4 | 4.9 | 100.0 (268) |
| 무급가족 | 2.4 | 26.1 | 50.5 | 19.4 | 1.6 | 100.0 (372) |
| 상용고 | 1.3 | 8.3 | 45.3 | 38.5 | 6.6 | 100.0 (980) |
| 임시고 | 2.8 | 20.7 | 46.1 | 28.6 | 1.8 | 100.0 (217) |
| 일용고 | 4.9 | 25.5 | 51.0 | 18.6 | 0.0 | 100.0 (102) |

출처: 한국여성개발원(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256.

자영업의 비중이 적고, 대신 보다 근대직종과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EU회원국의 자영업자 만족도조사는 우리나라와 다소 대조되는 결과를 보인다. 남성의 경우 고용주, 자영자, 피고용인의 순서로 만족도가 높으나, 자영자와 피고용인은 만족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주당 근로시간별로 비교하면 자영자는 30-39시간일하는 집단의 만족률이 가장 높은 반면 피고용인은 45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자의 만족률이 높게 나온다. 여성은 전반적으로 만족률이 남성보다 높으며 특히 고용주와 자영자의 매우 만족률은 각각 52%, 44%로 여성 피고용인의 32%에 비해 매우 만족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피고용인의 경우 상용고와 임시/일용고를 합한 개념으로 우리 나라와 직접

비교하는 것을 무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유럽국가에서 자영업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31> EU회원국의 성별 자영업자 만족도(1995/96)

| | 남 자 | | | | | | | 남녀전체 |
|-------------------|----------------|-------------|-------------|-------------|-------------|------------|--------------|----------|
| | 주된 직업에서의 일하는시간 | | | | | | | all hour |
| | 10시간 이하 | 10-29 시간 | 30-39 시간 | 40-44 시간 | 45-59 시간 | 60시간 이상 | all hours | |
| 전체 취업자 | | | | | | | | |
| 매우만족 | 12 | 25 | 29 | 29 | 35 | 36 | 31 | 32 |
| 그 외 ²⁾ | 88 | 74 | 71 | 71 | 64 | 64 | 69 | 53 |
| 자영자 | | | | | | | | |
| 매우만족 | . | 23 | 53 | 36 | 32 | 33 | 35 | 38 |
| 그 외 ²⁾ | . | 77 | 47 | 64 | 67 | 67 | 65 | 61 |
| 고용주 | | | | | | | | |
| 매우만족 | . | . | . | . | . | . | 42 | 45 |
| 그 외 ²⁾ | . | . | . | . | . | . | 58 | 55 |
| 피고용인 | | | | | | | | |
| 매우만족 | . | 27 | 27 | 28 | 35 | 34 | 29 | 30 |
| 그 외 ²⁾ | . | 73 | 73 | 71 | 64 | 66 | 71 | 69 |

| | 여 자 | | | | | | | 남녀전체 |
|-------------------|----------------|-------------|-------------|-------------|-------------|------------|-----|------|
| | 주된 직업에서의 일하는시간 | | | | | | | 전시간 |
| | 10시간 이하 | 10-29 시간 | 30-39 시간 | 40-44 시간 | 45-59 시간 | 60시간 이상 | 전시간 | |
| 전체 취업자 | | | | | | | | |
| 매우만족 | 35 | 35 | 33 | 32 | 35 | 37 | 34 | 32 |
| 그 외 ²⁾ | 64 | 65 | 67 | 66 | 65 | 63 | 66 | 53 |
| 자영자 | | | | | | | | |
| 매우만족 | 43 | 37 | 48 | 49 | 42 | 38 | 44 | 38 |
| 그 외 ²⁾ | 57 | 63 | 52 | 51 | 58 | 62 | 56 | 61 |
| 고용주 | | | | | | | | |
| 매우만족 | . | . | . | . | . | . | 52 | 45 |
| 그 외 ²⁾ | . | . | . | . | . | . | 48 | 55 |
| 피고용인 | | | | | | | | |
| 매우만족 | 35 | 36 | 32 | 29 | 28 | 28 | 32 | 30 |
| 그 외 ²⁾ | 64 | 64 | 68 | 69 | 72 | 72 | 67 | 69 |

2) 만족도는 주된 직업에 대해서임.

2) 어느 정도 만족, 아주 만족하지는 않음, 불만족이 포함됨.

출처: *Second European Survey on Working Condition*, OECD(2000), p.171에서 재인용.

캐나다의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는 자영업을 하는 데에 따른 장단점이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영업을 하면서 유리한 점을 조사한 결과 남성은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점에 47.7%가 응답을 한 반면 여성은 28.1%만이 이 답항에 응답을 하였다. 반면 융통성 있는 시간과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여성 자영업자는 유리한 점으로 들고 있어 자영업자의 선택에 남녀에 다른 요인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불리한 점 역시 성별로 재미있는 차이를 보인다. 남녀 모두 순서는 비슷하나 남성은 '일의 불안정성, 불확실성(22.4%), '수입의 변동, 현금의 유동성' '스트레스'에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은 반면 여성은 '오랜시간 근무, 휴식없음,' '이익의 부족'에 남성보다 높은 비율로 답하고 있다.

이러한 성별 차이는 실제로 자영업의 운영에 있어 남녀가 당면하는 어려움이 다른 종류임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영업 지원정책도 성별 차이를 고려하여 수립해야 할 것이다.

<표 II-32> 자영업의 유리한 점에 대한 성별 분포: 캐나다

단위: %

| | 합계 | 남성 | 여성 |
|------------------|------|------|------|
| 독립성, 자율성 | 41.4 | 47.7 | 28.1 |
| 조절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점 | 10.3 | 11.3 | 8.1 |
| 창조성, 도전성 | 13.7 | 13.9 | 13.3 |
| 융통성 있는 시간 | 13.7 | 12.2 | 17.0 |
|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 6.3 | 3.4 | 12.4 |
| 재택근무 | 4.5 | 1.1 | 11.5 |

출처: Benoit(2002), p.31.

<표 II-33> 자영업자의 불리한 점에 대한 성별 분포: 캐나다

단위: %

| | 합계 | 남성 | 여성 |
|-----------------|------|------|------|
| 불안정, 불확실성 | 21.9 | 22.4 | 20.9 |
| 오랜시간근무, 휴식없음 | 15.0 | 14.2 | 16.6 |
| 수입의 변동, 현금의 유동성 | 12.1 | 12.3 | 11.7 |
| 이익의 부족 | 7.1 | 5.8 | 9.9 |
| 스트레스 | 7.4 | 7.6 | 6.9 |

출처: Benoit(2002), p.32.

3. 소결

우리나라 여성 자영업의 규모의 변화추세를 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자영업 부문은 1960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자영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절대 비율이 경제발전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율에 비해 높다. 둘째 1980년대 이후 자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여성 자영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남성 자영자의 증가가 더욱 가파르다. 셋째 자영업주의 여성비율은 OECD선진국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다. 고용주의 여성비율은 19.3%로 매우 낮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35.6%로 여성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예상대로 자영업의 비율이 경기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여성 자영업주의 인구학적 특성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의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자영업주 내에서 이질성을 보면 고용주는 자영자보다 평균연령이 낮고 고학력이어서 자영자 중 성과가 좋은 집단이 고용주로 진입하기 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영자의 학력은 다른 종사상의 지위와 비교할 때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생산성이 낮은 집단일 확률이 높다. 그러나 학력의 편차가 매우 커서 자영자들이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혼인상의 특징을 보면 다른 집단보다 기혼비율이 높은 가운데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다. 이는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이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가장 대조되는 점이다. 반면 일용근로자 역시 사별의 비율이 자영자 다음으로 높아 이 두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처지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사별을 했거나 혹은 이혼등으로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자영자는 남편이 있는 자영자에 비해 월수입은 조금 높은 반면 가구총수입은 절반을 겨우 넘어 빈곤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 의하면 남녀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전체 표본에서 평균5~6시간 긴 것으로 나타나며 종사상 지위를 비교할 때 남녀집단 모두에서 고용주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비임금근로자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여성의 경우도 특히 고용주의 소득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장시간 근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간당 임금을 대비하여 정확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취업실태조사』에 의하면 월수입은 자영자가 상용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시간당 수입으로 환산할 경우 상용직이 조금 높게 나타나 위의 예상을 뒷받침한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의 근로시간과 소득과의 관계는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여성의 자영업선택 결정요인

| | |
|----------------------|----|
| 1.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의 특성 | 49 |
| 2. 자영업표본의 특성 | 53 |
| 3.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분석 | 56 |
| 4. 여성과 남성의 비교분석 | 65 |
| 5. 소결 | 70 |

1.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의 특성

가. 자료 및 표본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한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제1차조사를 시작하여 제2차조사(1999년)부터 취업자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분류(유형 1~8까지)하고 각 조사시점사이에 발생하거나 소멸한 일자리를 추적하고 있다. 제3차까지(2000년)의 자료를 살펴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색은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반면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점이다. 제4차조사(2001년)에서는, 부가조사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설문이 상당히 보강되었다. 본 연구는 취업선택과 자영업선택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개인들로 표본을 한정하여 4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10,608명 중 8,577명을 분석에 사용한다.

나. 표본의 특성

전체표본 및 성별에 따른 표본의 특성이 <표 III-1>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표본의 연령구조별 분포를 보면 30대와 40대에서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에 25%내외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를 성별로 비교하면 여성은 20대와 40대의 비율이 약간 더 많고 남성은 30대와 40대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표본의 학력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이 3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대학졸업미만이 14.1%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를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 졸업의 비율은 여성에 비해 낮고 고졸이상과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집단의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2.3%로 나타난다.

결혼상태 또는 남편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미혼이

<표 III-1>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

| | 전체 | | 여성 | | 남성 | |
|----------|--------|-----------|--------|-----------|--------|-----------|
| 범주화변수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AGE20 | 2067 | (24.10) | 1164 | (26.42) | 903 | (21.65) |
| AGE30 | 2237 | (26.08) | 1105 | (25.08) | 1132 | (27.14) |
| AGE40 | 2190 | (25.53) | 1086 | (26.65) | 1104 | (26.47) |
| AGE50 | 2083 | (924.29) | 1051 | (23.85) | 1032 | (24.74) |
| FEMALE | 4406 | (51.37) | --- | --- | --- | --- |
| MALE | 4171 | (48.63) | --- | --- | --- | --- |
| HDO | 2677 | (31.21) | 1629 | (36.97) | 1048 | (25.13) |
| HGR | 3207 | (37.39) | 1617 | (36.70) | 1590 | (38.12) |
| CDO | 1206 | (14.06) | 585 | (13.28) | 621 | (14.89) |
| CGR | 1487 | (17.34) | 575 | (13.05) | 912 | (21.87) |
| HEAL | 196 | (2.29) | 106 | (2.41) | 90 | (2.16) |
| NOSP | 2662 | (31.04) | 1364 | (30.96) | 1298 | (31.12) |
| SWAGER | 2331 | (27.18) | 1573 | (35.70) | 758 | (18.17) |
| SSELF | 1546 | (18.02) | 950 | (21.56) | 596 | (14.29) |
| YKID2 | 586 | (6.83) | 295 | (6.70) | 291 | (6.98) |
| YKID6 | 1418 | (16.53) | 720 | (16.34) | 698 | (16.73) |
| YKID12 | 1777 | (20.72) | 902 | (20.47) | 875 | (20.98) |
| YKID18 | 1795 | (20.93) | 940 | (21.33) | 855 | (20.50) |
| KIDCARE4 | 136 | (1.59) | 67 | (1.52) | 69 | (1.65) |
| EXPSELF | 1346 | (15.69) | 426 | (9.67) | 920 | (22.06) |
| EXPPROF | 193 | (2.25) | 86 | (1.95) | 107 | (2.57) |
| PFWORK | 6658 | (77.63) | 3538 | (80.30) | 3120 | (74.80) |
| PMWORK | 509 | (5.93) | 255 | (5.79) | 254 | (6.09) |
| FSELF | 4961 | (57.84) | 2627 | (59.62) | 2334 | (55.96) |
| MSELF | 453 | (5.28) | 226 | (5.13) | 227 | (5.44) |
| PAREduc | 616 | (7.18) | 321 | (7.29) | 295 | (7.07) |
| METRO | 2702 | (31.5) | 1402 | (31.82) | 1300 | (31.17) |
| OWNHOME | 5400 | (62.96) | 2780 | (63.10) | 2620 | (62.81) |
| 연속변수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Sw wage | 62.47 | (146.44) | 96.02 | (183.98) | 27.03 | (76.82) |
| LFIN | 49.13 | (339.53) | 48.32 | (339.99) | 49.98 | (339.09) |
| LEST | 68.01 | (520.43) | 68.65 | (515.33) | 67.48 | (525.82) |
| LTRA | 37.89 | (330.06) | 38.98 | (325.20) | 36.73 | (335.15) |
| LETC | 76.27 | (644.92) | 73.63 | (638.51) | 79.06 | (651.69) |
| LTFI2 | 231.36 | (1019.25) | 229.58 | (1014.14) | 233.25 | (1024.74)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표 Ⅲ-2> 결정요인 변수의 정의

| | |
|----------|--|
| 연령 | 연령 20세~29세 집단이 준거집단 |
| AGE30 | 연령 30세~39세 가변수 |
| AGE40 | 연령 40세~49세 가변수 |
| AGE50 | 연령 50세 이상 가변수 |
| 학력수준 | 고졸 집단이 준거집단 |
| HDO | 고졸미만 가변수 |
| CDO | 고졸초과 대졸미만 가변수 |
| CGR | 대졸이상 가변수 |
| HEAL | 건강상태. 본인의 건강이 '아주 안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의 가변수 |
| NOSP | 배우자 존재여부 (미혼 또는 이혼·사별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가변수 |
| LSWWAGE |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속변수 |
| SWAGER |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의 가변수 |
| SSELF | 배우자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의 가변수 |
| YKID2 | 2세미만 자녀의 존재여부 가변수 |
| YKID6 | 2세~6세미만 자녀의 존재여부 가변수 |
| YKID12 | 6세~12세미만 자녀의 존재여부 가변수 |
| YKID18 | 12세~18세미만 자녀의 존재여부 가변수 |
| KIDCARE4 |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여부의 가변수 |
| EXPSELF | 이전직장이 자영업인 경우의 가변수 |
| EXPPROF | 이전직장이 전문직인 경우의 가변수 |
| PFWORK | 본인이 15세였을때 부의 경제상태가 정규직 또는 자영업에 종사(무급 가족종사자 제외)하였던 경우의 가변수 |
| PMWORK | 본인이 15세였을때 모의 경제상태가 정규직 또는 자영업에 종사(무급 가족종사자 제외)하였던 경우의 가변수 |
| FSELF | 본인이 15세였을때 부가 자영업에 종사한 경우의 가변수 |
| MSELF | 본인이 15세였을때 모가 자영업에 종사한 경우의 가변수 |
| PAREduc | 부모의 학력수준이 대학인 경우의 가변수 |
| LFIN1 | 가구의 금융소득. 연속변수 |
| LEST1 | 가구의 자산소득. 연속변수 |
| LTRA1 | 가구의 이전소득. 연속변수 |
| LETC1 | 가구의 기타소득. 연속변수 |
| LTFI21 | 가구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소득. 연속변수 |
| METRO | 주거지가 대도시인경우의 가변수 |
| OWNHOME |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가변수 |

거나 사별·이혼)는 31% 정도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중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는 27.2%이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18.0%로 나타난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배우자가 취업상태에 있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비율은 18.2%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비율이 35.7%이다. 또한 배우자가 비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비율도 남성에서는 14.3%이고 여성에서는 21.6%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평균 62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성별집단간에 차이가 커서 여성의 경우 남편의 평균 근로소득은 월평균 96만원이고 남성의 경우 부인의 월평균근로소득은 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및 가구의 경제상태 및 거주지역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자. 자녀와 관련된 특성으로 자녀의 연령구조 및 존재여부를 살펴보면 2세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비율은 6.8%, 2세~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비율은 16.5%, 6세~12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비율은 20.7%, 18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비율은 20.9%로 나타난다. 여성표본과 남성표본을 비교해 보면 비율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자녀보육의 보조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1.6%로 나타난다. 가구의 근로소득이외의 총소득은 231만원 정도이며, 이를 성별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의 평균 230만원 정도로 남성의 평균인 233만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31.5%로 약 1/3이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63% 정도이다.

본인 또는 부모의 경험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이전직장에서 자영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5.7%이고, 이를 성별집단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은 22.1%이고 여성은 9.7%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직장에서 전문직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2.3%이고, 이를 성별집단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은 2.6%이고 여성은 2%대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영업경험에 비해 전문직 경험의 경우에는 남녀간의 비율에서의 차이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인이 15세였을 당시의 부모의 취업여부(임금근로자 또는 가족종사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부가 취업하였던 경우는 74.6%이고 모가 취업하였던 경우는 5.9%로 나타난다. 본인이 15세였을 당시에 부가 자영업에 종사한 경우는 57.8%이고 모가 자영업에 종사한 경우는 5.3%로 나타난다. 부모가 대학을 다닌 경우는 7.25%이다.

2. 자영업표본의 특성

표본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성별집단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III-3>에는 남녀별 경제활동상태의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표본 8,577명 중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는 42.1%, 비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경우는 20.7%로 취업한 경우가 62.8%이고 미취업인 경우는 37.2%이다. 성별집단간에 차이가 현저하여 여성의 경우에 미취업이 여성표본의 50.6%인 반면에 남성의 경우는 미취업이 남성표본의 23.1%이다. 전체표본의 비임금근로자인 경우에 피용자가 있는 고용주의 비율은 26.2%, 피용자가 없는 자영자의 비율은 51.9%이고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비임금근로자 중 21.9%이다. 비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의 성별집단간의 자영업형태에 커다란 차이를 보여 남성의 경우에

<표 III-3> 경제활동상태의 특성

| | 전체 | | 여성 | | 남성 | |
|-------|------|---------|------|---------|------|---------|
|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취업 | 5383 | (62.76) | 2176 | (49.39) | | (76.89) |
| 임금근로 | 3611 | (42.10) | 1432 | (32.50) | 2179 | (52.24) |
| 비임금근로 | 1772 | (20.66) | 744 | (16.89) | 1028 | (24.65) |
| 고용주 | 464 | (26.19) | 100 | (13.44) | 364 | (35.41) |
| 자영자 | 920 | (51.92) | 299 | (40.19) | 621 | (60.41) |
| 가족종사자 | 388 | (21.90) | 345 | (46.37) | 43 | (4.18) |
| 미취업 | 3194 | (37.24) | 2230 | (50.61) | 964 | (23.11)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는 고용주의 비율이 35.4%이고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4.2%인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비율은 13.4%이고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46.4%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족종사자로 일하는 비율이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의 약 10배 정도에 해당하고 있다.

성별·연령집단별 경제활동상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에는 성별·연령집단별 경제활동상태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남성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20대에서만 미취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47.8%로 같은 연령집단의 여성 미취업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다른 연령집단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 적게는 29%에서 많게는 44% (30대 집단간)의 차이가 난다. 남성의 자영업종사의 형태를 비교하면 남성의 경우에는 가족종사자의 비율은 20대의 경우에 높아 21.7%이지만 다른 연령집단에서는 각각 5%미만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경우 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고용주와 자영자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4> 성별·연령집단별 경제활동상태의 특성

| | | 미취업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
| | | | | | | 소계 | 고용주 | 자영자 | 가족종사자 |
| | 빈도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빈도 | 백분율 |
| 전체 | 8577 | 3194 | (37.24) | 3611 | (42.10) | 1772 | (20.66) | 464 | (26.19) |
| 여성 | 4406 | 2230 | (50.31) | 1432 | (32.50) | 744 | (16.89) | 299 | (40.19) |
| 20대 | 1164 | 585 | (50.26) | 549 | (47.16) | 30 | (2.58) | 4 | (13.33) |
| 30대 | 1105 | 588 | (53.21) | 329 | (29.77) | 188 | (17.01) | 28 | (14.89) |
| 40대 | 1086 | 442 | (40.70) | 368 | (33.89) | 276 | (25.41) | 48 | (17.39) |
| 50대이상 | 1051 | 615 | (58.52) | 186 | (17.70) | 250 | (23.79) | 20 | (8.00) |
| 남성 | 4171 | 946 | (23.11) | 2179 | (52.24) | 1028 | (24.65) | 364 | (35.34) |
| 20대 | 903 | 432 | (47.84) | 425 | (47.07) | 46 | (5.09) | 11 | (23.91) |
| 30대 | 1132 | 107 | (9.45) | 778 | (68.73) | 247 | (21.82) | 100 | (40.49) |
| 40대 | 1104 | 124 | (11.23) | 578 | (52.36) | 402 | (36.41) | 169 | (42.04) |
| 50대이상 | 1032 | 301 | (29.17) | 398 | (38.57) | 333 | (32.27) | 84 | (25.23) |

주: ()안은 백분율. 백분율의 합은 미취업, 임금근로, 비임금근로를 합하여 100%가 되고 고용주, 자영자, 가족종사자를 합하여 100%가 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집단별 취업의 비율이 일정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미취업의 비율은 5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30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40대는 미취업의 비율이 40.7%로 20대의 50.3%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및 출산 후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비임금근로종사의 비율은 20대에서는 2.6%에 불과하지만 30대에 17%로 증가하고 40대에서는 25.4%로 약 1/4에 해당하는 40대 여성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50대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3.8%로 40대 여성에 비해서는 낮지만 50대 여성의 임금근로종사의 비율인 17.7%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50대이상을 제외하고 각 연령집단에서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임금근로자 중 40%~50%가 가족종사자이다. 50대 이상의 여성 연령집단에서는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자의 비율이 48.8%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또한 가족종사자의 비율보다도 자영자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성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에는 성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남성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미취업비율은 각 교육수준집단에서 남성의 미취업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거의 2배), 여성의 경우 자영업종사자 중 고용주의 비율이 남성집단과 비교할 때 각 연령집단에서 차이가 나서 많게는 28.6%의 차이(대졸미만 집단)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교육수준에 따라 일관성있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여성의 경우 미취업의 비율은 대졸미만집단에서 가장 높아 54.9%이고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낮아 45.2%이다. 또한 미취업비율은 고졸미만집단에서 48.2%, 고졸집단에서 53.4%로 여성의 경우 학력이 낮은 집단과 대졸이상의 고학력집단의 취업비율이 중간학력 집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고졸 또는 대졸미만의 취업비율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집단의 비임금근로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졸이상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고

줄미만, 고졸, 대졸미만 집단 각각에서는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고용주의 비율은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높아져 대졸이상의 집단에서는 고용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42.3%로 자영자 36.5%, 가족종사자 21.2%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III-5> 성별 ·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상태의 특성

| | | 미취업 | 임금근로 | 비임금근로 | | | |
|------|------|--------------|--------------|--------------|-------------|-------------|-------------|
| | | | | 소계 | 고용주 | 자영자 | 가족종사자 |
| | 빈도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빈도 백분율 |
| 전체 | 8577 | 3194 (37.24) | 3611 (42.10) | 1772 (20.66) | 464 (26.19) | 920 (51.92) | 388 (21.90) |
| 여성 | 4406 | 2230 (50.31) | 1432 (32.50) | 744 (16.89) | 100 (13.44) | 299 (40.19) | 345 (46.37) |
| 고졸미만 | 1629 | 785 (48.19) | 422 (25.91) | 422 (25.91) | 40 (9.48) | 185 (43.84) | 197 (46.68) |
| 고졸 | 1617 | 864 (53.43) | 518 (32.03) | 235 (14.53) | 32 (13.62) | 82 (34.89) | 121 (51.49) |
| 대졸미만 | 585 | 321 (54.87) | 229 (39.15) | 35 (5.98) | 6 (17.14) | 13 (37.14) | 16 (45.71) |
| 대졸이상 | 575 | 260 (45.22) | 263 (45.74) | 52 (9.04) | 22 (42.31) | 19 (36.54) | 11 (21.15) |
| 남성 | 4171 | 946 (23.11) | 2179 (52.24) | 1028 (24.65) | 364 (35.41) | 621 (60.41) | 43 (4.18) |
| 고졸미만 | 1048 | 241 (23.00) | 460 (43.89) | 347 (33.11) | 74 (21.33) | 256 (73.78) | 17 (4.90) |
| 고졸 | 1590 | 275 (17.30) | 869 (54.65) | 446 (28.05) | 151 (33.86) | 277 (62.11) | 18 (4.04) |
| 대졸미만 | 621 | 242 (38.97) | 296 (47.67) | 83 (13.37) | 38 (45.78) | 38 (45.78) | 7 (8.43) |
| 대졸이상 | 912 | 206 (22.59) | 554 (60.75) | 152 (16.67) | 101 (66.45) | 50 (32.89) | A |

주: ()안은 백분율. 백분율의 합은 미취업, 임금근로, 비임금근로를 합하여 100%가 되고 고용주, 자영자, 가족종사자를 합하여 100%가 됨.

A: 해당자가 한명이어서 제시하지 않음.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3.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분석

가.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의 취업·미취업 선택과 취업자 중 자영업·임금근로의 선택, 두 가지 의사결정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하여 이변량 프로빗모형(bivariate probit model)을 적용한다. 취업 상태에 있는 표본만을 사용하여 자영업 선택을 추정하는 경우 취업·미취업

선택의 무시에서 발생하는 표본선택편의(selectivity bias)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두 의사결정에서의 오차항의 진정한 상관관계가 영이 아닌 경우에 취업·미취업 선택의 분리추정(separate estimation) 역시 추정치의 비효율성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분리추정량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표본선택편의를 회피하기 위해 부분관찰가능성(partial observability)³⁾을 고려한 이변량 프로빗모형을 적용한다.

이변량 프로빗모형⁴⁾은

$$\begin{aligned} Y^* &= X\alpha + \epsilon & Y &= 1(Y^* > 0) \text{ 또는 } Y=1 \text{ (취업)}, Y=0 \text{ (미취업)} \\ S^* &= Z\beta + \eta & S &= 1(S^* > 0) \text{ 또는 } S=1 \text{ (자영업)}, S=0 \text{ (임금근로)} \end{aligned}$$

로 표현되며, 여기서 Y^* 와 S^* 는 각각 관찰 불가능한 취업·미취업 선택과 자영업·임금근로의 취업유형의 선택의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 와 S 는 각각 관찰가능한 표본의 정보로부터 얻어지는 취업선택과 자영업 선택을 나타내는 종속변수, X 와 Z 는 각각 취업과 자영업을 선택하는 요인들로 구성된 설명변수의 벡터, α 와 β 는 각각의 선택식에서 추정되어질 계수벡터, ϵ 와 η 는 두 가지 선택식의 오차항, $1(\cdot)$ 은 지시함수(indicator function)로 괄호 안의 조건이 성립하면 1의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함수이다. 오차항 ϵ 과 η 은 이변량 정규분포를 따르며 두 오차항의 상관계수는 ρ 로 표현된다.

나. 취업 및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 및 가설의 검증

취업여부와 자영업의 선택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모형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모형은 기본모형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특성,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 결혼상태 및 배우자의 특성을 포함한다. 둘째 모형에서는 자녀의 존재 및 연령구조가 취업여부 또는 자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녀의

3) Meng과 Schmidt(1985) 참조.

4)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는 LIMDEP 7.0을 사용.

연령구조에 따른 존재여부 및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여부를 추가한다. 셋째 모형에서는 부모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본인의 성장기(15세) 당시의 부모의 취업상태를 추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여 자영업선택의 추정식에 포함되는 영향요인에 대해서만 선행연구와 연결하여 설명한다.

1) 취업선택의 결정요인변수

취업여부의 선택식을 추정하기 위한 설명변수는 본인의 특성, 결혼상태 및 배우자의 특성⁵⁾, 가구의 경제적 특성, 자녀존재여부 및 연령구조의 변수,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집단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대별 가변수 (30대, 40대, 50대 이상), 여성 가변수, 교육수준 가변수 (고졸미만, 고졸 초과 대졸 미만, 대졸 이상), 건강상태 가변수 (건강이 아주 안 좋다)를 포함한다. 결혼상태 및 배우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무배우자 가변수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포함한다. 가구의 경제적 상태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제반소득 (금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파악한다. 자녀존재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의 연령구조에 따른 자녀의 존재여부는 가변수 집단 (2세 미만 자녀, 2세~6세 미만 자녀, 6세~12세 미만, 12세~18세 미만)과 자녀보육의 보조자 존재여부 가변수를 포함한다. 부모의 취업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본인이 15세였을 당시의 부 또는 모가 정규직 또는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자 제외)에 종사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변수로 포함한다. 여성은 모의 영향력을 받아 성장기에 모가 취업하였다면 본인의 취업선택에 정의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기 당시의 부모의 학력수준은 학령기의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수준으로 표현되어 자녀의 취업 또는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부모의 학력수준이 대학이상인 가변수를 포함한다. <표 III-2>에 결정요인 변수에 대

5) 기혼이며 자료에 배우자의 특성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2)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변수

자영업선택여부를 추정하기 위한 설명변수는 본인의 특성, 결혼상태 및 배우자의 특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 및 거주지역, 자녀존재여부 및 연령구조의 변수, 부모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집단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대별 가변수 (30대, 40대, 50대이상), 여성 가변수, 교육수준 가변수 (고졸미만, 대졸미만, 대졸이상), 이전직장이 자영업이었는지, 전문직이었는지를 이용하여 자영업경험여부와 전문직경험여부를 포함한다. 거주지역에 따라 임금근로 일자리의 많고 적음에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 거주하는지의 가변수를 포함한다.

결혼상태 및 배우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의 취업형태 가변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포함한다. 가구의 경제적 상태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제반소득의 합 (금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과 주택소유여부의 가변수를 포함한다. 자녀존재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의 연령구조에 따른 자녀의 존재여부는 가변수 집단을 포함하고 자영업선택의 경우를 포함한다.

경험의 영향력은 두 형태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첫째는 본인의 경험, 즉 이전직장에서의 자영업 또는 전문직종사의 경험여부이고 둘째는 성장기 때의 부모의 자영업종사의 경험이다. 김우영(2000)의 연구는 전 직장에서의 자영업 경험과 부의 자영업종사는 자영업 선택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금재호(2000)는 부의 자영업 종사여부와 부친의 고위관리직·전문직여부가 자영업선택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Hout and Rosen(2000)의 연구는 부의 자영업종사는 자녀의 자영업종사에 정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고 Dunn and Holtz-Eakin(2000)의 연구는 부의 자영업종사는 아들의 자영업선택에는 강한 정의 효과가 있는 반면 모의 자영업종사는 아들에게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지만 딸에게는 강한 정의 영향력이 있음을 보고했다. 성지미(2002)의 연구는 이전직장의 자영업여부는 여성의 자영업선택에 정의 효과가 있음을 보였

다. 부모의 자영업 경험은 기술 또는 취향과 같은 경험학습의 형태로 성장기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사업을 물려주는 세대간 자영업이전이라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자녀의 자영업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대학이상 교육수준 가변수도 포함한다. <표 III-2>에 결정요인 변수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3) 세 가지 모형의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 가지 모형은 우도비검정에 의해 비교된다. 이 검정의 절차는 제약되지 않은 모형과 제약된 모형을 비교하는 것이다. 제약되지 않은 모형(unrestricted model)을

$$C = Z\alpha + W\gamma + v,$$

여기서 C는 취업 및 자영업선택, Z는 기본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 α 는 이와 관련된 추정되어질 계수, W는 추가하고자 하는 변수의 벡터, γ 는 이와 관련된 계수, 그리고 v 는 오차항

라 설정하고, 귀무가설(추가하고자 하는 변수들은 모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설)과 대립가설을

$$H_0: \gamma = 0 \quad \text{vs.} \quad H_a: \gamma \neq 0$$

라 하면, 귀무가설 하에서 제약된 모형(restricted model)은

$$S = Z\alpha + v,$$

이 되며, 각 모형에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부터 최적화된 로그우도함수의 값(L_r^* 와 L_u^*)이 구해지며, 우도비검정통계량(likelihood ratio test statistic)은

$$LR = -2 \log \lambda = -2 (L_r^* - L_u^*) \sim \chi^2(r), \text{ } r \text{은 자유도(=제약의 수)}$$

으로 정의되며, 이로부터 귀무가설의 기각 또는 채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 실증분석의 결과

<표 III-6>에는 두 선택식의 세 가지 모형의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두 선택식의 오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ρ)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두 가지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상정한 분리추정이 비효율성과 편의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의 마지막 행은 각 가설검정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연령구조에 따른 존재여부 및 자녀보육의 보조자, 부모와 관련된 변수가 추가되었을 때 일부가 취업선택과 자영업선택에 유의미한 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1) 모형간의 비교분석

가설검정의 결과에 따른 최종모형이 마지막 행에 나타나 있다. 모형의 변화에 따른 각 독립변수의 robustness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결정요인에 대한 설명은 최종모형을 중심으로 한다. 세 가지 모형 모두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개인적인 특성, 가구의 특성 및 배우자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변수는 세 가지 모형 모두에서 일관성 있게 유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취업선택 결정식에서 대학 졸업이상의 가변수의 경우 유의도가 모형1에 비해 모형2와 모형3에서 10%대로 유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고 자영업선택 결정식에서는 여성 가변수의 유의도가 모형1에 10%였으나 모형2와 모형3에서는 유의수준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모형1에 추가하여 모형2와 모형3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자녀의 연령구조 및 존재여부, 자녀보육의 보조자 변수는 취업선택에는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자영업선택 에는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두 모형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III-6> 취업선택과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분석

| | 모형 1 | | 모형 2 | | 모형 3 | |
|------------------------|--------------------|--------------------|--------------------|--------------------|--------------------|--------------------|
| | 취업 | 자영업 | 취업 | 자영업 | 취업 | 자영업 |
| Model1 | | | | | | |
| Constant | 0.790 (0.059) *** | -1.342 (0.136) *** | 0.889 (0.063) *** | -1.342 (0.134) *** | 0.838 (0.069) *** | -1.415 (0.135) *** |
| AGE30 | 0.469 (0.050) *** | 0.777 (0.070) *** | 0.459 (0.054) *** | 0.736 (0.073) *** | 0.450 (0.054) *** | 0.707 (0.074) *** |
| AGE40 | 0.640 (0.055) *** | 0.990 (0.072) *** | 0.518 (0.059) *** | 0.973 (0.075) *** | 0.505 (0.059) *** | 0.936 (0.076) *** |
| AGE50 | 0.039 (0.057) | 0.930 (0.085) *** | -0.017 (0.058) | 0.900 (0.083) *** | -0.033 (0.059) | 0.857 (0.085) *** |
| FEMALE | -0.659 (0.032) *** | -0.127 (0.066) + | -0.657 (0.032) *** | -0.153 (0.055) ** | -0.662 (0.032) *** | -0.160 (0.055) ** |
| HDO | 0.045 (0.040) | 0.030 (0.049) | 0.032 (0.040) | 0.035 (0.048) | 0.034 (0.040) | 0.029 (0.048) |
| CDO | -0.182 (0.048) *** | -0.171 (0.071) * | -0.202 (0.049) *** | -0.178 (0.070) * | -0.204 (0.049) *** | -0.183 (0.071) ** |
| CGR | 0.113 (0.045) * | -0.152 (0.059) ** | 0.081 (0.045) + | -0.144 (0.057) * | 0.081 (0.046) + | -0.155 (0.060) ** |
| HEAL | -0.939 (0.065) *** | | -0.927 (0.063) *** | | -0.927 (0.063) *** | |
| NOSP | -0.256 (0.049) *** | | -0.327 (0.051) *** | | -0.326 (0.051) *** | |
| LSWWAGE1 | -0.088 (0.009) *** | -0.101 (0.018) *** | -0.098 (0.009) *** | -0.105 (0.017) *** | -0.098 (0.009) *** | -0.105 (0.017) *** |
| SWAGER | | -0.069 (0.030) * | | -0.074 (0.029) * | | -0.073 (0.029) * |
| SSELF | | 1.411 (0.097) *** | | 1.371 (0.092) *** | | 1.372 (0.091) *** |
| YKID2 | | | -0.275 (0.075) *** | 0.047 (0.084) | -0.267 (0.075) *** | 0.059 (0.084) |
| YKID6 | | | -0.140 (0.050) ** | 0.051 (0.057) | -0.142 (0.050) ** | 0.045 (0.057) |
| YKID12 | | | -0.040 (0.045) | 0.063 (0.051) | -0.041 (0.045) | 0.058 (0.051) |
| YKID18 | | | 0.180 (0.043) *** | 0.023 (0.049) | 0.178 (0.043) *** | 0.021 (0.049) |
| KIDCARE4 | | | 1.113 (0.136) *** | | 1.113 (0.136) *** | |
| EXPSELF | | 0.324 (0.044) *** | | 0.309 (0.042) *** | | 0.303 (0.042) *** |
| EXPPROF | | 0.093 (0.109) | | 0.087 (0.107) | | 0.085 (0.108) |
| PFWORK | | | | | 0.071 (0.040) + | |
| PMWORK | | | | | 0.133 (0.071) + | |
| FSELF | | | | | | 0.139 (0.044) ** |
| MSELF | | | | | | 0.237 (0.081) ** |
| PAREduc | | | | | | 0.182 (0.080) * |
| LFIN1 | -0.054 (0.009) *** | | -0.055 (0.009) *** | | -0.055 (0.009) *** | |
| LEST1 | -0.050 (0.009) *** | | -0.052 (0.009) *** | | -0.052 (0.009) *** | |
| LTRA1 | -0.070 (0.008) *** | | -0.069 (0.008) *** | | -0.069 (0.008) *** | |
| LETC1 | -0.025 (0.010) * | | -0.027 (0.010) ** | | -0.027 (0.010) ** | |
| LTFI21 | | -0.028 (0.009) ** | | -0.031 (0.008) *** | | -0.031 (0.008) *** |
| METRO | | -0.117 (0.041) ** | | -0.113 (0.040) ** | | -0.111 (0.040) ** |
| OWNHOME | | 0.049 (0.040) | | 0.054 (0.039) | | 0.052 (0.039) |
| -(log-likelihood) | 7566.85 | | 7509.99 | | 7500.224 | |
| RHO (p) | 0.545 (0.158) *** | | 0.664 (0.112) *** | | 0.659 (0.113) *** | |
| LR stat. ~ $\chi^2(r)$ | | | | | | |
| 모형1 vs. 2 | | | 113.72 *** | | | |
| 모형2 vs. 3 | | | | | 19.53 ** | |

주: ()안은 표준오차.

***,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1은 로그를 취한 변수이며 0인 경우에는 로그를 0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2) 결정요인의 실증분석

모형3을 중심으로 취업선택 및 자영업선택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요인을 살펴본다. 취업선택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에서는 20대와 비교하여 30대와 40대는 취업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50대의 경우에는 취업하는 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50대인 경우 이미 은퇴하였거나 가교직의 상태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에 비해 낮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졸업에 비해 고졸초과 대졸미만은 취업의 확률이 더 낮고 대졸이상은 취업의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는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특성, 특히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구의 금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수준으로 살펴보았는데 가구의 금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의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의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효과를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 사별, 이혼)는 취업의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많을수록 취업선택의 확률을 낮게 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연령구조 및 존재여부가 취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2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와 2세~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의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린 자녀의 존재는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의 결과는 특히 남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표본에서 나타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자녀보육의 보조자가 있는 경우 취업의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인의 성장기에 모가 정규직 또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제외)에 종사한 경우와 부가 정규직 또는 자영업종사한 경우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취업선택에 양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선택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에서는 나이가 들면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 20대에 비교하여 30대, 40대, 50대 모두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력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졸업에 비해 고졸초과 대졸미만, 대졸이상은 자영업 선택의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인데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교육수준이 낮고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자영업 선택에서 본인의 이전직장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이전직장의 자영업여부와 전문직종사여부를 각각의 가변수로 포함되었는데 이전직장이 자영업인 개인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영업의 경험은 자영업선택을 더 용이하게 하도록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은 많을수록 자영업 선택을 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주택 소유 여부는 자영업선택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자영업선택을 하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특성이 자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있거나 무직이 아닌 경우에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자영업선택에 부의 효과를 보이고 배우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자영업선택에 정의 효과를 보인다. 이는 자영업인 경우에 같은 자영업 일자리에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자녀의 연령구조 및 존재여부는 자영업선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 부모의 영향력 변수 중에서는 부 또는 모의 자영업종사여부 각각과 부모의 대학학력의 가변수가 자영업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들은 부의 영향을 받고

딸은 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분리한 모형에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여성과 남성의 비교분석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한 표본에서 취업선택과 자영업선택에서 성별집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취업의 확률과 자영업선택의 확률이 모두 더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여성표본과 남성표본을 분리하고 모형 3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추정식을 앞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인 부분가능성을 고려한 이변량프로빗모형을 남성표본과 여성표본 각각에 적용한다. <표 Ⅲ-3>에는 취업선택과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을 여성과 남성으로 분리한 경우의 실증분석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Ⅲ-7>에는 두 선택식 모형의 추정결과가 성별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여성모형에서는 두 선택식의 오차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ρ)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두 가지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상정한 분리추정이 비효율성과 편의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남성모형에서는 두 선택식의 오차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비효율성이나 편의성의 문제를 유발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추정결과를 비교할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같은 방향의 효과를 나타내는 영향요인이 있다. 둘째, 여성과 남성 각각의 추정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그 영향력의 방향이 성별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영향요인이 있다. 셋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로 여성 또는 남성 집단 어느 한 쪽에서만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영향요인이 있다.

개인적인 결정요인 중 연령이 취업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추정식과

<표 III-7> 취업선택과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분석: 여성과 남성의 비교

| | 여성 (N=4,406) | | | | 남성 (N=4,171) | | | |
|----------------------|------------------|-------------|--------|-------------|---------------|-------------|--------|-------------|
| | 취업 | | 자영업 | | 취업 | | 자영업 | |
| Constant | 0.120 | (0.084) | -2.194 | (0.219) *** | 0.996 | (0.107) *** | -0.722 | (0.220) *** |
| AGE30 | 0.097 | (0.075) | 0.876 | (0.138) *** | 0.858 | (0.086) *** | 0.488 | (0.123) *** |
| AGE40 | 0.143 | (0.078) + | 0.913 | (0.138) *** | 0.619 | (0.104) *** | 0.816 | (0.125) *** |
| AGE50 | -0.302 | (0.081) *** | 1.055 | (0.187) *** | -0.033 | (0.097) | 0.723 | (0.111) *** |
| HDO | 0.192 | (0.055) *** | 0.207 | (0.080) ** | -0.091 | (0.063) | -0.098 | (0.067) |
| CDO | -0.187 | (0.068) ** | -0.159 | (0.130) | -0.333 | (0.079) *** | -0.170 | (0.096) + |
| CGR | 0.103 | (0.066) | -0.003 | (0.118) | -0.112 | (0.068) | -0.250 | (0.074) *** |
| HEAL | -0.702 | (0.139) *** | | | -1.295 | (0.148) *** | | |
| NOSP | 0.153 | (0.072) * | | | -0.755 | (0.082) *** | | |
| LSWWAGE ¹ | -0.025 | (0.012) * | 0.013 | (0.026) | -0.049 | (0.015) ** | -0.193 | (0.026) *** |
| SWAGER | | | 0.069 | (0.047) | | | -0.190 | (0.044) *** |
| SSELF | | | 1.074 | (0.171) *** | | | 1.673 | (0.111) *** |
| YKID2 | -0.840 | (0.100) *** | -0.002 | (0.191) | 0.258 | (0.117) * | 0.079 | (0.108) |
| YKID6 | -0.390 | (0.063) *** | -0.034 | (0.114) | 0.078 | (0.086) | 0.072 | (0.076) |
| YKID12 | -0.080 | (0.058) | -0.103 | (0.091) | -0.020 | (0.078) | 0.101 | (0.066) |
| YKID18 | 0.153 | (0.053) ** | 0.040 | (0.076) | 0.132 | (0.078) + | -0.036 | (0.069) |
| KIDCARE4 | 1.666 | (0.170) *** | | | 0.207 | (0.239) | | |
| EXPSELF | | | 0.216 | (0.072) ** | | | 0.413 | (0.056) *** |
| EXPPROF | | | 0.161 | (0.174) | | | 0.059 | (0.152) |
| PFWORK | | | | | -0.009 | (0.056) | | |
| PMWORK | 0.045 | (0.082) | | | | | | |
| FSELF | | | | | | | 0.131 | (0.055) * |
| MSELF | | | 0.222 | (0.115) + | | | | |
| PAREduc | | | 0.167 | (0.135) | | | | |
| LFIN ¹ | -0.060 | (0.013) *** | | | -0.049 | (0.015) ** | | |
| LEST ¹ | -0.050 | (0.012) *** | | | -0.043 | (0.014) ** | | |
| LTRA ¹ | -0.033 | (0.012) ** | | | -0.109 | (0.013) *** | | |
| LETC ¹ | -0.031 | (0.015) * | | | -0.029 | (0.016) + | | |
| LTFI2 ¹ | | | -0.058 | (0.014) *** | | | -0.002 | (0.012) |
| METRO | | | -0.125 | (0.066) + | | | -0.108 | (0.056) + |
| OWNHOME | | | 0.022 | (0.064) | | | 0.077 | (0.055) |
| -(log-likelihood) | 3789.062 | | | | 3402.004 | | | |
| RHO (ρ) | 0.592 (0.192) ** | | | | 0.244 (0.208) | | | |

주: ()안은 표준오차.

***,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01,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1은 로그를 취한 변수이며 0인 경우에는 로그를 0으로 처리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남성추정식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에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 20대 연령집단에 비해 50대 이상인 연령집단은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40대의 경우에는 통계수준 10%에서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20대에 비해 30대와 40대가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령이 자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과 남성 추정식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여 20대와 비교할 때 30대, 40대, 50대 이상의 연령집단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0대에 비해 나이가 들수록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결혼 또는 출산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신규로 진입할 때 임금근로보다는 자영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수준이 취업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성별집단에 따라 비교해 보면 여성은 고졸집단에 비해 고졸미만의 집단은 취업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대졸미만은 취업하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대졸미만의 집단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이 자영업선택에 미치는 효과는 여성과 남성집단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고졸집단과 비교할 때 고졸미만의 학력을 갖는 집단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에는 고졸집단에 비해 대졸미만집단과 대졸이상 집단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집단보다는 고졸집단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가구의 경제적인 특성은 취업선택의 추정식에서 남녀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남녀 모두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 가구의 금융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은 많을수록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가구의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이 자영업선택에 미치는 영

향력은 성별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여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이 많을수록 여성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은 낮아지고 남성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인 거주지역과 주택소유의 여부는 성별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여성과 남성 모두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주택소유의 여부는 자영업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특성과 관련된 영향요인들은 성별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여 상반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배우자 존재여부는 여성의 취업선택에서는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남성의 취업선택에서는 부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배우자 존재여부의 변수는 미혼을 포함하여 결혼하였지만 이혼 또는 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는 미혼상태일 때 취업하는 확률이 높고 사별이나 이혼하여 남편이 없는 경우에 소득을 얻기 위해 취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배우자 존재여부가 정의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에는 미혼보다는 결혼한 경우에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종사상의 지위는 여성·남성 집단에서 유사한 효과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높을수록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낮은 것은 여성과 남성집단에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배우자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여성과 남성집단 각각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배우자가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여성집단에서만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고 남편이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부인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적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이전직장에서의 경험이 자영업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인 이전직장에서 전문직 경험여부와 이전직장에서 자영업경험여부는 자영업경험여부만이 자영업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효과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연령구조 및 존재여부의 가변수도 남녀간에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여성의 경우에는 2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2세~6세 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12세~18세미만의 성장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2세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며 12세~18세미만의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취업선택에서 어린 자녀의 존재여부는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취업선택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결혼 및 자녀를 갖는 가족생활주기의 단계와 관련하여 취업하고 있는 경향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자녀보육의 보조자 변수에서도 입증되는데 자녀보육의 보조가 존재여부는 여성의 취업선택에는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남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 자녀의 연령구조 및 존재여부는 여성과 남성 각각의 자영업선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린 시절의 부모의 취업상태는 본인의 취업선택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지만 부모의 자영업경험은 본인의 자영업선택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은 모가 성장기에 자영업에 종사한 경우에 남성은 부가 자영업에 종사한 경우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같은 성별에서 세대간 종사상지위의 이전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한 추정식에서 나타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취업선택에서 배우자 존재여부와 어린 자녀의 존재는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이다. 둘째는 자영업선택에서 여성과 남성의 교육수준에 다소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여성의 자영업선택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가구의 총소득이 유의한 결정요인인 반면 남성의 자영업선택에서는 부인의 근로소득이 유의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소결

본 장의 목적은 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성별집단에 따라 자영업선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결정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집단의 경우 남성집단과 비교할 때 20대를 제외하고 미취업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30대보다는 40대 여성의 미취업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 및 자영업종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은 20대를 제외하고 남성에 비해 미취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근로자 중 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집단별로 비교하면 미취업의 비율이 대졸이상에서 가장 낮고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은 대졸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특히 고학력자 중심의 20대와 자녀출산후인 40대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와 일관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이변량프로빗모형의 결과는 어린 자녀의 존재여부는 여성의 취업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취업선택에는 배우자의 존재여부가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선택에서 이전직장의 자영업경험여부와 부모의 자영업경험여부가 정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자영업선택에는 경험이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이 출산 및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임금근로에 종사하는 것에 제약이 있어 자영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여성의 가입비율은 남성에 비해 낮고 특히 여성 자영업종사자는 여성임금근로여성과 남성자영업종사자에 비해 가입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자영업종사자가 노령화에 대한 준비를 스스로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 자영업종사자가 남편을 통해 또는 다른 형태로 노령기를 준비하고 있는지와 함께 낮은 가입비율의 원인을 검토하여 정책설정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

자영업의 진입과 지속

| | |
|---------------------------|-----|
| 1. 자영업 진입과 지속연구의 의의 | 75 |
| 2.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표본의 특성 | 77 |
| 3. 자영업의 시작 - 어디에서 오는가? | 84 |
| 4. 자영업 지속기간 | 94 |
| 5. 소결 | 113 |

1. 자영업 진입과 지속연구의 의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연구는 일천한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몇몇 연구자에 의해 자영업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임금근로의 대안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영업과 관련된 연구는 자영업 생성(창업), 성장, 퇴장(폐업 또는 전업)의 세 과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까지의 논의는 대부분 자영업의 생성과정의 한 순간을 포착하거나 일정 시점에서의 이미 결정된 상태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자영업의 생성과정에서 중요한 연구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자영업으로 진입하는가를 동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경제활동상태(미취업과 취업, 미취업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로 나누기도 하고, 취업은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 자영업으로 나눔으로써 다양한 경제활동상태를 구분)를 이용한 전환행렬(transition matrix)을 분석함으로써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연구하기도 한다. 단순한 계산에 근거하여 전환행렬을 추정하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나 고려대상으로 하는 상태의 수효(최소한 자영업, 임금근로, 미취업의 세 상태가 필요)가 늘어날수록 결정요인의 분석은 어려워진다. 경과기간 모형을 이용하여 자영업이 아닌 일정한 상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하게 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예를 들면, 실직자의 미취업기간을 분석하되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선택가능성을 포함하는 복수의 탈출경로(재취업)를 고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이 경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영업으로 탈출하는 확률의 변화 및 이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의 성장과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의 성장과정은 자영업의 성과를 다양한 측면 - 예를 들면 사업체의 규모, 매출

액, 순이익 등 경영지표 등의 성장 등-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자영업을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의 충족여부나 이에 따른 일자리에서의 만족도를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또한 자영업의 지속기간을 본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의 지속이 갖는 의미는 첫째, 경제적 성과 또는 성장과정이 일정한 만족을 가져오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둘째 자영업의 지속이 순간마다의 선택 - 다른 대안, 예를 들면 임금근로나 미취업상태와 자영업 사이의 동태적 선택-의 결과임을 고려할 때 자영업의 지속이 개인에게 더 큰 만족도(높은 효용수준)를 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셋째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자영업의 성장과정을 자영업의 지속기간으로 분석할 때 새로운 각도에서 자영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의 지속기간은 곧바로 자영업의 퇴장과정에 대한 연구와 연결된다. 이는 곧 자영업을 그만두게 되는 동기와 그 이후의 선택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을 그만두는 동기는 자영업을 시작하였던 원인 뿐 아니라 자영업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자영업을 그만둘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자영업의 생성, 성장, 퇴장의 세 과정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전형적인 사실(stylized facts)을 제공함으로써 자영업 연구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의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1998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자료)를 패널화하고 자영업에 진입하게 되는 과정, 자영업의 성장과정으로서의 자영업 지속기간, 자영업을 그만 둔 후 재취업과정과 관련된 총량적인 정보를 인구학적 특성별(성별, 연령대, 교육수준, 혼인상태 등), 자영업의 업종별, 또는 최초 자영업의 종사상지위별(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노동공급자의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노동공급의 수요측면이나 노동시장의 상황(예를 들면 실업률이나 경기변동)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미진한 점이 있으나 이는 각각의 과정에 대한 엄밀한 분석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에서 보충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목적이나 범위를 넘어서

는 부분이며 이후의 연구들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이의 패널화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1998년 6월부터 2002년 10월 사이에 자영업을 경험한 자를 표본으로 한 표본특성을 보여준다. 제3절에서는 자영업의 생성과정으로서 자영업 경험자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영업으로 진입하는가를 보여준다. 제4절은 인구학적 특성별, 자영업 업종별, 자영업 진입시 종사상지위별로 자영업 지속기간과 기간경과에 따른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을 살펴본 후 자영업을 그만 둔 후의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본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패널자료』 표본의 특성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1998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한 자료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98년 1월에 약 3만의 새로운 표본가구를 조사가구로 추출하고(본 조사는 매5년마다 전체 표본을 개편) 조사대상기간(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을 기준으로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 또는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나 외국인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 상주하며 표본가구에 속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그 조사대상(7만 명 내외)으로 매월 실시되고 있다.

조사항목으로는 성, 출생연월일, 혼인상태, 가구주와의 관계, 학력, 전공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1주일의 경제활동상태, 취업여부, 미취업시 1주간(또는 1개월간) 구직여부, 취업시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산업과 직업 등의 확인항목, 그리고 취업시간, 전직유무, 향후 1년간 구직의사 등 세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패널화와 관련된 본 조사의 특징 중 하나는 표본가구가 전출하는 경우에 가구표본에서 제외(따라서 제외된 표본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도 개인표본에서 제외)되는 한편 해당 가호에 전입한 가구를 표본가구로 포함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패널자료가 불균형패널(unbalanced panel)이 되며 각 시점에서의 표본의 규모도 상이하게 된다. 이는 제외된 표본가구와 새로 편입된 표본가구의 인적구성이 상이함에 따른 결과이며 이주가 빈번한 우리의 실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차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기간 중 개인표본의 규모는 1998년 6월에 70,365명, 8월에 71,216명으로 늘어나고 2002년 10월에는 66,389명까지 줄어들고 있다.

나. 자료의 패널화 및 표본의 설정

월별자료를 패널화하는 과정의 성패는 개인식별을 위한 일련번호의 존재에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는 개인식별을 위하여 ‘조사구번호’, ‘구역/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를 포함하고 있으나 통계청은 개인의 비밀보호를 목적으로 ‘가구원번호’를 제외한 세 항목은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연구목적을 위한 자료제공의 경우에 한해 국지적으로 1998년 6월 이후 자료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개인식별을 위한 정보가 부재하는 경우 다소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개인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완전한 식별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 6월부터 2002년 10월까지의 자료를 제공된 개인식별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패널화하였다. 다만 2000년 9월 자료의 경우 개인식별 일련번호의 체계적 변화로 그 이전인 8월 또는 그 이후인 10월의 자료와 연결이 불가능하여 제외하였다. 57개월 자료를 패널화하였을 때 포함되는 개인표본의 규모는 228,351명에 이른다.

본 연구의 관심은 대상기간 중 자영업을 경험한 자이다.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영업에 진입한 적이 있는 표본을 추출하게 되며 복수의 경험(multiple spell)을 갖는 경우는 첫 번째 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1998년 6월부터

2002년 10월 사이에 자영업에 진입한 경험이 있는 표본은 42,00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02년 중 진입한 표본은 약 9%를 차지하고 있다(<표 IV-1> 참조). 본 연구가 자영업의 진입 뿐 아니라 자영업 지속기간과 자영업으로부터의 퇴장과정을 고찰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2년 1월 이전에 자영업에 진입한 표본만을 취하기로 한다. 분석대상이 된 표본의 규모는 38,205명이며 자영업 최초 진입시 주어지는 가중치를 적용하면 19,244천 명에 해당한다. <표 IV-2>와 <표 IV-3>은 시점별로 자영업에 진입한 표본의 규모와 인원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기간(duration)의 측면에서 볼 때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표본은 세 집단으로 나뉜다. 하나는 자영업이 아닌 다른 종사상지위에 있다가 대상기간 중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집단(not left-censored)이며 나머지는 대상기간의 첫 시점인 1998년 6월에 이미 자영업 상태에 있는 경우(『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일자리를 언제부터 시작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와 대상기간 중 표본으로 편입하고 편입할 때 이미 자영업 상태에 있는 경우로 모두 좌측절단된(left-censored) 표본으로 지속기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또한 자영업 퇴장을 고려할 때 역시 대상기간 중 자영업에서 탈출하는 집단과 대상기간의 마지막 시점까지 자영업을 지속하는 집단이나 자영업을 지속하다가 표본에서 제외된 집단으로 구분된다. 후자들은 우측절단된(right-censored) 표본이며 지속기간의 산정이 불가능하다.

<표 IV-3>에서 보듯, 표본 중 68% 정도가 좌측절단된 표본이며 이 중 62%에 해당하는 8,151천 명이 대상기간의 첫 시점인 1996년 6월에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매월 추가로 160~415천 명이 자영업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는 성별 자영업 경험 개시월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 자영업 경험자는 전체 표본 중 44.4%에 해당하는 8,539천 명으로 나타나며 이 중 약 42%가 대상기간의 첫 시점인 1998년 6월에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1> 자영업 진입시점의 월별 분포(1998.6~2002.10)

단위: 개, %

| 연도/ 월 | 전체 | 누적비중 | 기존표본 | 좌측절단 | 좌측절단비중 |
|--------|--------|------|--------|--------|--------|
| 전체 | 42,004 | | 13,403 | 28,601 | 68.1 |
| 1998 6 | 16,878 | 40.2 | 0 | 16,878 | 100.0 |
| 7 | 847 | 42.2 | 504 | 343 | 40.5 |
| 8 | 715 | 43.9 | 482 | 233 | 32.6 |
| 9 | 777 | 45.8 | 581 | 196 | 25.2 |
| 10 | 771 | 47.6 | 509 | 262 | 34.0 |
| 11 | 709 | 49.3 | 395 | 314 | 44.3 |
| 12 | 502 | 50.5 | 318 | 184 | 36.7 |
| 1999 1 | 459 | 51.6 | 303 | 156 | 34.0 |
| 2 | 383 | 52.5 | 200 | 183 | 47.8 |
| 3 | 601 | 53.9 | 337 | 264 | 43.9 |
| 4 | 717 | 55.6 | 409 | 308 | 43.0 |
| 5 | 585 | 57.0 | 301 | 284 | 48.5 |
| 6 | 789 | 58.9 | 452 | 337 | 42.7 |
| 7 | 482 | 60.0 | 272 | 210 | 43.6 |
| 8 | 502 | 61.2 | 269 | 233 | 46.4 |
| 9 | 530 | 62.5 | 312 | 218 | 41.1 |
| 10 | 517 | 63.7 | 261 | 256 | 49.5 |
| 11 | 493 | 64.9 | 257 | 236 | 47.9 |
| 12 | 353 | 65.7 | 167 | 186 | 52.7 |
| 2000 1 | 433 | 66.8 | 222 | 211 | 48.7 |
| 2 | 425 | 67.8 | 208 | 217 | 51.1 |
| 3 | 563 | 69.1 | 256 | 307 | 54.5 |
| 4 | 614 | 70.6 | 315 | 299 | 48.7 |
| 5 | 601 | 72.0 | 289 | 312 | 51.9 |
| 6 | 418 | 73.0 | 209 | 209 | 50.0 |
| 7 | 388 | 73.9 | 196 | 192 | 49.5 |
| 8 | 615 | 75.4 | 407 | 208 | 33.8 |
| 10 | 796 | 77.3 | 364 | 432 | 54.3 |
| 11 | 289 | 78.0 | 116 | 173 | 59.9 |
| 12 | 293 | 78.7 | 146 | 147 | 50.2 |
| 2001 1 | 318 | 79.4 | 175 | 143 | 45.0 |
| 2 | 410 | 80.4 | 271 | 139 | 33.9 |
| 3 | 494 | 81.6 | 264 | 230 | 46.6 |
| 4 | 646 | 83.1 | 270 | 376 | 58.2 |
| 5 | 492 | 84.3 | 248 | 244 | 49.6 |
| 6 | 466 | 85.4 | 229 | 237 | 50.9 |
| 7 | 456 | 86.5 | 247 | 209 | 45.8 |
| 8 | 490 | 87.7 | 310 | 180 | 36.7 |
| 9 | 346 | 88.5 | 179 | 167 | 48.3 |
| 10 | 390 | 89.4 | 191 | 199 | 51.0 |
| 11 | 339 | 90.2 | 150 | 189 | 55.8 |
| 12 | 313 | 91.0 | 120 | 193 | 61.7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2> 자영업 진입시점의 월별 분포

단위: 개, %

| 연도/ 월 | 전체 | 누적비중 | 기존표본 | 좌측절단 | 좌측절단비중 |
|--------|--------|-------|--------|--------|--------|
| 전체 | 38,205 | | 11,711 | 26,494 | 69.3 |
| 1998 6 | 16,878 | 44.2 | 0 | 16,878 | 100.0 |
| 7 | 847 | 46.4 | 504 | 343 | 40.5 |
| 8 | 715 | 48.3 | 482 | 233 | 32.6 |
| 9 | 777 | 50.3 | 581 | 196 | 25.2 |
| 10 | 771 | 52.3 | 509 | 262 | 34.0 |
| 11 | 709 | 54.2 | 395 | 314 | 44.3 |
| 12 | 502 | 55.5 | 318 | 184 | 36.7 |
| 1999 1 | 459 | 56.7 | 303 | 156 | 34.0 |
| 2 | 383 | 57.7 | 200 | 183 | 47.8 |
| 3 | 601 | 59.3 | 337 | 264 | 43.9 |
| 4 | 717 | 61.1 | 409 | 308 | 43.0 |
| 5 | 585 | 62.7 | 301 | 284 | 48.5 |
| 6 | 789 | 64.7 | 452 | 337 | 42.7 |
| 7 | 482 | 66.0 | 272 | 210 | 43.6 |
| 8 | 502 | 67.3 | 269 | 233 | 46.4 |
| 9 | 530 | 68.7 | 312 | 218 | 41.1 |
| 10 | 517 | 70.1 | 261 | 256 | 49.5 |
| 11 | 493 | 71.3 | 257 | 236 | 47.9 |
| 12 | 353 | 72.3 | 167 | 186 | 52.7 |
| 2000 1 | 433 | 73.4 | 222 | 211 | 48.7 |
| 2 | 425 | 74.5 | 208 | 217 | 51.1 |
| 3 | 563 | 76.0 | 256 | 307 | 54.5 |
| 4 | 614 | 77.6 | 315 | 299 | 48.7 |
| 5 | 601 | 79.2 | 289 | 312 | 51.9 |
| 6 | 418 | 80.3 | 209 | 209 | 50.0 |
| 7 | 388 | 81.3 | 196 | 192 | 49.5 |
| 8 | 615 | 82.9 | 407 | 208 | 33.8 |
| 10 | 796 | 85.0 | 364 | 432 | 54.3 |
| 11 | 289 | 85.7 | 116 | 173 | 59.9 |
| 12 | 293 | 86.5 | 146 | 147 | 50.2 |
| 2001 1 | 318 | 87.3 | 175 | 143 | 45.0 |
| 2 | 410 | 88.4 | 271 | 139 | 33.9 |
| 3 | 494 | 89.7 | 264 | 230 | 46.6 |
| 4 | 646 | 91.4 | 270 | 376 | 58.2 |
| 5 | 492 | 92.7 | 248 | 244 | 49.6 |
| 6 | 466 | 93.9 | 229 | 237 | 50.9 |
| 7 | 456 | 95.1 | 247 | 209 | 45.8 |
| 8 | 490 | 96.4 | 310 | 180 | 36.7 |
| 9 | 346 | 97.3 | 179 | 167 | 48.3 |
| 10 | 390 | 98.3 | 191 | 199 | 51.0 |
| 11 | 339 | 99.2 | 150 | 189 | 55.8 |
| 12 | 313 | 100.0 | 120 | 193 | 61.7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3> 자영업 진입시점의 월별 분포(인원)

단위: 천 명, %

| 연도/ 월 | 전체 | 누적비중 | 기존표본 | 좌측절단 | 좌측절단비중 |
|--------|--------|-------|-------|--------|--------|
| 전체 | 19,244 | | 6,081 | 13,164 | 68.4 |
| 1998 6 | 8,141 | 42.3 | 0 | 8,141 | 100.0 |
| 7 | 415 | 44.5 | 263 | 152 | 36.6 |
| 8 | 361 | 46.3 | 239 | 122 | 33.8 |
| 9 | 405 | 48.4 | 296 | 108 | 26.7 |
| 10 | 373 | 50.4 | 239 | 133 | 35.7 |
| 11 | 356 | 52.2 | 198 | 158 | 44.4 |
| 12 | 268 | 53.6 | 174 | 95 | 35.4 |
| 1999 1 | 236 | 54.8 | 156 | 80 | 33.9 |
| 2 | 189 | 55.8 | 101 | 88 | 46.6 |
| 3 | 299 | 57.4 | 169 | 130 | 43.5 |
| 4 | 338 | 59.1 | 187 | 150 | 44.4 |
| 5 | 308 | 60.7 | 153 | 155 | 50.3 |
| 6 | 412 | 62.9 | 245 | 167 | 40.5 |
| 7 | 244 | 64.1 | 136 | 108 | 44.3 |
| 8 | 251 | 65.5 | 129 | 121 | 48.2 |
| 9 | 272 | 66.9 | 160 | 112 | 41.2 |
| 10 | 275 | 68.3 | 144 | 131 | 47.6 |
| 11 | 252 | 69.6 | 136 | 115 | 45.6 |
| 12 | 187 | 70.6 | 89 | 98 | 52.4 |
| 2000 1 | 227 | 71.8 | 120 | 107 | 47.1 |
| 2 | 208 | 72.8 | 101 | 107 | 51.4 |
| 3 | 291 | 74.4 | 132 | 159 | 54.6 |
| 4 | 309 | 76.0 | 154 | 155 | 50.2 |
| 5 | 322 | 77.6 | 148 | 173 | 53.7 |
| 6 | 209 | 78.7 | 100 | 109 | 52.2 |
| 7 | 192 | 79.7 | 101 | 91 | 47.4 |
| 8 | 309 | 81.3 | 209 | 100 | 32.4 |
| 10 | 415 | 83.5 | 187 | 228 | 54.9 |
| 11 | 151 | 84.3 | 58 | 93 | 61.6 |
| 12 | 162 | 85.1 | 84 | 79 | 48.8 |
| 2001 1 | 169 | 86.0 | 97 | 72 | 42.6 |
| 2 | 215 | 87.1 | 153 | 62 | 28.8 |
| 3 | 263 | 88.5 | 137 | 126 | 47.9 |
| 4 | 378 | 90.4 | 157 | 222 | 58.7 |
| 5 | 271 | 91.8 | 136 | 135 | 49.8 |
| 6 | 251 | 93.1 | 125 | 126 | 50.2 |
| 7 | 245 | 94.4 | 124 | 121 | 49.4 |
| 8 | 292 | 95.9 | 192 | 100 | 34.2 |
| 9 | 195 | 96.9 | 99 | 97 | 49.7 |
| 10 | 233 | 98.2 | 108 | 125 | 53.6 |
| 11 | 191 | 99.1 | 81 | 110 | 57.6 |
| 12 | 163 | 100.0 | 65 | 98 | 60.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4> 자영업 진입시점의 월별 분포(성별)

단위: 개, 천 명, %

| 연도/ 월 | 자영업 표본(개) | | | 자영업자(천명) | | |
|--------|-----------|--------|--------|----------|-------|--------|
| | 남성 | 여성 | 여성비중 | 남성 | 여성 | 여성비중 |
| 전체 | 20,543 | 17,662 | (46.2) | 10,705 | 8,539 | (44.4) |
| 1998 6 | 9,054 | 7,824 | (46.4) | 4,539 | 3,603 | (44.3) |
| 7 | 433 | 414 | (48.9) | 216 | 200 | (48.1) |
| 8 | 372 | 343 | (48.0) | 197 | 164 | (45.4) |
| 9 | 408 | 369 | (47.5) | 216 | 188 | (46.5) |
| 10 | 407 | 364 | (47.2) | 199 | 174 | (46.6) |
| 11 | 373 | 336 | (47.4) | 194 | 162 | (45.5) |
| 12 | 261 | 241 | (48.0) | 142 | 127 | (47.2) |
| 1999 1 | 241 | 218 | (47.5) | 126 | 110 | (46.6) |
| 2 | 208 | 175 | (45.7) | 104 | 85 | (45.0) |
| 3 | 326 | 275 | (45.8) | 171 | 128 | (42.8) |
| 4 | 392 | 325 | (45.3) | 198 | 140 | (41.4) |
| 5 | 309 | 276 | (47.2) | 169 | 139 | (45.1) |
| 6 | 446 | 343 | (43.5) | 245 | 167 | (40.5) |
| 7 | 257 | 225 | (46.7) | 132 | 112 | (45.9) |
| 8 | 292 | 210 | (41.8) | 150 | 101 | (40.2) |
| 9 | 276 | 254 | (47.9) | 148 | 124 | (45.6) |
| 10 | 279 | 238 | (46.0) | 150 | 125 | (45.5) |
| 11 | 267 | 226 | (45.8) | 144 | 107 | (42.6) |
| 12 | 190 | 163 | (46.2) | 107 | 80 | (42.8) |
| 2000 1 | 241 | 192 | (44.3) | 135 | 92 | (40.5) |
| 2 | 216 | 209 | (49.2) | 113 | 95 | (45.7) |
| 3 | 299 | 264 | (46.9) | 157 | 133 | (45.9) |
| 4 | 323 | 291 | (47.4) | 171 | 138 | (44.7) |
| 5 | 323 | 278 | (46.3) | 173 | 149 | (46.3) |
| 6 | 219 | 199 | (47.6) | 109 | 100 | (47.8) |
| 7 | 203 | 185 | (47.7) | 107 | 85 | (44.3) |
| 8 | 355 | 260 | (42.3) | 181 | 128 | (41.4) |
| 10 | 421 | 375 | (47.1) | 222 | 193 | (46.5) |
| 11 | 157 | 132 | (45.7) | 86 | 65 | (43.0) |
| 12 | 157 | 136 | (46.4) | 87 | 75 | (46.3) |
| 2001 1 | 180 | 138 | (43.4) | 98 | 71 | (42.0) |
| 2 | 212 | 198 | (48.3) | 110 | 105 | (48.8) |
| 3 | 264 | 230 | (46.6) | 146 | 117 | (44.5) |
| 4 | 371 | 275 | (42.6) | 229 | 149 | (39.4) |
| 5 | 269 | 223 | (45.3) | 150 | 120 | (44.4) |
| 6 | 245 | 221 | (47.4) | 135 | 116 | (46.2) |
| 7 | 250 | 206 | (45.2) | 141 | 104 | (42.4) |
| 8 | 278 | 212 | (43.3) | 164 | 128 | (43.8) |
| 9 | 175 | 171 | (49.4) | 103 | 92 | (47.2) |
| 10 | 234 | 156 | (40.0) | 144 | 89 | (38.2) |
| 11 | 191 | 148 | (43.7) | 105 | 86 | (45.0) |
| 12 | 169 | 144 | (46.0) | 93 | 71 | (43.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3. 자영업의 시작 - 어디에서 오는가?

가. 자영업 경험자의 특성별 분포

본 절에서는 자영업 경험자 표본의 특성을 살펴본 후 자영업으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IV-5>는 자영업 경험자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표본의 절반 이상이 가구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는 가구주의 비중이 82%에 이르며 여성의 경우는 66%가 배우자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는 약 26%로 나타난다. 여성의 비중을 연령대별로 보면 43~49%로 나타나며 특히 60세 이상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미만인 경우에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기혼, 무배우(이혼 또는 사별)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78%나 되어 혼인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로 혼인의 해소 이후에 자영업이 취업의 강한 대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6>은 자영업의 산업별 분포를 성별로 보여 주고 있다. 자영업의 상당 비중이 도매 및 소매업,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특히 가사서비스업(96%의 비중을 차지), 교육서비스업(67%), 숙박 및 음식점업(62%)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이나 운수업에는 상대적으로 거의 진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신업이나 사업서비스업 역시 여성 자영업이 과소한 산업에 속함을 알 수 있다.

자영업으로 진입할 당시의 성별 종사상지위의 분포가 <표 IV-7>에 나타나고 있다. 전체 자영업 경험자 표본 중 56%가 자영자이며 고용주는 약 18%에 이른다. 여성의 비중은 가족종사자의 경우 81%에 이르는 반면 고용주의 경우는 20%에 불과하다. 성별로 볼 때 고용주의 비중은 남성이 26%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8%에 불과하여 여성 자영업자의 사업체규모가 영세함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47%나 되는 점에 주목할 필

<표 IV-5> 자영업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단위: 천명, %

| | 전체 | 남성 | 여성 | 여성의 비중 |
|---------|----------------|----------------|---------------|--------|
| 전체 | 19,244 (100.0) | 10,705 (100.0) | 8,539 (100.0) | 44.4 |
| 가구주와의관계 | | | | |
| 가구주 | 10,431 (54.2) | 8,785 (82.1) | 1,646 (19.3) | 15.8 |
| 배우자 | 5,843 (30.4) | 210 (2.0) | 5,633 (66.0) | 96.4 |
| 기타 | 2,971 (15.4) | 1,710 (16.0) | 1,261 (14.8) | 42.4 |
| 연령대 | | | | |
| 15~29세 | 3,040 (15.8) | 1,704 (15.9) | 1,336 (15.6) | 43.9 |
| 30~39세 | 5,778 (30.0) | 3,299 (30.8) | 2,479 (29.0) | 42.9 |
| 40~49세 | 5,053 (26.3) | 2,804 (26.2) | 2,248 (26.3) | 44.5 |
| 50~59세 | 2,961 (15.4) | 1,673 (15.6) | 1,288 (15.1) | 43.5 |
| 60세 이상 | 2,413 (12.5) | 1,225 (11.4) | 1,187 (13.9) | 49.2 |
| 교육수준 | | | | |
| 고졸미만 | 7,220 (37.5) | 3,134 (29.3) | 4,085 (47.8) | 56.6 |
| 고졸 | 8,709 (45.3) | 5,301 (49.5) | 3,408 (39.9) | 39.1 |
| 전문대졸 | 865 (4.5) | 544 (5.1) | 321 (3.8) | 37.1 |
| 대졸이상 | 2,451 (12.7) | 1,726 (16.1) | 725 (8.5) | 29.6 |
| 혼인상태 | | | | |
| 미혼 | 2,612 (13.6) | 1,768 (16.5) | 844 (9.9) | 32.3 |
| 기혼유배우 | 15,120 (78.6) | 8,609 (80.4) | 6,511 (76.3) | 43.1 |
| 기혼무배우 | 1,512 (7.9) | 328 (3.1) | 1,184 (13.9) | 78.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6> 자영업의 산업별 분포

단위: 천명, %

| | 전체 | 남성 | 여성 | 여성의 비중 |
|------------|----------------|----------------|---------------|--------|
| 전산업 | 19,244 (100.0) | 10,705 (100.0) | 8,539 (100.0) | 44.4 |
| 농림어업 | 3,998 (20.8) | 2,100 (19.6) | 1,898 (22.2) | 47.5 |
| 제조업 | 1,679 (8.7) | 1,056 (9.9) | 623 (7.3) | 37.1 |
| 건설업 | 1,022 (5.3) | 937 (8.8) | 85 (1.0) | 8.3 |
| 도매및소매업 | 5,513 (28.6) | 3,103 (29.0) | 2,410 (28.2) | 43.7 |
| 숙박및음식점업 | 2,796 (14.5) | 1,055 (9.9) | 1,742 (20.4) | 62.3 |
| 운수업 | 812 (4.2) | 766 (7.2) | 46 (0.5) | 5.7 |
| 통신업 | 24 (0.1) | 19 (0.2) | 5 (0.1) | 20.8 |
| 금융및보험업 | 192 (1.0) | 101 (0.9) | 91 (1.1) | 47.4 |
| 부동산및임대업 | 356 (1.8) | 237 (2.2) | 119 (1.4) | 33.4 |
| 사업서비스업 | 476 (2.5) | 376 (3.5) | 100 (1.2) | 21.0 |
| 교육서비스업 | 892 (4.6) | 294 (2.7) | 598 (7.0) | 67.0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118 (0.6) | 73 (0.7) | 44 (0.5) | 37.3 |
| 오락문화운동관련 | 76 (0.4) | 50 (0.5) | 26 (0.3) | 34.2 |
|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 1,112 (5.8) | 524 (4.9) | 588 (6.9) | 52.9 |
| 가사서비스업 | 173 (0.9) | 7 (0.1) | 166 (1.9) | 96.0 |
| 기타 | 6 (0.0) | 6 (0.1) | 0 (0.0) | 0.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7> 자영업 진입시 종사상지위

단위: 개, 천 명 %

| | 표본수 | | | 인원 | | |
|-------|-----------------|------------------|------------------|-----------------|------------------|-----------------|
| | 고용주 | 자영자 | 가족종사 | 고용주 | 자영자 | 가족종사 |
| 전체 | 6,236 (16.3) | 21,348 (55.9) | 10,621 (27.8) | 3,503 (18.2) | 10,775 (56.0) | 4,967 (25.8) |
| 남성 | 4,918 (23.9) | 13,586 (66.1) | 2,039 (9.9) | 2,821 (26.4) | 6,919 (64.6) | 964 (9.0) |
| 여성 | 1,318 (7.5) | 7,762 (43.9) | 8,582 (48.6) | 682 (8.0) | 3,855 (45.1) | 4,002 (46.9) |
| 여성 비중 | 21.1 | 36.4 | 80.8 | 19.5 | 35.8 | 80.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요가 있다. 이는 자영업의 경우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경우 실질적인 역할과는 무관하게 배우자인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V-8>은 자영업으로 진입할 당시의 종사상지위의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별로 보면, 가구주의 경우 고용주나 자영자가 대부분(각각 28%와 71%)인 반면 배우자의 경우는 60% 가까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영자의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고용주의 비중(15~29세 연령층 제외)은 낮아진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영자의 비중은 줄어들고 고용주의 비중이 높아진다. 고용주의 비중은 대졸이상이 43%에 이르는 반면 고졸미만은 7%에 불과하며 자영자의 비중은 고졸미만은 60%에 이르는 반면 대졸이상은 47% 정도에 불과하다.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 역시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락한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미혼과 기혼유배우의 종사상지위별 분포(자영자의 비중은 거의 동일하며 고용주의 비중은 각각 12%와 20%로 약 8%포인트의 차이만 보임)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는 자영자의 비중(74%)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자영업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초기 종사상지위

단위: 개, %

| | 전체 | 인원 | | | 비중 | | |
|---------|--------|-------|--------|-------|------|------|------|
| |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종사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종사 |
| 전체 | 19,244 | 3,503 | 10,775 | 4,967 | 18.2 | 56.0 | 25.8 |
| 가구주와의관계 | | | | | | | |
| 가구주 | 10,431 | 2,908 | 7,431 | 92 | 27.9 | 71.2 | 0.9 |
| 배우자 | 5,843 | 380 | 1,973 | 3,489 | 6.5 | 33.8 | 59.7 |
| 기타 | 2,971 | 216 | 1,370 | 1,385 | 7.3 | 46.1 | 46.6 |
| 연령대 | | | | | | | |
| 15~29세 | 3,040 | 315 | 1,551 | 1,174 | 10.4 | 51.0 | 38.6 |
| 30~39세 | 5,778 | 1,382 | 3,067 | 1,329 | 23.9 | 53.1 | 23.0 |
| 40~49세 | 5,053 | 1,192 | 2,778 | 1,082 | 23.6 | 55.0 | 21.4 |
| 50~59세 | 2,961 | 468 | 1,785 | 708 | 15.8 | 60.3 | 23.9 |
| 60세 이상 | 2,413 | 146 | 1,594 | 673 | 6.1 | 66.1 | 27.9 |
| 교육수준 | | | | | | | |
| 고졸미만 | 7,220 | 531 | 4,347 | 2,341 | 7.4 | 60.2 | 32.4 |
| 고졸 | 8,709 | 1,702 | 4,816 | 2,191 | 19.5 | 55.3 | 25.2 |
| 전문대졸 | 865 | 229 | 452 | 184 | 26.5 | 52.3 | 21.3 |
| 대졸이상 | 2,451 | 1,042 | 1,159 | 250 | 42.5 | 47.3 | 10.2 |
| 혼인상태 | | | | | | | |
| 미혼 | 2,612 | 314 | 1,417 | 880 | 12.0 | 54.2 | 33.7 |
| 기혼유배우 | 15,120 | 2,983 | 8,242 | 3,895 | 19.7 | 54.5 | 25.8 |
| 기혼무배우 | 1,512 | 206 | 1,115 | 191 | 13.6 | 73.7 | 12.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9>는 자영업으로 진입할 당시의 종사상지위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이미 여성의 경우 고용주의 비중이 낮고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고용주의 비중이 17%를 상회하고 있으며 자영자의 비중은 82%에 이르고 있다. 가족종사자의 비중은 1% 미만일 뿐이다. 여성 배우자의 경우에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여성의 가족종사자 비중은 미혼일 때 29%에 불과한 반면 기혼 유배우인 경우 55%까지 높아지며 기혼 무배우일 경우에는 다시 14%로 하락한다. 이는 여성 배우자의 경우 부부가 합

깨 영위하는 자영업의 경우 가구주인 남성은 자영자(또는 고용주), 배우자인 여성은 가족종사자로 분류되는 데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5~29세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주의 비중은 떨어지고 자영자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주의 비중은 높아지며 자영자의 비중 역시 높아진다.

<표 IV-9> 자영업 경험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초기 종사상지위(성별)
단위: %

| | 남성 | | | 여성 | | |
|---------|------|------|------|------|------|------|
|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종사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종사 |
| 전체 | 26.4 | 64.6 | 9.0 | 8.0 | 45.1 | 46.9 |
| 가구주와의관계 | | | | | | |
| 가구주 | 29.9 | 69.2 | 0.9 | 17.1 | 82.0 | 0.9 |
| 배우자 | 14.8 | 43.3 | 41.9 | 6.2 | 33.4 | 60.4 |
| 기타 | 9.7 | 43.7 | 46.6 | 4.0 | 49.4 | 46.6 |
| 연령대 | | | | | | |
| 15~29세 | 14.4 | 51.5 | 34.0 | 5.2 | 50.4 | 44.5 |
| 30~39세 | 34.0 | 60.8 | 5.2 | 10.5 | 42.8 | 46.8 |
| 40~49세 | 33.4 | 64.0 | 2.6 | 11.4 | 43.8 | 44.9 |
| 50~59세 | 23.1 | 73.8 | 3.1 | 6.3 | 42.8 | 50.9 |
| 60세 이상 | 10.6 | 82.1 | 7.3 | 1.3 | 49.5 | 49.2 |
| 교육수준 | | | | | | |
| 고졸미만 | 11.7 | 81.0 | 7.3 | 4.0 | 44.3 | 51.7 |
| 고졸 | 25.9 | 62.9 | 11.2 | 9.7 | 43.4 | 46.9 |
| 전문대졸 | 34.7 | 53.3 | 11.9 | 12.5 | 50.2 | 37.4 |
| 대졸이상 | 51.9 | 43.7 | 4.5 | 20.3 | 55.9 | 23.9 |
| 혼인상태 | | | | | | |
| 미혼 | 13.9 | 50.2 | 35.9 | 8.2 | 62.8 | 29.0 |
| 기혼유배우 | 29.1 | 67.4 | 3.5 | 7.3 | 37.5 | 55.2 |
| 기혼무배우 | 20.7 | 69.8 | 9.5 | 11.7 | 74.8 | 13.5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나. 자영업으로의 진입과정

자영업 진입 전에 어떤 경로를 거치는가? 임금근로자가 실직 또는 이직한 후 자영업을 시작하는가, 아니면 일정기간 일자리를 탐색하는 실업상태에 있

다가 일자리탐색을 포기하고 임금근로의 대안으로서 자영업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인가? <표 IV-10>~<표 IV-12>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다.

표들은 일정 시점에 자영업에 진입한 자들이 이전 석달 동안의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괄호 안의 숫자는 이전 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좌측절단된 경우를 제외한 전체 표본 중 해당되는 경제활동상태의 비중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면, 자영업에 진입하는 자의 약 42%는 임금근로로부터 바로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실업상태로부터의 이행한 경우는 15%에 불과하며 비경제활동상태로부터 이행하는 경우는 44%에 이르고 있다. 임금근로의 종사상지위를 세분하면 임시직으로부터의 이행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상용직으로부터의 이행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자영업에 진입하는 자의 약 60%가 비경제활동상태로부터 이행하여 남성의 28%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실업상태로부터 이행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8%에 불과하며 임금근로로부터 이행하는 비중이 남성의 경우 50%를 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약 33%에 불과한 사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표는 직전 달에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던 경우 두 달 전, 석 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자영업 진입 직전 석 달 동안 실업상태에 있다가 진입한 남성 자영업자는 261천 명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46천 명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 진입 직전 석 달 동안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다가 진입한 남성 자영업자는 511천 명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1,263천 명에 이르고 있다.

<표 IV-13>은 자영업 진입 직전 3개월 간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자영업 진입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최초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인표본으로 진입할 때 자영업 상태에 있는 비중은 68%에 이르고 있다. 남성의 경우는 71%로 여성의 65%보다 다소 높은 상태이다. 이전 기간이 존재하는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진입과정을 분석하면, 임금근로로부터 (중간에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를 경험한 경우는 자영업 창업준비로 이에 포함하여) 자영업으로 진입한 비

<표 IV-10> 자영업 진입 직전 3개월 간의 경제활동상태(전체)

단위: 천 명, %

| 최초 | 1월전 | | 2월전 | | 3월전 | |
|--------|-----|--------------|-----|--------------|-----|--------------|
| 19,244 | 상용직 | 693 (11.4) | | | | |
| | 임시직 | 1,165 (19.2) | | | | |
| | 일용직 | 699 (11.5) | | | | |
| | 실업 | 881 (14.5) | | | | |
| | 비경활 | 2,643 (43.5) | 상용직 | 44 (5.8) | 상용직 | 23 (5.2) |
| | | | 임시직 | 50 (6.6) | 임시직 | 38 (8.6) |
| | | | 일용직 | 51 (6.7) | 일용직 | 19 (4.3) |
| | | | 실업 | 501 (65.8) | 실업 | 311 (70.2) |
| | | | 비경활 | 115 (15.1) | 비경활 | 51 (11.5) |
| | | | | | 없음 | 58 |
| | | | | | 상용직 | 4 (4.1) |
| | | | | | 임시직 | 4 (4.1) |
| | | | | | 일용직 | 5 (5.1) |
| | | | | | 실업 | 12 (12.2) |
| | | | | | 비경활 | 73 (74.5) |
| | | | | | 없음 | 17 |
| | | | 없음 | 120 | | |
| | | | 상용직 | 27 (1.2) | | |
| | | | 임시직 | 57 (2.5) | | |
| | | | 일용직 | 61 (2.6) | | |
| | | | 실업 | 57 (2.5) | | |
| | | | 비경활 | 2,114 (91.3) | 상용직 | 1 (2.1) |
| | | | | | 임시직 | 3 |
| | | | | | 일용직 | 4 |
| | | | | | 실업 | 31 |
| | | | | | 비경활 | 10 |
| | | | | | 없음 | 9 |
| | | | | | 상용직 | 14 (0.7) |
| | | | | | 임시직 | 37 (2.0) |
| | | | | | 일용직 | 35 (1.8) |
| | | | | | 실업 | 31 (1.6) |
| | | | | | 비경활 | 1,774 (93.8) |
| | | | | | 없음 | 222 |
| | 없음 | 13,164 | 없음 | 327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11> 자영업 진입 직전 3개월 간의 경제활동상태(남성)

단위: 천 명, %

| 최초 | 1월전 | | 2월전 | | 3월전 | |
|--------|-----|------------|-----|------------|-----|------------|
| 10,706 | 상용직 | 590 (19.0) | | | | |
| | 임시직 | 620 (20.0) | | | | |
| | 일용직 | 387 (12.5) | | | | |
| | 실업 | 645 (20.8) | | | | |
| | 비경활 | 860 (27.7) | 상용직 | 40 (7.3) | 상용직 | 23 (6.6) |
| | | | 임시직 | 29 (5.3) | 임시직 | 28 (8.1) |
| | | | 일용직 | 33 (6.0) | 일용직 | 13 (3.8) |
| | | | 실업 | 394 (71.5) | 실업 | 261 (75.4) |
| | | | 비경활 | 55 (10.0) | 비경활 | 21 (6.1) |
| | | | | | 없음 | 48 |
| | | | | | 상용직 | 4 (8.7) |
| | | | | | 임시직 | 2 (4.3) |
| | | | | | 일용직 | 2 (4.3) |
| | | | | | 실업 | 9 (19.6) |
| | | | | | 비경활 | 29 (63.0) |
| | | | | | 없음 | 9 |
| | | | 없음 | 94 | | |
| | | | 상용직 | 18 (2.4) | | |
| | | | 임시직 | 23 (3.1) | | |
| | | | 일용직 | 27 (3.6) | | |
| | | | 실업 | 35 (4.7) | | |
| | | | 비경활 | 639 (86.1) | 상용직 | 0 (0.0) |
| | | | | | 임시직 | 1 |
| | | | | | 일용직 | 4 |
| | | | | | 실업 | 20 |
| | | | | | 비경활 | 6 |
| | | | | | 없음 | 5 |
| | | | | | 상용직 | 12 (2.1) |
| | | | | | 임시직 | 12 (2.1) |
| | | | | | 일용직 | 14 (2.5) |
| | | | | | 실업 | 18 (3.2) |
| | | | | | 비경활 | 511 (90.1) |
| | | | | | 없음 | 72 |
| | 없음 | 7,604 | 없음 | 118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12> 자영업 진입 직전 3개월 간의 경제활동상태(여성)

단위: 천 명, %

| 최초 | 1월전 | | 2월전 | | 3월전 | |
|-------|-----|--------------|-----|--------------|-----|--------------|
| 8,541 | 상용직 | 103 (3.5) | | | | |
| | 임시직 | 546 (18.3) | | | | |
| | 일용직 | 312 (10.5) | | | | |
| | 실업 | 236 (7.9) | | | | |
| | 비경활 | 1,784 (59.8) | 상용직 | 4 (1.9) | 상용직 | 1 (1.0) |
| | | | 임시직 | 21 (10.0) | 임시직 | 11 (11.3) |
| | | | 일용직 | 18 (8.6) | 일용직 | 6 (6.2) |
| | | | 실업 | 107 (51.0) | 실업 | 49 (50.5) |
| | | | 비경활 | 60 (28.6) | 비경활 | 30 (30.9) |
| | | | | | 없음 | 10 |
| | | | | | 상용직 | 0 (0.0) |
| | | | | | 임시직 | 2 (3.8) |
| | | | | | 일용직 | 3 (5.7) |
| | | | | | 실업 | 3 (5.7) |
| | | | | | 비경활 | 45 (84.9) |
| | | | | | 없음 | 7 |
| | | | 없음 | 26 | | |
| | | | 상용직 | 9 (0.6) | | |
| | | | 임시직 | 34 (2.2) | | |
| | | | 일용직 | 34 (2.2) | | |
| | | | 실업 | 23 (1.5) | 상용직 | 0 (0.0) |
| | | | 비경활 | 1,474 (93.6) | 임시직 | 2 (10.5) |
| | | | | | 일용직 | 0 (0.0) |
| | | | | | 실업 | 11 (57.9) |
| | | | | | 비경활 | 4 (21.1) |
| | | | | | 없음 | 4 |
| | | | | | 상용직 | 2 (0.2) |
| | | | | | 임시직 | 25 (1.9) |
| | | | | | 일용직 | 21 (1.6) |
| | | | | | 실업 | 13 (1.0) |
| | | | | | 비경활 | 1,263 (95.4) |
| | | | | | 없음 | 150 |
| | 없음 | 5,560 | 없음 | 209 | |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13> 자영업자는 어디에서 왔는가?

단위: 천 명, %

| | 전체 | 남성 | 여성 |
|----------------|---------------|---------------|---------------|
| 자영업 경험자 | 19,244 | 10,705 | 8,539 |
| 최초 진입시 자영업 | 13,164 (68.4) | 7,604 (71.0) | 5,560 (65.1) |
| 이전 기간이 존재 | 6,076 (100.0) | 3,099 (100.0) | 2,978 (100.0) |
| 어디서 왔나? | | | |
| 임금근로로부터 | 3,030 (49.8) | 1,878 (60.5) | 1,154 (38.7) |
| 상용직으로부터 | 802 (13.2) | 683 (22.0) | 119 (4.0) |
| 임시직으로부터 | 1,354 (22.3) | 715 (23.0) | 641 (21.5) |
| 일용직으로부터 | 874 (14.4) | 480 (15.5) | 394 (13.2) |
| 실업만 유지한 후 | 489 (8.0) | 403 (13.0) | 85 (2.9) |
| 비경험만 유지한 후 | 2,323 (38.2) | 701 (22.6) | 1,622 (54.4) |
| 실업과 비경험을 반복한 후 | 234 (3.8) | 117 (3.8) | 117 (3.9)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중은 약 50%에 이르고 있다. 남성의 경우 60%를 상회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40%를 밑돌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상태를 자의적으로든(이직) 타의적으로든(실직) 벗어난 자들이 자영업상태로 이행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영업이 임금근로의 대안으로 또는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과정에서 가교일자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용직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비중은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직에서 이행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상용직에서 자영업으로 이행한 비중은 4%에 불과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22%에 이르고 있다.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부터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흔히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과도 부합되는 결과이며, 특히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병행하는 여성의 경우, 자영업이 임금근로(특히 임시일용직 또는 비정규직)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상태를 3개월 이상(3개월 이전까지만 관찰하였으므로) 유지한 후 자영업으로 진입한 경우는 약 8%로 나타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는 13%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일자리

탐색비용이 높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실업상태에 있을 확률이 낮거나 실업상태를 지속하는 기간이 짧다는 일반적인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비경제활동상태에만 3개월 이상 존재하다가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비중이 남성의 경우 23%에 이르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54%나 된다는 사실로도 지원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일자리탐색비용을 소비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자영업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실업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를 오고간 후 자영업으로 진입한 경우는 남녀 공히 4%를 하회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자영업 지속기간

가. 자영업 지속기간

일단 자영업을 시작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자영업을 지속하는가? 이는 자영업의 성장과정, 즉 자영업의 성과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질문일 것이다. 정확한 일대일 대응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자영업의 성과가 좋을수록 자영업을 지속할 확률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자영업을 지속한다는 의미는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 이외에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양한 측면에서 자영업 지속기간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하였듯, 분석대상인 표본의 상당수가 좌측절단 또는 우측절단된 표본이므로 자영업 지속기간을 엄밀히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엄밀성은 다소간 유보하고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데 그치기로 한다. <표 IV-14>는 자영업 지속기간과 이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 지속기간은 평균 16.5개월로 나타나며 자영업의 종사상지위가 고용주나 자영자인 경우 17~18개월로 다소 긴 반면 가족종사자인 경우는 1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1년 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기간

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비중은 전체 자영업 경험자의 16%에 불과하고 40% 이상이 6개월 이하의 지속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종사자의 경우 거의 절반 가까이 6개월 이하의 짧은 지속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18개월로 여성의 15개월보다 약 3개월 긴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가족종사자인 경우 지속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며 약 68%가 6개월 이하의 단기 지속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이 다른 경제활동상태(특히 임금근로)로 이행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종사상지위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비중은 가족종사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자영자에게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5>는 지속기간의 완료형태별로 지속기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영업이 완료된(completed spell) 경우(전체의 약 20%를 차지) 평균 지속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반면 양측절단된 표본(전체 표본의 약 38%를 차지)의 평균 지속기간은 26개월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자영업의 지속기간에서 성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좌측절단된 경우는 평균 지속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한 반면 우측절단된 경우는 16개월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 두 집단 만을 놓고 볼 때 (가중치를 고려한) 확률표본이므로 무작위로 표본에 진입하거나 표본에서 제외될 경우의 확률은 유사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가옥을 기준으로 나간 자(전출자)와 새로 들어온 자(전입자)의 특성이 유사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므로 양쪽의 자영업 지속기간은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표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지속기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표본추출과 표본대체에서의 무작위성이 깨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자영업에 진입하거나 자영업을 탈출한 시점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좌측절단된 표본(또는 분석대상기간의 첫 시점인 1998년 6월에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던 표본)이 우측절단

<표 IV-14>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 초기 종사상지위별

단위: 천 명, %

| 초기 종사상지위 | 전체 | 1~6 개월 | 7~12 개월 | 13~24 개월 | 25~36 개월 | 37개월 이상 | 평균 |
|-------------|--------|-----------|------------|-------------|-------------|------------|------|
| 전체 | 19,244 | 40.2 | 17.1 | 18.1 | 8.5 | 16.0 | 16.5 |
| 고용주 | 3,503 | 32.3 | 17.8 | 23.0 | 9.6 | 17.3 | 18.1 |
| 자영업 | 10,775 | 38.9 | 17.4 | 18.2 | 8.7 | 16.8 | 17.0 |
| 가족종사자 | 4,967 | 48.6 | 16.1 | 14.4 | 7.4 | 13.5 | 14.4 |
| 남성 | 10,705 | 37.0 | 16.9 | 18.8 | 8.9 | 18.4 | 17.8 |
| 고용주 | 2,821 | 31.4 | 17.6 | 22.7 | 9.7 | 18.7 | 18.6 |
| 자영업 | 6,919 | 35.0 | 17.1 | 18.5 | 9.3 | 20.1 | 18.8 |
| 가족종사자 | 964 | 68.0 | 13.4 | 9.9 | 3.5 | 5.3 | 8.4 |
| 여성 | 8,539 | 44.2 | 17.4 | 17.2 | 8.1 | 13.1 | 14.9 |
| 고용주 | 682 | 36.1 | 18.3 | 24.3 | 9.5 | 11.7 | 15.7 |
| 자영업 | 3,855 | 46.0 | 17.9 | 17.7 | 7.5 | 10.8 | 13.7 |
| 가족종사자 | 4,002 | 43.9 | 16.7 | 15.5 | 8.3 | 15.5 | 15.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15>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 상태의 완료형태별

단위: 천 명, %, 월

| 상태의 완료형태 | 전체 | 1~6 개월 | 7~12 개월 | 13~24 개월 | 25~36 개월 | 37개월 이상 | 평균 |
|-------------|--------|-----------|------------|-------------|-------------|------------|------|
| 전체 | 19,244 | 40.2 | 17.1 | 18.1 | 8.5 | 16.0 | 16.5 |
| 완료 | 3,787 | 69.8 | 17.0 | 9.6 | 2.7 | 0.9 | 6.1 |
| 좌측절단 | 5,808 | 48.9 | 21.2 | 16.3 | 8.2 | 5.4 | 11.3 |
| 우측절단 | 2,294 | 32.9 | 17.0 | 27.6 | 12.2 | 10.2 | 15.6 |
| 양측절단 | 7,356 | 20.3 | 13.9 | 21.0 | 10.6 | 34.1 | 26.3 |
| 남성 | 10,705 | 37.0 | 16.9 | 18.8 | 8.9 | 18.4 | 17.8 |
| 완료 | 1,734 | 69.1 | 17.0 | 10.0 | 2.9 | 0.9 | 6.3 |
| 좌측절단 | 2,923 | 47.0 | 21.9 | 16.7 | 8.9 | 5.5 | 11.6 |
| 우측절단 | 1,367 | 31.7 | 16.7 | 27.6 | 12.8 | 11.3 | 16.1 |
| 양측절단 | 4,681 | 20.4 | 13.7 | 20.9 | 10.0 | 35.0 | 26.5 |
| 여성 | 8,539 | 44.2 | 17.4 | 17.2 | 8.1 | 13.1 | 14.9 |
| 완료 | 2,053 | 70.4 | 17.0 | 9.2 | 2.6 | 0.9 | 6.0 |
| 좌측절단 | 2,884 | 50.9 | 20.5 | 15.9 | 7.6 | 5.2 | 11.0 |
| 우측절단 | 927 | 34.7 | 17.6 | 27.7 | 11.2 | 8.6 | 14.7 |
| 양측절단 | 2,675 | 20.3 | 14.3 | 21.2 | 11.7 | 32.6 | 25.9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된 표본보다 경제위기의 초창기에 놓일 확률이 크며 경제위기의 영향은 임금 근로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좌측절단된 표본의 자영업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기변동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표 IV-16>~<표 IV-19>는 성별 인구학적 특성별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 및 이의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 가구원일 경우 가구주나 배우자에 비해 자영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낮으며 평균 지속기간 역시 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남성 기타가구원의 경우는 9개월을 하회하는 가장 짧은 지속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별 자영업 지속기간을 보면, 40대와 50대의 경우 20개월에 가까운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는 17%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15~29세의 경우는 8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자영업 지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가 60%를 넘고 있다. 이는 청년층에 있어 자영업이 임금근로로 이행하기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하며 고령자의 경우는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장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이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남녀 모두에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 지속기간에서 교육수준 사이에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고졸미만 저학력이나 대졸 이상 고학력의 지속기간이 다소 긴 반면 초대졸의 경우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남녀 모두에게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자영업 지속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미혼의 경우 자영업 평균지속기간은 8개월에 불과한 반면 기혼유배우의 경우 18개월을 초과하며 기혼무배우의 경우는 14개월 정도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남성 기혼유배우자를 기준으로 할 때 미혼의 자영업 평균 지속기간은 11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기혼무배우자의 경우는 약 7개월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각각 8개월과 1.5개월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표 IV-16>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가구주와의 관계별

단위: 천 명, %, 월

| | 전체 | 1~6 개월 | 7~12 개월 | 13~24 개월 | 25~36 개월 | 37개월 이상 | 평균 |
|--------|--------|-----------|------------|-------------|-------------|------------|------|
| 전체 | 19,244 | 40.2 | 17.1 | 18.1 | 8.5 | 16.0 | 16.5 |
| 가구주 | 10,431 | 33.5 | 17.2 | 19.9 | 9.6 | 19.9 | 18.9 |
| 배우자 | 5,843 | 40.9 | 17.3 | 18.2 | 8.6 | 14.9 | 16.1 |
| 기타 가구원 | 2,971 | 62.4 | 16.4 | 11.8 | 4.7 | 4.7 | 8.9 |
| 남성 | 10,705 | 37.0 | 16.9 | 18.8 | 8.9 | 18.4 | 17.8 |
| 가구주 | 8,785 | 31.6 | 17.0 | 20.1 | 9.8 | 21.5 | 19.8 |
| 배우자 | 210 | 51.9 | 16.2 | 20.5 | 5.7 | 5.2 | 10.9 |
| 기타 가구원 | 1,710 | 62.7 | 16.4 | 12.1 | 4.5 | 4.3 | 8.7 |
| 여성 | 8,539 | 44.2 | 17.4 | 17.2 | 8.1 | 13.1 | 14.9 |
| 가구주 | 1,646 | 43.3 | 18.5 | 18.5 | 8.1 | 11.5 | 14.5 |
| 배우자 | 5,633 | 40.5 | 17.3 | 18.1 | 8.7 | 15.3 | 16.3 |
| 기타 가구원 | 1,261 | 62.0 | 16.5 | 11.3 | 4.9 | 5.3 | 9.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17>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연령대별

단위: 천 명, %, 월

| | 전체 | 1~6 개월 | 7~12 개월 | 13~24 개월 | 25~36 개월 | 37개월 이상 | 평균 |
|--------|--------|-----------|------------|-------------|-------------|------------|------|
| 전체 | 19,244 | 40.2 | 17.1 | 18.1 | 8.5 | 16.0 | 16.5 |
| 15~29세 | 3,040 | 61.2 | 18.6 | 13.2 | 4.2 | 2.9 | 8.3 |
| 30~39세 | 5,778 | 37.8 | 18.4 | 21.5 | 8.9 | 13.4 | 15.8 |
| 40~49세 | 5,053 | 32.3 | 15.9 | 19.4 | 10.7 | 21.7 | 19.9 |
| 50~59세 | 2,961 | 35.1 | 15.0 | 17.8 | 9.5 | 22.7 | 19.9 |
| 60세 이상 | 2,413 | 42.3 | 17.1 | 14.0 | 7.4 | 19.1 | 17.4 |
| 남성 | 10,705 | 37.0 | 16.9 | 18.8 | 8.9 | 18.4 | 17.8 |
| 15~29세 | 1,704 | 61.5 | 18.4 | 12.9 | 4.3 | 2.9 | 8.3 |
| 30~39세 | 3,299 | 35.1 | 18.5 | 22.7 | 9.3 | 14.4 | 16.6 |
| 40~49세 | 2,804 | 29.7 | 15.5 | 19.5 | 10.7 | 24.6 | 21.2 |
| 50~59세 | 1,673 | 30.3 | 14.6 | 18.4 | 10.0 | 26.7 | 22.1 |
| 60세 이상 | 1,225 | 34.0 | 16.3 | 15.7 | 8.8 | 25.2 | 20.9 |
| 여성 | 8,539 | 44.2 | 17.4 | 17.2 | 8.1 | 13.1 | 14.9 |
| 15~29세 | 1,336 | 60.8 | 18.8 | 13.5 | 4.0 | 2.8 | 8.3 |
| 30~39세 | 2,479 | 41.4 | 18.4 | 19.9 | 8.4 | 12.0 | 14.8 |
| 40~49세 | 2,248 | 35.6 | 16.4 | 19.2 | 10.7 | 18.1 | 18.2 |
| 50~59세 | 1,288 | 41.4 | 15.5 | 16.9 | 8.8 | 17.5 | 17.1 |
| 60세 이상 | 1,187 | 51.0 | 17.9 | 12.3 | 6.1 | 12.8 | 13.7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18>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교육수준별

단위: 천 명, %, 월

| | 전체 | 1~6 개월 | 7~12 개월 | 13~24 개월 | 25~36 개월 | 37개월 이상 | 평균 |
|------|--------|-----------|------------|-------------|-------------|------------|------|
| 전체 | 19,244 | 40.2 | 17.1 | 18.1 | 8.5 | 16.0 | 16.5 |
| 고졸미만 | 7,220 | 39.4 | 15.8 | 15.7 | 8.5 | 20.6 | 18.4 |
| 고졸 | 8,709 | 41.8 | 18.0 | 18.5 | 8.2 | 13.5 | 15.2 |
| 초대졸 | 865 | 42.8 | 19.0 | 19.9 | 8.3 | 10.1 | 13.9 |
| 대졸이상 | 2,451 | 35.8 | 17.2 | 23.2 | 9.8 | 14.0 | 16.5 |
| 남성 | 10,705 | 37.0 | 16.9 | 18.8 | 8.9 | 18.4 | 17.8 |
| 고졸미만 | 3,134 | 34.8 | 15.1 | 15.7 | 9.0 | 25.5 | 20.8 |
| 고졸 | 5,301 | 39.6 | 17.8 | 18.5 | 8.5 | 15.6 | 16.3 |
| 초대졸 | 544 | 38.6 | 18.4 | 21.0 | 10.1 | 11.8 | 15.4 |
| 대졸이상 | 1,726 | 32.3 | 16.9 | 24.9 | 9.7 | 16.2 | 17.8 |
| 여성 | 8,539 | 44.2 | 17.4 | 17.2 | 8.1 | 13.1 | 14.9 |
| 고졸미만 | 4,085 | 43.0 | 16.3 | 15.6 | 8.2 | 16.8 | 16.5 |
| 고졸 | 3,408 | 45.3 | 18.4 | 18.6 | 7.7 | 10.1 | 13.5 |
| 초대졸 | 321 | 49.8 | 19.6 | 18.1 | 5.0 | 7.2 | 11.3 |
| 대졸이상 | 725 | 44.0 | 17.9 | 19.2 | 10.1 | 8.7 | 13.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19>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성별·혼인상태별

단위: 천 명, %, 월

| | 전체 | 1~6 개월 | 7~12 개월 | 13~24 개월 | 25~36 개월 | 37개월 이상 | 평균 |
|-------|--------|-----------|------------|-------------|-------------|------------|------|
| 전체 | 19,244 | 40.2 | 17.1 | 18.1 | 8.5 | 16.0 | 16.5 |
| 미혼 | 2,612 | 63.2 | 16.6 | 12.8 | 4.1 | 3.3 | 8.2 |
| 기혼유배우 | 15,120 | 35.5 | 17.1 | 19.3 | 9.4 | 18.7 | 18.2 |
| 기혼무배우 | 1,512 | 47.3 | 17.9 | 15.3 | 7.5 | 11.9 | 14.1 |
| 남성 | 10,705 | 37.0 | 16.9 | 18.8 | 8.9 | 18.4 | 17.8 |
| 미혼 | 1,768 | 62.0 | 17.0 | 12.9 | 4.4 | 3.7 | 8.5 |
| 기혼유배우 | 8,609 | 31.3 | 16.8 | 20.3 | 9.8 | 21.8 | 19.9 |
| 기혼무배우 | 328 | 50.6 | 17.7 | 13.7 | 8.8 | 9.1 | 12.9 |
| 여성 | 8,539 | 44.2 | 17.4 | 17.2 | 8.1 | 13.1 | 14.9 |
| 미혼 | 844 | 65.5 | 15.9 | 12.7 | 3.6 | 2.3 | 7.5 |
| 기혼유배우 | 6,511 | 41.1 | 17.5 | 18.0 | 8.8 | 14.6 | 15.9 |
| 기혼무배우 | 1,184 | 46.5 | 18.1 | 15.9 | 7.1 | 12.6 | 14.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20>~<표 IV-22>는 자영업 업종별 지속기간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운수업, 제조업, 농림어업의 자영업 평균 지속기간이 20개월을 초과하는 반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지속기간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는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의 자영업 평균 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반면 가사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업, 교육서비스업에서는 짧게 나타난다. 여성이 집중된 농림어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도 지속기간은 평균수준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20>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산업별(전체)

단위: 천 명, %, 월

| | 전체 | 1~6 개월 | 7~12 개월 | 13~24 개월 | 25~36 개월 | 37개월 이상 | 평균 |
|------------|--------|-----------|------------|-------------|-------------|------------|------|
| 전산업 | 19,244 | 40.2 | 17.1 | 18.1 | 8.5 | 16.0 | 16.5 |
| 농림어업 | 3,998 | 45.3 | 16.4 | 11.4 | 7.0 | 19.8 | 17.3 |
| 제조업 | 1,679 | 36.0 | 15.5 | 19.4 | 10.1 | 19.0 | 18.3 |
| 건설업 | 1,022 | 45.9 | 19.5 | 16.6 | 6.3 | 11.6 | 13.6 |
| 도매및소매업 | 5,513 | 36.4 | 16.8 | 19.7 | 9.2 | 17.9 | 17.7 |
| 숙박및음식점업 | 2,796 | 42.9 | 18.5 | 20.3 | 8.0 | 10.4 | 14.0 |
| 운수업 | 812 | 28.1 | 14.8 | 22.2 | 12.9 | 22.0 | 20.9 |
| 통신업 | 24 | 45.8 | 20.8 | 8.3 | 12.5 | 8.3 | 13.0 |
| 금융및보험업 | 192 | 44.8 | 22.4 | 17.7 | 6.8 | 8.3 | 12.5 |
| 부동산및임대업 | 356 | 36.0 | 18.8 | 21.1 | 9.6 | 14.6 | 16.3 |
| 사업서비스업 | 476 | 46.2 | 12.0 | 20.8 | 9.0 | 11.8 | 14.6 |
| 교육서비스업 | 892 | 52.7 | 18.8 | 15.5 | 6.8 | 6.2 | 11.0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118 | 21.2 | 13.6 | 26.3 | 12.7 | 26.3 | 23.8 |
| 오락문화운동관련 | 76 | 38.2 | 26.3 | 35.5 | 0.0 | 0.0 | 9.3 |
|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 1,112 | 30.5 | 19.1 | 23.4 | 10.8 | 16.3 | 18.1 |
| 가사서비스업 | 173 | 59.5 | 14.5 | 17.3 | 3.5 | 5.2 | 9.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21>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산업별(남성)

단위: 천 명, %, 월

| | 전체 | 1~6 개월 | 7~12 개월 | 13~24 개월 | 25~36 개월 | 37개월 이상 | 평균 |
|------------|--------|-----------|------------|-------------|-------------|------------|------|
| 전산업 | 10,705 | 37.0 | 16.9 | 18.8 | 8.9 | 18.4 | 17.8 |
| 농림어업 | 2,100 | 39.0 | 15.3 | 12.0 | 7.8 | 25.8 | 20.3 |
| 제조업 | 1,056 | 29.3 | 16.9 | 20.7 | 11.0 | 22.1 | 20.3 |
| 건설업 | 937 | 45.0 | 19.7 | 16.8 | 6.3 | 12.2 | 13.8 |
| 도매및소매업 | 3,103 | 35.4 | 16.8 | 20.1 | 9.2 | 18.5 | 18.1 |
| 숙박및음식점업 | 1,055 | 44.0 | 17.8 | 20.8 | 7.5 | 9.9 | 13.6 |
| 운수업 | 766 | 26.6 | 15.0 | 22.7 | 13.1 | 22.6 | 21.3 |
| 통신업 | 19 | 52.6 | 15.8 | 5.3 | 10.5 | 10.5 | 12.6 |
| 금융및보험업 | 101 | 37.6 | 24.8 | 18.8 | 7.9 | 11.9 | 14.7 |
| 부동산및임대업 | 237 | 35.9 | 17.7 | 21.1 | 9.3 | 16.5 | 16.9 |
| 사업서비스업 | 376 | 42.0 | 12.8 | 23.4 | 9.6 | 12.0 | 15.4 |
| 교육서비스업 | 294 | 51.4 | 21.4 | 15.0 | 5.1 | 7.5 | 10.9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73 | 15.1 | 15.1 | 26.0 | 13.7 | 31.5 | 26.2 |
| 오락문화운동관련 | 50 | 40.0 | 20.0 | 38.0 | 0.0 | 0.0 | 9.3 |
|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 524 | 30.5 | 17.6 | 25.0 | 10.9 | 16.2 | 18.3 |
| 가사서비스업 | 7 | 71.4 | 14.3 | 0.0 | 0.0 | 14.3 | 10.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22> 자영업 지속기간의 분포-산업별(여성)

단위: 천 명, %, 월

| | 전체 | 1~6 개월 | 7~12 개월 | 13~24 개월 | 25~36 개월 | 37개월 이상 | 평균 |
|------------|-------|-----------|------------|-------------|-------------|------------|------|
| 전산업 | 8,539 | 44.2 | 17.4 | 17.2 | 8.1 | 13.1 | 14.9 |
| 농림어업 | 1,898 | 52.2 | 17.7 | 10.9 | 6.1 | 13.2 | 13.9 |
| 제조업 | 623 | 47.4 | 13.2 | 17.2 | 8.5 | 13.8 | 14.8 |
| 건설업 | 85 | 55.3 | 17.6 | 15.3 | 5.9 | 5.9 | 10.8 |
| 도매및소매업 | 2,410 | 37.7 | 16.8 | 19.3 | 9.1 | 17.1 | 17.2 |
| 숙박및음식점업 | 1,742 | 42.3 | 18.8 | 20.0 | 8.3 | 10.7 | 14.2 |
| 운수업 | 46 | 52.2 | 10.9 | 13.0 | 10.9 | 13.0 | 13.1 |
| 통신업 | 5 | 20.0 | 40.0 | 20.0 | 20.0 | 0.0 | 14.1 |
| 금융및보험업 | 91 | 52.7 | 18.7 | 16.5 | 6.6 | 4.4 | 10.0 |
| 부동산및임대업 | 119 | 36.1 | 21.8 | 21.0 | 10.1 | 11.8 | 15.2 |
| 사업서비스업 | 100 | 62.0 | 9.0 | 11.0 | 7.0 | 11.0 | 11.7 |
| 교육서비스업 | 598 | 53.3 | 17.6 | 15.7 | 7.7 | 5.7 | 11.1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44 | 31.8 | 11.4 | 27.3 | 11.4 | 18.2 | 19.9 |
| 오락문화운동관련 | 26 | 34.6 | 34.6 | 26.9 | 0.0 | 0.0 | 9.3 |
|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 588 | 30.6 | 20.4 | 21.9 | 10.7 | 16.2 | 17.9 |
| 가사서비스업 | 166 | 59.0 | 14.5 | 18.1 | 3.6 | 4.8 | 9.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나.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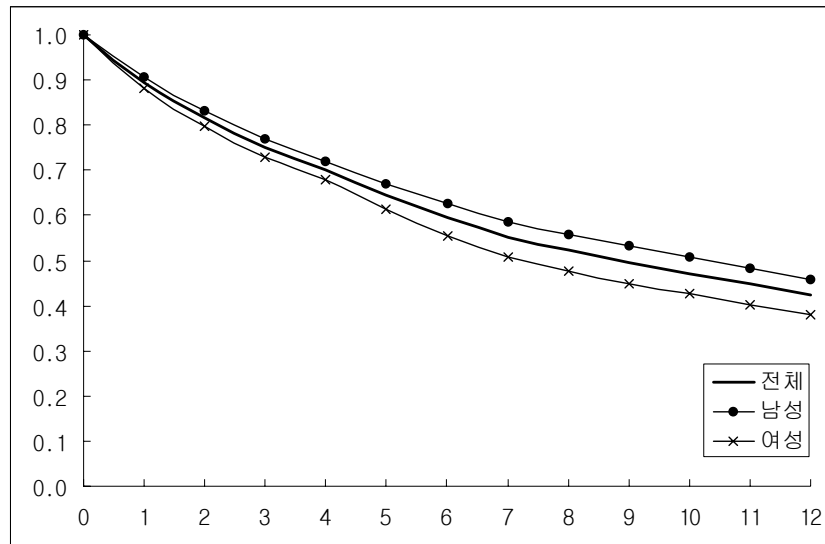
자영업자 역시 매순간 다른 대안을 고려하며 자영업으로부터 탈출할 것인지 자영업을 지속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결정이 누적된 결과가 이미 논의한 자영업의 지속기간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잔존함수(survival function)와 탈출률(hazard rate 또는 exit rate)을 살펴본 후 탈출 후 상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IV-1]은 자영업에 진입한 이후 12개월 동안의 잔존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 모두 잔존률은 단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2개월 이후에는 약 50%만이 잔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모든 기간에서 잔존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여성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남성에 비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V-2]는 자영업에 진입한 후 12개월 동안의 각 시점 또는 기간에서의 탈출률을 보여주고 있다. 일정 시점에서의 탈출률은 그 시점 직전까지 자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가 그 시점에서 자영업으로부터 탈출하는 조건부확률로 잔존률과는 역의 관계를 갖는 개념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탈출률은 전반적으로 기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를 부(-)의 경과기간 의존성(negative duration dependence)이라 부르는데 해석하면 자영업을 오래 할수록 자영업을 그만 둘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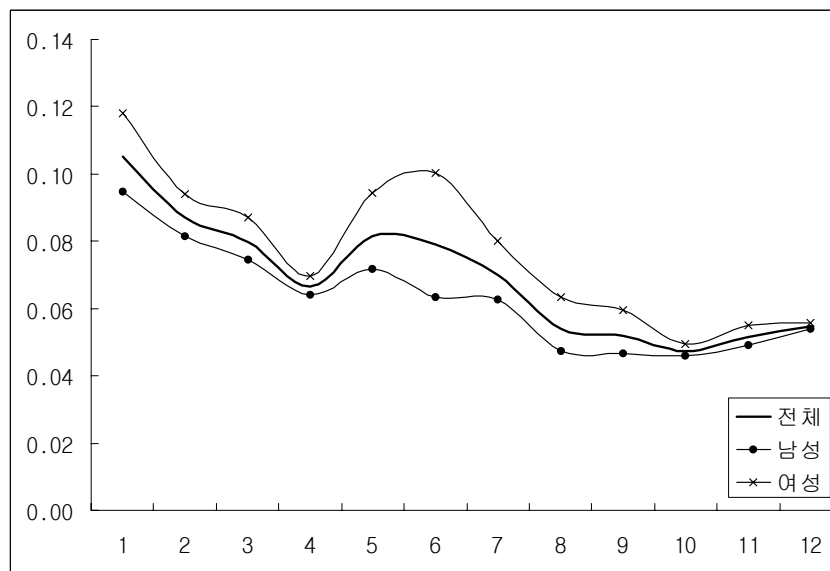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부의 경과기간 의존성은 모든 기간에 걸쳐 단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그림에서 보듯 남녀 공히 최초 4개월까지는 강한 부의 경과기간 의존성을 보이다가 5~7개월의 구간에서는 탈출률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이후는 약 5~6%의 수준에서 탈출률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경과기간 의존성이 부재하는 구간이다. 남녀 공히 자영업을 시작한 지 5~7개월 사이에 자영업을 그만 둘 확률이 높아지는가는 향후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겨 둔다.

[그림 IV-3]은 탈출경로별 탈출률을 보여주고 있다. 자영업으로부터 탈출하는 경로는 임금근로상태, 미취업상태(실업상태 또는 비경제활동상태),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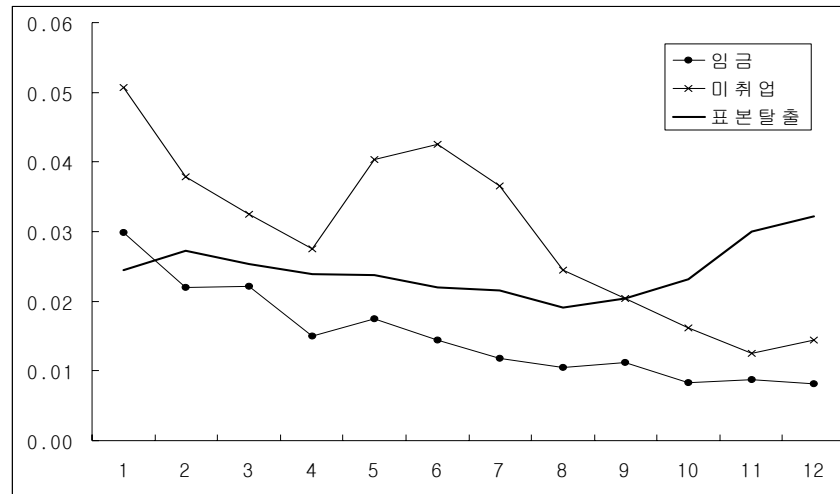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그림 IV-1] 성별잔존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그림 IV-2] 탈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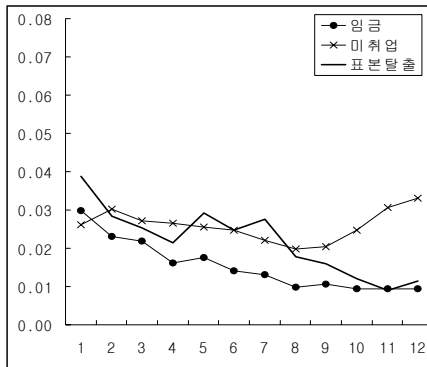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그림 IV-3] 탈출경로별 탈출률

리고 표본으로부터 탈출이나 미완료의 우측절단의 경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임금근로로의 탈출률은 약 3%에서 시작하여 7개월까지 하락하다가 그 이후 1% 수준에서 탈출률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취업으로의 탈출률은 5%에서 시작하여 3%까지 하락하다가 5~7개월 사이에는 탈출률이 급속히 높아졌다가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을 보여준다. 표본탈출의 탈출률은 10개월까지는 2~3% 사이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 탈출할 확률이 모든 기간에서 다른 탈출경로를 통해 자영업으로부터 탈출할 확률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영업이 임금근로보다는 더 나은 대안으로 역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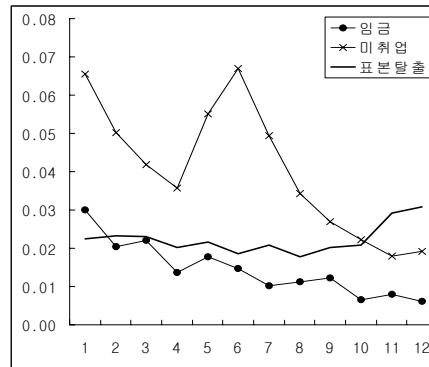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게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IV-4]와 [그림 IV-5]의 성별 탈출경로별 탈출률을 볼 때, 여성의 경우에 임금근로를 통한 자영업 탈출과 미취업을 통한 자영업 탈출의 격차가 남성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남성과 여성의 임금근로를 통한 자영업 탈출률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 미취업을 통

한 자영업 탈출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며 5~7개월 사이에 하락세로부터 급상승세로 반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언급한 5~7개월 사이에 일어나는 자영업 탈출률의 급상승은 여성의 미취업을 통한 자영업 탈출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그림 IV-4] 남성 탈출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그림 IV-5] 여성 탈출률

다. 어디로 가는가?

탈출률을 언급하면서 이미 자영업을 탈출하는 가능한 경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자영업을 탈출하는 시점에서 각 탈출경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재취업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임금근로를 통한 탈출경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으로 세분하고 미취업상태를 통한 탈출경로는 실업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로 세분한다.

<표 IV-23>에서 보듯, 절반의 표본이 우측절단되지 않은 지속기간을 가지며 여성의 경우 이의 비중이 58%로 남성의 44%보다 높게 나타난다. 탈출 후 최초의 상태를 보면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업상태를 통한 자영업 탈출비중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비경제활동상태를 통한 자영업 탈출비중이 70%에 이르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여성이 자영업을 그만 둘 경우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상용직

으로 이행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며(남성의 경우는 10%) 남녀 공히 임시직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IV-24>는 자영업의 종사상지위별로 탈출경로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우측절단되지 않은 지속기간을 가지는 비중은 가족종사자의 경우 높게 나타난다. 탈출경로별 비중을 보면 여성의 경우 다만 가족종사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행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제외하면 종사상지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남성 고용주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의 이행비중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3>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

단위: 천 명, %

| | 전체 | 완료표본 | 탈출후 최초의 상태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실업 | 비경활 |
| 전체 | 19,244 | 9,594 (49.9) | 32.7 | 5.9 | 14.7 | 12.0 | 10.6 | 56.7 |
| 남성 | 10,705 | 4,658 (43.5) | 39.8 | 10.1 | 16.9 | 12.8 | 16.6 | 43.6 |
| 여성 | 8,539 | 4,937 (57.8) | 26.0 | 2.0 | 12.8 | 11.3 | 4.8 | 69.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24>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 · 초기 자영업의 종사상지위별

단위: 천 명, %

| | 전체 | 완료표본 | 탈출후 최초의 상태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실업 | 비경활 |
| 전체 | | | | | | | | |
| 고용주 | 3,503 | 1,265 (36.1) | 41.7 | 17.5 | 15.6 | 8.7 | 19.8 | 38.3 |
| 자영자 | 10,775 | 5,309 (49.3) | 36.3 | 5.3 | 17.3 | 13.8 | 12.1 | 51.6 |
| 가족종사자 | 4,967 | 3,022 (60.8) | 22.6 | 2.3 | 10.0 | 10.4 | 4.1 | 73.3 |
| 남성 | | | | | | | | |
| 고용주 | 2,821 | 974 (34.5) | 45.7 | 21.0 | 15.3 | 9.3 | 23.0 | 31.3 |
| 자영자 | 6,919 | 3,069 (44.4) | 38.8 | 7.5 | 17.4 | 13.9 | 15.8 | 45.4 |
| 가족종사자 | 964 | 613 (63.6) | 35.4 | 5.7 | 16.6 | 13.1 | 10.6 | 54.2 |
| 여성 | | | | | | | | |
| 고용주 | 682 | 291 (42.7) | 28.9 | 5.8 | 16.5 | 6.5 | 9.3 | 61.9 |
| 자영자 | 3,855 | 2,239 (58.1) | 32.8 | 2.2 | 17.1 | 13.6 | 6.9 | 60.3 |
| 가족종사자 | 4,002 | 2,407 (60.1) | 19.4 | 1.4 | 8.3 | 9.8 | 2.4 | 78.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25>~<표 IV-28>은 성별 인구학적 특성별 탈출경로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의 경우 남성은 상용직으로 이행할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가구주의 경우 배우자나 기타 가구원보다 임금근로를 통한 자영업 탈출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임시직이나 일용직일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배우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할 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로 보면, 상용직으로 이행하는 비중은 남성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5%, 13%로 높게 나타나는 한편 그 외의 집단에서는 10%를 크게 하회하며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4%를 밑돌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고연령의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그만둘 경우 상용직을 선택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 공히 50대에서는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아지며(남성은 54%, 여성은 72%) 60세 이상에서는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때 가교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상용직, 또는 일용직에 비해 임시직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대졸이상을 제외하면,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비중은 낮아진다. 여성의 경우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실업상태로 이행하는 비중이 극히 낮게 나타나는 한편 남성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남성 초대졸의 경우 26%에 이른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여성 기혼의 경우 배우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비중이 70% 전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실업상태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혼 여성은 특히 임시직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기혼무배우의 경우는 일용직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표 IV-25>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가구주와의 관계별

단위: 천 명, %

| | 전체 | 완료표본 | 탈출후 최초의 상태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실업 | 비경활 |
| 전체 | | | | | | | | |
| 가구주 | 10,431 | 4,354 (41.7) | 40.3 | 9.7 | 16.3 | 14.3 | 15.3 | 44.4 |
| 배우자 | 5,843 | 3,363 (57.6) | 23.6 | 1.8 | 11.2 | 10.6 | 4.3 | 72.1 |
| 기타 가구원 | 2,971 | 1,878 (63.2) | 31.4 | 4.7 | 17.4 | 9.3 | 11.1 | 57.6 |
| 남성 | | | | | | | | |
| 가구주 | 8,785 | 3,517 (40.0) | 41.7 | 11.5 | 16.4 | 13.7 | 16.9 | 41.4 |
| 배우자 | 210 | 127 (60.5) | 24.4 | 2.4 | 11.0 | 11.0 | 17.3 | 57.5 |
| 기타 가구원 | 1,710 | 1,013 (59.2) | 35.1 | 6.1 | 19.1 | 10.0 | 15.5 | 49.5 |
| 여성 | | | | | | | | |
| 가구주 | 1,646 | 836 (50.8) | 34.8 | 1.9 | 15.9 | 17.0 | 8.0 | 57.2 |
| 배우자 | 5,633 | 3,236 (57.4) | 23.6 | 1.8 | 11.2 | 10.6 | 3.7 | 72.7 |
| 기타 가구원 | 1,261 | 866 (68.7) | 26.9 | 3.0 | 15.5 | 8.4 | 5.9 | 67.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26>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연령대별

단위: 천 명, %

| | 전체 | 완료표본 | 탈출후 최초의 상태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실업 | 비경활 |
| 전체 | | | | | | | | |
| 15~29세 | 3,040 | 1,769 (58.2) | 34.9 | 6.0 | 21.4 | 7.5 | 12.8 | 52.2 |
| 30~39세 | 5,778 | 2,458 (42.5) | 40.4 | 8.7 | 19.2 | 12.4 | 15.0 | 44.7 |
| 40~49세 | 5,053 | 2,152 (42.6) | 36.0 | 7.3 | 15.4 | 13.3 | 13.8 | 50.2 |
| 50~59세 | 2,961 | 1,556 (52.5) | 29.5 | 4.3 | 10.4 | 14.8 | 6.7 | 63.8 |
| 60세 이상 | 2,413 | 1,660 (68.8) | 17.7 | 1.5 | 4.2 | 12.0 | 1.1 | 81.1 |
| 남성 | | | | | | | | |
| 15~29세 | 1,704 | 919 (53.9) | 40.7 | 8.5 | 23.2 | 9.0 | 17.8 | 41.3 |
| 30~39세 | 3,299 | 1,204 (36.5) | 53.1 | 15.1 | 22.8 | 15.1 | 23.9 | 22.9 |
| 40~49세 | 2,804 | 1,041 (37.1) | 43.6 | 12.7 | 15.7 | 15.3 | 21.2 | 35.3 |
| 50~59세 | 1,673 | 742 (44.4) | 34.0 | 7.8 | 12.3 | 13.9 | 11.7 | 54.3 |
| 60세 이상 | 1,225 | 752 (61.4) | 17.8 | 2.7 | 5.7 | 9.4 | 2.0 | 80.2 |
| 여성 | | | | | | | | |
| 15~29세 | 1,336 | 850 (63.6) | 28.7 | 3.4 | 19.4 | 5.9 | 7.3 | 64.0 |
| 30~39세 | 2,479 | 1,255 (50.6) | 28.1 | 2.5 | 15.8 | 9.8 | 6.4 | 65.5 |
| 40~49세 | 2,248 | 1,110 (49.4) | 29.1 | 2.3 | 15.2 | 11.6 | 6.8 | 64.2 |
| 50~59세 | 1,288 | 814 (63.2) | 25.3 | 1.1 | 8.7 | 15.5 | 2.3 | 72.4 |
| 60세 이상 | 1,187 | 907 (76.4) | 17.5 | 0.4 | 3.0 | 14.1 | 0.4 | 82.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27>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교육수준별

단위: 천 명, %

| | 전체 | 완료표본 | 탈출후 최초의 상태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실업 | 비경활 |
| 전체 | | | | | | | | |
| 고졸미만 | 7,220 | 4,194 (58.1) | 27.3 | 2.0 | 9.3 | 16.0 | 6.1 | 66.6 |
| 고졸 | 8,709 | 4,018 (46.1) | 34.8 | 6.2 | 18.0 | 10.6 | 14.1 | 51.2 |
| 초대졸 | 865 | 406 (46.9) | 44.8 | 14.5 | 24.4 | 5.9 | 16.7 | 38.4 |
| 대졸이상 | 2,451 | 978 (39.9) | 42.3 | 17.9 | 20.6 | 3.9 | 13.1 | 44.6 |
| 남성 | | | | | | | | |
| 고졸미만 | 3,134 | 1,608 (51.3) | 32.1 | 3.5 | 10.9 | 17.7 | 10.4 | 57.5 |
| 고졸 | 5,301 | 2,206 (41.6) | 42.2 | 9.6 | 19.9 | 12.7 | 19.9 | 37.8 |
| 초대졸 | 544 | 223 (41.0) | 52.0 | 21.5 | 24.2 | 6.3 | 25.6 | 22.0 |
| 대졸이상 | 1,726 | 621 (36.0) | 46.5 | 24.6 | 18.7 | 3.2 | 17.9 | 35.6 |
| 여성 | | | | | | | | |
| 고졸미만 | 4,085 | 2,584 (63.3) | 24.4 | 1.1 | 8.4 | 14.9 | 3.3 | 72.3 |
| 고졸 | 3,408 | 1,813 (53.2) | 25.6 | 2.1 | 15.6 | 7.9 | 6.9 | 67.4 |
| 초대졸 | 321 | 183 (57.0) | 35.5 | 6.0 | 24.0 | 5.5 | 6.0 | 57.9 |
| 대졸이상 | 725 | 357 (49.2) | 35.3 | 6.2 | 24.1 | 5.0 | 4.8 | 59.9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28>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성별·혼인상태별

단위: 천 명, %

| | 전체 | 완료표본 | 탈출후 최초의 상태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실업 | 비경활 |
| 전체 | | | | | | | | |
| 미혼 | 2,612 | 1,514 (58.0) | 36.2 | 5.6 | 21.6 | 9.0 | 16.0 | 47.9 |
| 기혼유배우 | 15,120 | 7,189 (47.5) | 32.4 | 6.6 | 13.8 | 12.0 | 9.8 | 57.7 |
| 기혼무배우 | 1,512 | 892 (59.0) | 29.3 | 1.1 | 10.5 | 17.6 | 7.4 | 63.3 |
| 남성 | | | | | | | | |
| 미혼 | 1,768 | 976 (55.2) | 36.1 | 5.8 | 20.1 | 10.1 | 19.3 | 44.8 |
| 기혼유배우 | 8,609 | 3,505 (40.7) | 41.1 | 11.7 | 16.1 | 13.3 | 15.9 | 43.1 |
| 기혼무배우 | 328 | 176 (53.7) | 34.7 | 2.8 | 13.6 | 18.2 | 17.6 | 47.7 |
| 여성 | | | | | | | | |
| 미혼 | 844 | 538 (63.7) | 36.4 | 5.2 | 24.5 | 6.7 | 10.0 | 53.5 |
| 기혼유배우 | 6,511 | 3,683 (56.6) | 24.2 | 1.8 | 11.6 | 10.8 | 4.1 | 71.8 |
| 기혼무배우 | 1,184 | 716 (60.5) | 27.9 | 0.7 | 9.8 | 17.5 | 4.9 | 67.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29>~<표 IV-32>는 자영업의 산업별 탈출경로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상용직으로 이행하는 비중은 사업서비스업과 통신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높게 나타나며 가사서비스업이나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에서는 낮게 나타난다.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비중은 농림어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에서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를 보면, 금융 및 보험업과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의 경우 임금근로(주로 임시직)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이나 운수업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임시직으로 이행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는 가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등을 들 수 있다.

자영업에서 탈출하는 경우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였을 때 재취업하는 비중은 78%로 나타난다. 남성의 경우는 80%를 넘으며 여성의 경우도 75%에 이르는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는 비중은 44%에 이르며 자영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 자영업으로 재취업하는 비중은 38%로 남성의 29%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금근로 중 상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중은 7%를 하회(남성의 경우는 11%, 여성의 경우는 3% 미만)하며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중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IV-29>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산업별

단위: 천 명, %

| | 전체 | 완료표본 | 탈출후 최초의 상태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실업 | 비경활 |
| 전산업 | 19,244 | 9,594 (49.9) | 32.7 | 5.9 | 14.7 | 12.0 | 10.6 | 56.7 |
| 농림어업 | 3,998 | 2,764 (69.1) | 26.8 | 2.1 | 6.8 | 17.9 | 1.9 | 71.3 |
| 제조업 | 1,679 | 717 (42.7) | 36.1 | 10.0 | 14.9 | 11.2 | 13.2 | 50.6 |
| 건설업 | 1,022 | 533 (52.2) | 44.5 | 11.4 | 11.4 | 21.6 | 21.6 | 33.8 |
| 도매및소매업 | 5,513 | 2,380 (43.2) | 35.8 | 6.5 | 19.3 | 10.0 | 12.9 | 51.3 |
| 숙박및음식점업 | 2,796 | 1,332 (47.6) | 28.1 | 3.7 | 17.0 | 7.4 | 16.0 | 56.0 |
| 운수업 | 812 | 274 (33.7) | 38.7 | 11.3 | 19.7 | 7.7 | 22.6 | 39.1 |
| 통신업 | 24 | 11 (45.8) | 72.7 | 18.2 | 36.4 | 18.2 | 9.1 | 18.2 |
| 금융및보험업 | 192 | 98 (51.0) | 59.2 | 10.2 | 42.9 | 6.1 | 11.2 | 29.6 |
| 부동산및임대업 | 356 | 156 (43.8) | 30.8 | 7.1 | 17.9 | 5.8 | 11.5 | 58.3 |
| 사업서비스업 | 476 | 214 (45.0) | 48.6 | 22.0 | 20.1 | 6.5 | 13.1 | 37.9 |
| 교육서비스업 | 892 | 509 (57.1) | 27.3 | 6.1 | 16.5 | 4.7 | 9.4 | 63.3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118 | 35 (29.7) | 28.6 | 14.3 | 14.3 | 0.0 | 5.7 | 65.7 |
| 오락문화운동관련 | 76 | 37 (48.7) | 48.6 | 10.8 | 27.0 | 10.8 | 10.8 | 43.2 |
|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 1,112 | 407 (36.6) | 34.2 | 7.9 | 17.0 | 9.3 | 13.0 | 52.6 |
| 가사서비스업 | 173 | 125 (72.3) | 36.8 | 0.0 | 28.8 | 8.0 | 4.0 | 58.4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30>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산업별(남성)

단위: 천 명, %

| | 전체 | 완료표본 | 탈출후 최초의 상태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실업 | 비경활 |
| 전산업 | 10,705 | 4,658 (43.5) | 39.8 | 10.1 | 16.9 | 12.8 | 16.6 | 43.6 |
| 농림어업 | 2,100 | 1,234 (58.8) | 31.3 | 3.6 | 9.2 | 18.5 | 3.4 | 65.3 |
| 제조업 | 1,056 | 344 (32.6) | 50.0 | 19.8 | 19.8 | 10.5 | 20.3 | 29.7 |
| 건설업 | 937 | 477 (50.9) | 47.8 | 12.8 | 12.4 | 22.6 | 23.5 | 28.7 |
| 도매및소매업 | 3,103 | 1,183 (38.1) | 44.2 | 11.3 | 22.9 | 10.0 | 20.6 | 35.2 |
| 숙박및음식점업 | 1,055 | 484 (45.9) | 34.5 | 6.8 | 18.6 | 9.1 | 25.4 | 40.3 |
| 운수업 | 766 | 244 (31.9) | 39.3 | 11.1 | 20.9 | 7.4 | 25.0 | 35.7 |
| 통신업 | 19 | 10 (52.6) | 80.0 | 20.0 | 40.0 | 20.0 | 10.0 | 10.0 |
| 금융및보험업 | 101 | 47 (46.5) | 55.3 | 14.9 | 38.3 | 2.1 | 19.1 | 25.5 |
| 부동산및임대업 | 237 | 99 (41.8) | 34.3 | 9.1 | 20.2 | 5.1 | 16.2 | 48.5 |
| 사업서비스업 | 376 | 151 (40.2) | 57.6 | 27.8 | 22.5 | 7.3 | 17.2 | 25.2 |
| 교육서비스업 | 294 | 156 (53.1) | 23.7 | 8.3 | 10.9 | 4.5 | 13.5 | 62.8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73 | 14 (19.2) | 42.9 | 21.4 | 21.4 | 0.0 | 14.3 | 57.1 |
| 오락문화운동관련 | 50 | 24 (48.0) | 41.7 | 16.7 | 25.0 | 0.0 | 16.7 | 45.8 |
|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 524 | 181 (34.5) | 39.8 | 13.3 | 16.0 | 10.5 | 23.8 | 37.0 |
| 가사서비스업 | 7 | 5 (71.4) | 60.0 | 0.0 | 40.0 | 20.0 | 0.0 | 40.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31> 자영업으로부터의 탈출-산업별(여성)

단위: 천 명, %

| | 전체 | 완료표본 | 탈출후 최초의 상태 | | | | | |
|------------|-------|--------------|------------|------|------|------|------|-------|
| | | | 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실업 | 비경활 |
| 전산업 | 8,539 | 4,937 (57.8) | 26.0 | 2.0 | 12.8 | 11.3 | 4.8 | 69.1 |
| 농림어업 | 1,898 | 1,530 (80.6) | 23.2 | 1.0 | 4.8 | 17.4 | 0.7 | 76.1 |
| 제조업 | 623 | 373 (59.9) | 23.3 | 1.1 | 10.2 | 12.1 | 6.7 | 70.0 |
| 건설업 | 85 | 56 (65.9) | 19.6 | 1.8 | 3.6 | 14.3 | 5.4 | 76.8 |
| 도매및소매업 | 2,410 | 1,198 (49.7) | 27.5 | 1.7 | 15.7 | 10.1 | 5.2 | 67.3 |
| 숙박및음식점업 | 1,742 | 849 (48.7) | 24.4 | 1.9 | 16.0 | 6.5 | 10.6 | 65.0 |
| 운수업 | 46 | 30 (65.2) | 36.7 | 16.7 | 10.0 | 10.0 | 0.0 | 63.3 |
| 통신업 | 5 | 1 (2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금융및보험업 | 91 | 51 (56.0) | 62.7 | 5.9 | 47.1 | 9.8 | 3.9 | 33.3 |
| 부동산및임대업 | 119 | 58 (48.7) | 24.1 | 3.4 | 13.8 | 6.9 | 3.4 | 74.1 |
| 사업서비스업 | 100 | 63 (63.0) | 25.4 | 7.9 | 12.7 | 4.8 | 3.2 | 69.8 |
| 교육서비스업 | 598 | 353 (59.0) | 28.6 | 4.8 | 19.0 | 4.8 | 7.6 | 63.7 |
| 보건및사회복지사업 | 44 | 20 (45.5) | 25.0 | 15.0 | 10.0 | 0.0 | 5.0 | 75.0 |
| 오락문화운동관련 | 26 | 13 (50.0) | 61.5 | 0.0 | 30.8 | 30.8 | 0.0 | 38.5 |
| 기타공개개인서비스업 | 588 | 226 (38.4) | 30.1 | 3.5 | 18.1 | 8.4 | 4.9 | 65.0 |
| 가사서비스업 | 166 | 120 (72.3) | 36.7 | 0.0 | 29.2 | 7.5 | 4.2 | 59.2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표 IV-32> 자영업 탈출자의 재취업 여부

| | 자영업 경험자 | 자영업 미완료 | 자영업 탈출자 | | | | | | |
|-----------------|------------|------------|-----------------|-----------------|---------------|-----------------|-----------------|-----------------|-----------------|
| | | | 재취업 | | | | | | 미취업 |
| | | | 재취업 | 임금 근로자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자영업 | |
| 전체 | 19,244 | 9,650 | 7,441 (77.6) | 4,229 (44.1) | 655 (6.8) | 1,895 (19.8) | 1,679 (17.5) | 3,212 (33.5) | 2,152 (22.4) |
| 성별 | | | | | | | | | |
| 남성 | 10,705 | 6,047 | 3,752 (80.5) | 2,389 (51.3) | 529 (11.4) | 1,021 (21.9) | 839 (18.0) | 1,363 (29.3) | 907 (19.5) |
| 여성 | 8,539 | 3,602 | 3,692 (74.8) | 1,841 (37.3) | 126 (2.6) | 875 (17.7) | 840 (17.0) | 1,851 (37.5) | 1,245 (25.2) |
| 자영업 초기 종사상지위 | | | | | | | | | |
| 고용주 | 3,503 | 2,238 | 954 (75.4) | 671 (53.0) | 235 (18.6) | 271 (21.4) | 165 (13.0) | 283 (22.4) | 310 (24.5) |
| 자영자 | 10,775 | 5,466 | 4,161 (78.4) | 2,585 (48.7) | 337 (6.3) | 1,209 (22.8) | 1,039 (19.6) | 1,576 (29.7) | 1,147 (21.6) |
| 가족종사자 | 4,967 | 1,945 | 2,326 (77.0) | 973 (32.2) | 83 (2.7) | 415 (13.7) | 475 (15.7) | 1,353 (44.8) | 695 (23.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5. 소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생성과정, 지속기간, 퇴장과정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를 여성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요약한다. 첫째, 기혼유배우자의 경우 부부가 자영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경우 통계조사에서는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에 해당하는 남성을 자영자나 고용주로, 배우자에 해당하는 여성을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자영업연구에서 자영자(또는 고용주)와 무급가족종사자를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때, 부부가 자영업을 공동운영할 경우에는 양자를 자영자(또는 고용주)로 변별하는 것이 통계적 오분류에 따르는 잘못된(misleading) 연구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는 방안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미혼인 경우 자영업에 진입하는 확률이 낮은 반면 혼인 후 노동시장에서의 경력단절로 인하여 자영업으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혼인해소(기혼무배우) 시에는 자영업이 취업선택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성의 혼인을 둘러싼 생애주기에 따른 자영업선택은 연령대로 본 생애주기에 따른 자영업선택과도 부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영업 진입과정을 볼 때, 비경제활동상태를 상당 기간(본 연구에서는 3개월을 고려) 지속한 후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으며 (남성의 경우는 23%에 불과) 임금근로자로서 일자리를 이직 또는 실직한 후 진입하는 경우는 40%를 하회한다(남성의 경우는 60%를 초과)는 점이다. 이는 곧 여성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한다는 사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여성 자영업이 영세할 확률이 높으며 성장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 또는 지속기간이 짧아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이 가사노동과 시장노

동을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원인이 되기도 한다(여성의 자영업 지속기간은 15개월, 남성의 경우는 18개월로 나타난다).

넷째,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의 특성상 좌측절단(1998년 1월에 표본을 개편하여 5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중간에 이주에 따른 새로운 표본으로 편입되는 특성)의 비중과 우측절단(대상기간 중 이주로 인하여 표본에서 제외되는 특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엄밀한 자영업의 지속기간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인 양상을 볼 때 자영업 지속기간이 짧은 편이나 자영업을 2년 이상 지속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게 (특히 양측절단된 표본의 경우에는 44%이며 평균 지속기간은 26개월 이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주와의 관계로 보면 배우자일 경우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가구원일 경우에는 상당히 짧게 나타나며 이는 연령대별 분포나 혼인상태별 분포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의 역할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년층이나 미혼의 경우 자영업이 임금근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0대에서 50대까지(또는 기혼 유배우)는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병행하는 제약을 우회하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제도적(정년퇴직이나 임금근로의 채용에서의 연령차별 등)으로나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바로 퇴장하기보다는 자영업을 가교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그만둔 후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의 1/4만이 미취업상태로 이행하며, 다시 자영업으로 복귀하는(새로이 창업) 비중이 37%에 이르고 있으며 임금근로로 이행하는 비중도 37%에 이른다는 점이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한 비중 역시 39%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임금근로로 재진입할 때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재진입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로부터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자 중 상용직으로부터 진입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수준

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이다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자영업으로 진입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이 자영업에서 탈출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패널화하여 자영업의 생성, 성장, 퇴장과정에 관한 전형적인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자영업을, 특히 여성의 자영업 선택과 여성 자영업의 성장과정 및 자영업의 퇴장과정을 연구하기에는 전혀 적합한 자료가 아님을 밝힐 필요가 있다. 표본편입 시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일자리를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라는 질문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우측절단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지속기간의 분석에서 치명적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목적에서 비롯되는 자료가 갖는 정보의 한계이다. 본 자료는 어떤 기본적인 인적특성을 가진 자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제공할 뿐 자영업을 시작할 당시의 상황이나 그 당시의 가구 특성 및 가족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한국노동패널조사』 제4차년도에서 자영업 일자리에 대해 좀더 자세히 조사한 것은 자영업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작업이었다 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 제4차조사에 포함된 자영업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업종, 사업체명, 사업체소재지, 무급가족종사자 수 및 사업체규모 등 현사업체에 대한 기본정보, ② 사업체 시작시점, 창업동기, 유산상속여부 및 상속자, 사업체 창립시점, 사업체 시작 당시 자본금, 자본금 조달방법 및 구성 등 창업당시의 상황, ③ 창업준비과정에서의 다양한 창업 훈련(7종) 이수여부, ④ 자금, 기술확보 등 6가지 측면에서의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8가지 측면에서 현재 당면한 자영업 운영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Likert scale), ⑤ 자영업 근로의 규칙성 및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⑥ 일자리를 시작할 당시와 현재(또는 그만둘 당시)의 월평균 자영업소득 및 연간매출액, ⑦ 사업체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⑧ 7가지 중 주가 되는 사업체의 중장기 목표를 묻고, ⑨ 자영업을 그만 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묻고 있다.

또한 조사된 자영업이 조사시점 당시에 주된 일자리로 응답된 경우, 유형별 자료에서 얻어진 자영업에 관한 정보와 취업자개인공통에 나타나는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취업자개인공통에서 취득 가능한 일자리와 관련된 주요 정보로는 조사시점 직전 한 주의 요일별 실제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장단 및 근로시간 감축 또는 연장에 대한 주관적 인식, 소득, 안정성 등 7가지 측면에서의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수준과 기술(기능수준)과 일자리의 불일치여부, 그리고 취업중 구직(on-the-job search) 등을 들 수 있다. 개인 및 가구에 관한 사회·경제학 정보 및 제4차년도 부가조사로 실시된 은퇴 및 건강에 관한 정보 역시 자영업 연구를 위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자영업 연구의 목적상 필요한 설문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경우 자료가 가지는 한계효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가 필요해질 것이다. 한계의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2000여 명의 자영업자가 표본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규모의 문제와 회고적 정보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칭 ‘자영업패널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정보 이외에 연구에 필요한 설문을 정제하여 삽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적 정보를 연계하고 자영업자가 피용인을 고용하고 (이 경우 고용주가 될 것이다) 고용보험이나 여타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일 경우 각 사회보험의 DB에 나타나는 정보,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정보에 나타난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 및 국세청의 정보를 연계할 경우 자료상에 나타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여성의 생애와 자영업

| | |
|-------------------|-----|
| 1.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취업력 | 119 |
| 2. 자영업의 지속 | 128 |
| 3. 소결 | 135 |

1.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취업력

여성의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는 여성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이 어느 생애단계에서 혹은 어느 상태에서 자영업에 진입하게 되는지, 자영업을 시작한 이후 지속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에 대한 분석함으로써 여성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 자영업주의 생애단계에서의 진입 및 지속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동 조사에서는 회고법을 이용하여 여성의 전 생애를 조사하고 있다. 즉 15세 이후 현재까지의 생애단계와 취업상태의 변화를 매년 조사함으로써 패널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자료와 유사한 성격의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장의 관심은 자영업자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제4장과 중복이 되나 제4장이 지난 5년간의 월별자료를 패널자료로 만들어 분석함으로써 단기간의 미세한 변화를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제5장에서는 분석주기가 조사대상자의 전 일생으로서 생애단계별로 보이는 변화와 자영업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본 장에서의 주요 분석대상은 취업력 설문지에 응답한 3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시부에 거주하는 여성 중 한 번 이상의 취업경험을 가진 여성이다. 30세 미만인 여성은 취학, 결혼, 출산 등의 사건이 진행중인 여성이 많아 취업력 분석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많아 제외하였으며, 조사 결과 고용주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4명) 분석대상에서 역시 제외하였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군부여성은 제외하였으나, 현재 시부에 거주하면서 과거에 농업부문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농업부문 종사기간만을 제외할 수 없어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현재나이 50세 이상의 여성 중 일부 발견된다.

가. 세대별 피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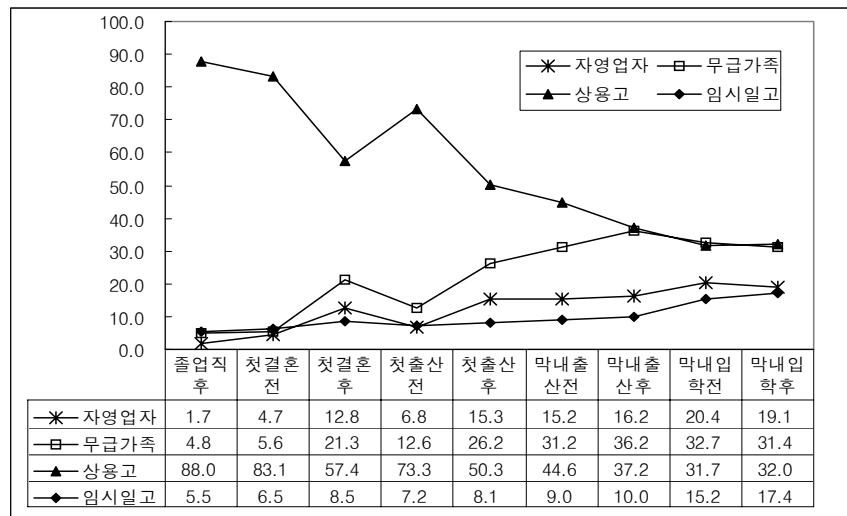
먼저 여성의 생애에 걸친 유업률을 세대별로 보면 연령계층별 유업률 곡선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하고 있다. 또한 세대별 여성 피고용률은 전반적으로 최근 세대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급감하고 있다. 고용주나 자영자, 임시 및 일용고로 처음 직장을 갖는 여성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상용고의 신분으로 취업한 여성비율이 최근 세대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p.225-227) 그러나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여성상용고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임시, 일용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최초 노동시장 진입시 초직이 상용고가 될 가능성이 더욱 적어지고 있어 이들 세대가 분석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앞에서 나타난 세대효과가 여전히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나. 생애단계별 자영업으로의 진입과 경험

[그림 V-1]은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전후하여 여성 취업자의 종사상의 지위가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⁶⁾ 졸업직후 전체 여성 취업자의 90% 가까이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며, 자영자는 1.7%로 지극히 적다. 그러나 결혼과 첫출산을 전후해서 종사상의 지위분포에 큰 변화를 보인다. 결혼 전후를 보면 상용고의 비율이 83.1%에서 57.4%로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는 4.7%에서 12.8%로, 무급가족종사자는 5.6%에서 21.3%로 상승한다. 이는 결혼이란 생애사건이 여성의 종사상의 지위를 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첫 출산 역시 동일한 유형의 변화를 보여 출산 전에 높게 나타나던 상용고 비율이 출산후에 50.3%로 감소하며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 정도는 작지만 막내 자녀 출산을 전후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육아의 부담경감이 예상되는 생애

6) 이 그림은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생애단계별 유업률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단계로서 막내자녀 초등학교 입학전후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하기는 하지만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조금 감소하는 반면 상용고와 임시일용고는 약간 증가하고 있다.⁷⁾



출처: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 198.

[그림 V-1] 생애단계별 종사상의 지위 변화

[그림 V-2]는 종사상의 지위별로 경험자의 현재 나이 분포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의 현재 나이분포를 보면 40대가 43.3%로 가장 많고 30대가 25.3%, 30대가 19.6%의 순으로 40대가 자영업 경험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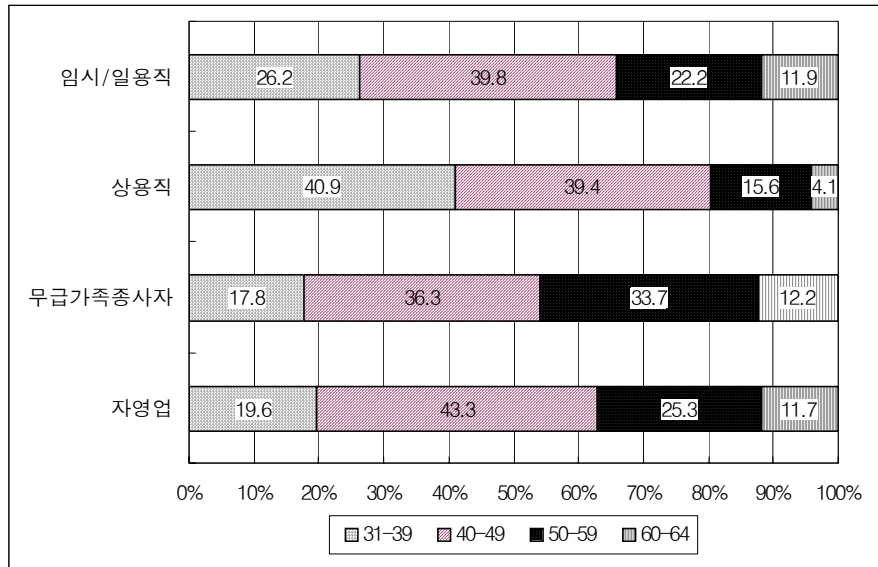
무급가족종사자 역시 비슷한 경향을 보여 40대, 50대 30대의 순서이나 50대의 비율이 자영업보다 높아 무급가족종사자들의 현재 연령이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상용직의 경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종사상의 지위경험별 현재 나이의 분포를 보면 앞의 세대별 분석과 비슷하게 젊은 사람의 상용직비율이 높다. 결론적으로 상용

7) 첫 출산 전과 첫 결혼 후는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연속적인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직 경험자의 현재 평균 연령이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임시/일용직,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순서로 전반적인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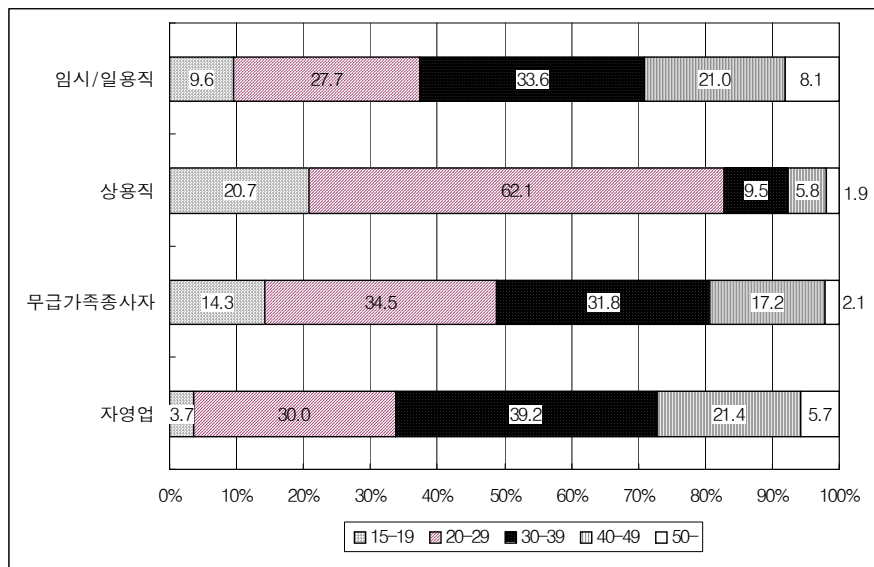
이러한 경향은 언제 그 일을 시작했는지 즉 시작나이와 종사상의 지위를 연결하여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상용직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10대 후반의 비율이 20.7%로 가장 많으며 20대가 62.1%로 가장 높다. 반면 30대 이상의 나이에 상용직을 시작한 비율은 20%가 안되게 나타나 현실적으로 30대 이상의 여성이 새롭게 상용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을 보여 준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동일한 임금근로자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상용직보다는 자영자나 무급가족종사자 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여 준다. 이는 여성의 취업시 선택하는 종사상의 지위는 연령에 크게 제한을 받으며, 그 결과 임시/일용직의 특성이 상용직보다는 비임금근로자와 더욱 유사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연령과 동시에 결혼유무 역시 종사상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예상된다. 해당되는 취업을 언제 시작했는지를 결혼전후로 나누어 분석하면 종사상의 지위와 결혼여부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결혼후에 자영자를 시작한 사람은 전체 자영자 경험자 중 84.0%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무급가족종사자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 또한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도 혼인상태별로 대조를 이루어 상용직을 경험한 여성 중 79%가 결혼전에 상용직을 시작했으며, 임시/일용직은 결혼후에 종사한 비율이 74.9%로 오히려 비임금근로자집단에 가깝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횡단적으로 분석한 제 2장의 [그림 II-1]에서 여성 취업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이 자영업집단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성 자영자가 자영업의 특성인 자율성과 유연성에 의해 결혼과 출산후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잔류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부분이 결혼이후에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연령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결혼이후에 취업을 원하는 기혼여성들이 상용직에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상용직 외의 다른 종사상의 지위에 있는 집단들은 상용직보다 근로조건이나 위세가 높지 못한 한계적 일자리일 확률이 높음을 말해 준다.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그림 V-2] 종사상의 지위별 경험자의 현재 나이 분포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그림 V-3] 첫 종사상의 지위별 시작 연령

<표 V-1> 최초의 종사상의 지위별 결혼상태

|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직 | 임시/일용직 |
|-------|-------------|-------------|--------------|-------------|
| 계 | 100.0 (362) | 100.0 (369) | 100.0 (1404) | 100.0 (390) |
| 결혼후종사 | 84.0 | 79.9 | 20.9 | 74.9 |
| 결혼전종사 | 16.0 | 20.1 | 79.1 | 25.1 |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다. 자영업 이전의 노동력 상태

이와 같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상용직을 원하지만 자격이 부족하거나 노동시장의 차별 등에 의하여 진입하지 못한 여성들이 이윤이 적고 불안정한 한계적 일자리를 메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근로자로서 자신의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소득을 극대화하거나 자율성을 추구하는 자발적 자영업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표 V-2>는 자영업에 진입하기 전의 노동력상태를 분류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취업자 내부에서 종사상의 지위를 바꾸는 비율이 매우 적은 반면 대부분 비취업에서 취업상태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V-2> 최초의 종사상의 지위별 이전의 노동력 상태

| 현재종사직 과거종사직 | 자영자 | 무급가족종사자 | 상용직 | 임시/일용직 |
|----------------|-------------|-------------|--------------|-------------|
| 계 | 100.0 (381) | 100.0 (348) | 100.0 (1463) | 100.0 (401) |
| 자영자 | 0.0 | 2.9 | 0.6 | 2.0 |
| 무급가족종사자 | 4.5 | 0.0 | 0.9 | 3.2 |
| 상용직 | 12.1 | 8.3 | 0.0 | 8.2 |
| 임시/일용직 | 3.7 | 0.9 | 1.0 | 0.0 |
| 무직자 | 79.8 | 87.9 | 97.5 | 86.5 |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자영자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여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비율은 12.1%로 낮은 반면 80%가까이는 무직에서 자영업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자 내부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고능력군과 저능력군으로 이분할 경우 고능력군은 인적자본이 많은 고능력자로서 큰 폭의 소득향상을 기대하는 자발적 이직자로 충원되는 반면 저능력군은 미취업상태에서 곧바로 진입하거나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자들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김재호·조준모, 2000) 이 가정에 근거한다면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는 자발성 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상용직에서의 이전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상태에서의 자영업으로의 진입은 저능력자군일 확률이 높음을 말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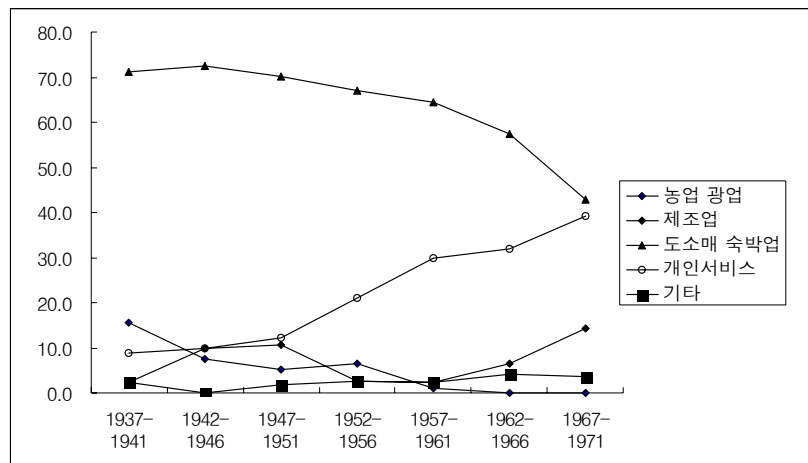
그러나 다른 종사상의 지위 집단 역시 무직에서 이전한 비율이 가장 높아, 우리나라 여성 취업자들이 취업한 상태에서 다른 종사상의 지위로 바꿀 가능성은 매우 적음을 보여 준다. 특히 상용직은 무직상태에서 진입한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종사상의 집단에 속해 있다가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지 혹은 상용직을 회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밝히기가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상용직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진입비율이 자영자가 12.1%로 가장 높고, 무급가족종사자 8.3%, 임시/일용직 8.2%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시작연령의 분포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여성취업시 종사상의 지위에 대한 선택은 상용직과 다른 종사상의지위 집단으로 크게 대별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라. 세대별 종사산업과 직업

자영업에 진출한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별 분포를 횡단적으로 본 제 2장의 <표 II-15>에 의하면 2001년을 1985년의 비교에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기존의 자영자들이 보다 수익성이 높은 업종으로 전환을 했을 가능성과 새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집단이 기존 자영업 집단과 다른 산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취업력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

별 산업별 분포를 본 결과에 의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측정을 하지 못하였지만 일정 정도 세대별 효과가 종산 산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세대별로 자영업을 시작했을 당시에 선택한 산업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자영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 음식 숙박업을 보면 1937-41년생 세대는 71.1%가 동 업종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비율은 최근 세대로 올수록 낮아져 가장 최근 세대인 1967-71년생 세대는 42.9%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의 경우 8.9%에서 최근 세대로 오면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1967-71년생 세대는 39.3%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세대별로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분포가 차이를 보이고, 그러한 차이가 횡단분석에서 보여지는 산업별 분포의 차이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의 변화에 세대별 효과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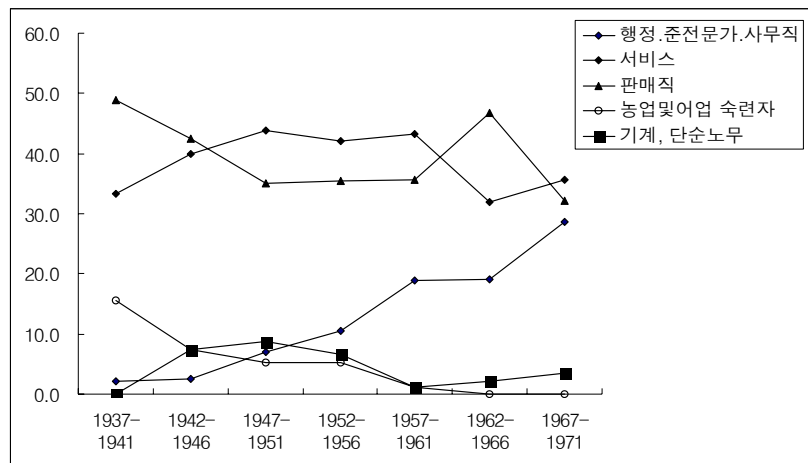
세대별 첫 자영업의 직업분포 역시 세대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직종을 4개 집단으로 나누어 본 결과 전체적으로는 서비스직이 39.7%, 판매직인 38.9%로 가장 높고 행정/전문/준전문직의 비율이 12.5%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그림 V-4] 세대별 자영업 산업분포

그러나 이 3개의 직종군에서 세대별로 일정한 경향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첫째 행정직/전문직/준전문직 집단의 경우 최근 세대로 올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여 특히 가장 젊은 세대인 1967-71년생 세대의 경우 28.6%로 급상승하고 있다. 둘째 판매직은 1962-1966년생 세대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가장 고연령 세대에 비해 약 16%포인트가 감소하였다. 반면 서비스직은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간 세대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세대별 직종의 변화는 산업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횡단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여 세대효과가 작용하고있음을 보여주며, 더 나아가 향후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에 세대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그림 V-5] 세대별 자영업 직종분포

2. 자영업의 지속

가. 자영업 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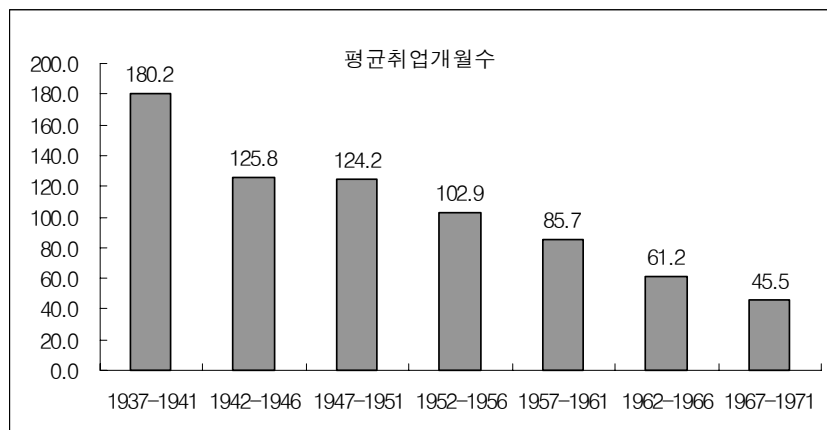
자영업의 지속기간은 자영업자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의 지속기간이 길어질 경우 노동의 질이 향상되고 자금이 안정되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류재우·최호영 2000)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남성 자영업주는 상당히 오랜기간 자영업을 지속하여, 자영업주의 생존기간은 대략 3-4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류재우·최호영 2000) 또한 한번 자영업을 시작한 뒤 5개월 이후까지도 계속적으로 자영업에 잔류하고 있을 확률은 1992년 이후의 경우 92-9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98년의 경제위기 전까지는 자영업자의 지속기간이 길어져 노동의 질과 취업안정성이 높아져 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성 취업력의 특징 상 취업/비취업간의 이동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자영업자의 지속기간은 남성에 비해 짧을 것을 예상이 되나 자료의 한계상 남녀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자영업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첫 자영업에 대한 지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체 383명이 일생에 걸쳐 자영업을 한 기간은 평균 109개월로 나타난다. 이중 2회의 자영업을 경험한 사람(즉 자영업상태에서 비경황이나 임금근로자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이 26명, 3회가 2명으로 나머지 355명은 자영업을 1회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자영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직업, 산업을 바꿀 경우 연속적인 것으로 보았다) 2회 이상의 자영업경험자들의 지속기간을 각 횟수별로 나누어 재계산 결과 평균 104개월로 약간 감소한다. 이와 같이 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나는 것은 비경황이나 임금근로자로서의 노동력 이동률이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예상외로 종사상의 지위변화가 적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또한 평균 104개월의 지속기간은 앞의 남성 자영업자의 생존기간에 비해 상당히 긴 것이다.⁸⁾ 그러나 이 지속기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정확

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즉 지속기간이 긴 것이 여성 자영자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행정직/전문직/준전문직의 고학력 자영업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은 자발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한계상황에서의 비자발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의 월수입이 100만원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기간의 증가에 따른 소득의 안정이나 노동의 질의 향상이 기대되지 않는다. 둘째 분석의 문제로서 종사상의 지위를 바꾸지 않은 채 일의 내용을 바꾼 경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지속적인 일로 간주하여 한 건수로 취급하였는데, 별도의 건수로 취급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의 문제가 있다.

지속기간을 세대별로 보면 연령효과로 오랜 세대일수록 긴 취업기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세대별 차이는 일정하지 않아 1937-41년생에 비해 그 다음 세대인 1942-46년생의 취업개월수는 55개월이 감소하는 반면 1947-51년생과의 취업개월수는 1개월만 감소하고 있어 세대효과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표 V-3> 세대별 자영업 지속기간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8) 물론 자료와 분석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무리이다.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학력별 자영업 지속기간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저학력일수록 지속기간이 길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학력과 세대간의 강한 상관관계로 인하여 즉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기 때문에 보여지는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세대를 통제하고 학력별 지속기간의 차이를 본 결과 1937-1961년생 집단은 학력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최근세대 즉 1962-1971년생 집단에서는 학력별로 뚜렷한 지속기간의 차이를 보여, 중졸은 38개월, 고졸 58개월, 대졸 60개월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속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표 V-4> 학력별 자영업 지속기간

단위: 개월수

| | 1937-1951 | 1952-1961 | 1962-1971 | 계 |
|----|-----------|-----------|-----------|-------|
| 중졸 | 145.0 | 108.2 | 37.8 | 129.2 |
| 고졸 | 160.5 | 88.9 | 57.5 | 94.5 |
| 대졸 | 113.5 | 108.7 | 59.8 | 83.9 |
| 계 | 148.2 | 98.2 | 56.9 | 108.7 |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나. 자영업 지속요인

1) 분석모형

자영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생존 확률분석을 시도하였다. 생존함수를 추정함에 있어 비모수적 방법의 콕스의 비례적 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사용하였다. 같은 비모수적 방법인 생명표법과 케플란-메이ер 방법이 사건의 발생여부만을 고려하고 사건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에 비해, Cox의 비례적 위험모형은 생존기간과 여러 변수들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Cox가 제시한 생존함수와 위험함수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정수연, 2002).

$$h(t;x)=h_0(t)\exp(x\beta)$$

$$S(t,x)=\exp\{-\int_0^1 h_0(u)du\}^{\exp}=S_0(t)e^{\exp}$$

2) 변수의 채택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적 특성(연령, 교육, 혼인상태, 훈련), 가구적 특성(가구주 여부, 6세미만 자녀, 가구 수입 등), 사회구조적 특성(특정산업의 성장과 사멸, 경기의 호황과 불황, 실업률 등) 등과 함께 자본금, 부모의 자영업 경험여부, 자영업 시작이전의 경험여부 등이 자주 거론되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개인적 특성과 가구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한정적인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세대, 교육수준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가족적 특성으로는 결혼유무, 출산유무, 배우자 유무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조적 특성으로 종사 산업과 직업을 설명변수로 채택하였다. 설명변수는 관측기간 이전에 결정되어진 본인의 출생연도 학력과 같은 고정변수와 그렇지 않는 가변변수로 나뉘어진다. 가변변수로서는 결혼유무, 출산유무, 배우자의 이별 사별 등으로 인한 유무 등의 값으로 자영업을 끝내기 이전 시점의 상태에 따라 변수로 나타내었다. 또한 자영업을 끝내기 이전의 시점에 종사했던 산업(8가지)과 직업(6가지)의 상태도 변수로 나타내었다.

종속변수는 첫 자영업주기로서 취업력의 대답을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영업경험이 있거나 자영업을 현재에도 하고있는 383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자영업 주기를 종속변수(sur_time)으로 하였다.

<표 V-5> 자영업 지속요인 설명변수

| 변 수 | 정 의 | 빈 도 |
|-----------|--------------------------------------|-------|
| cohort1 | 1962~1971년생(30대) 이면 준거집단 | 37.1% |
| cohort2 | 1952~1961년생(40대) 이면 1 | 43.3% |
| cohort3 | 1937~1951년생(50대이상) 이면 1 | 19.6% |
| edu1 | 중졸이하 준거집단 | 44.6% |
| edu2 | 고졸이면 1 | 41.0% |
| edu3 | 전문대졸이상 이면 1 | 14.4% |
| marry | 자영업 끝내기 이전에 결혼했으면 1 | 84.6% |
| baby | 자영업 끝내기 이전 해에 출산이면 1 | 2.1% |
| no_hus | 자영업 끝내기 이전에 배우자가 있으면 1 | 68.1% |
| ind1 | 자영업 끝내기 이전 산업이 농림어업이면 1 | 4.6% |
| ind2 | 광업제조업이면 준거집단 | 7.1% |
| ind3 | 전기가스전설이면 1 | 0.0% |
| ind4 | 도소매수리업이면 1 | 36.1% |
| ind5 | 숙박및음식업이면 1 | 27.6% |
| ind6 | 운수 창고 통신이면 1 | 0.3% |
| ind7 | 금융 보험 부동산이면 1 | 1.9% |
| ind8 | 사회 및 개인서비스이면 1 | 22.1% |
| job1 | 자영업 끝내기 이전 직업이 입법및고위공무원 준전문가 이면 준거집단 | 10.4% |
| job2 | 사무직이면 1 | 2.7% |
| job3 | 서비스이면 1 | 39.3% |
| job4 | 판매직이면 1 | 38.3% |
| job5 | 농림어업이면 1 | 4.4% |
| job6 | 기능직 및 노무직이면 1 | 4.9% |
| censoring | 현재나이까지도 자영업을 하고있다면 1 | 52.7% |

3) 추정 결과

모형1은 가족적 특성인 결혼유무, 출산유무, 배우자 유무로 가변변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변수들은 남성의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성에게 독점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이다. 분석결과 세 변수 모두 자영업을 지속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결혼한 여성이 미혼여성보다 자영업을 그만두는 위험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며, 자영업을 그만두기 바로 이전 해의 출산경험의 유무가 자영업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자영업을 그만 두기 이전 해에 출산경험을 한 여성은 경험이 없는 여성보다 자영업을 그만 둘 위험률이 7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 중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 이혼이나 사별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보다 그만 둘 위험률이 높게 나온다. 이는 유배우자 여성은 가구주인 남편이 주 생계책임자로서, 취업여부가 선택의 여지가 있는 반면 무배우자 여성은 자신이 가구의 생계책임자로서 취업을 계속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형2는 인구학적 특성변수인 코호트와 교육수준만을 설명변수로 채택한 것이다. 먼저 코호트변수를 보면 준거집단인 30대 보다 40대(cohort2)와 50대 이상 집단(cohort3)이 자영업을 그만둘 위험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는 우선 고연령집단의 경우 자영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앞의 모형 1에서 본 바와 같이 30대의 경우 출산경험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50대의 경우 무배우자이기 때문에 혹은 안정적인 농업(주: 현재 군부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현재 시부 지역에 종사하면서 과거에 자영업 경험이 있는 여성은 종사 산업에 관계없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과거의 종사산업에서 농업만을 제외할 경우 취업력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에 종사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교육수준은 앞의 교차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단지 가장 최근 세대에서 학력에 따른 지속기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을 추후 다음 조사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형3은 모형1과 모형2에서 제시된 변수를 모두 취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모형1에서 나타났던 결혼과 출산경험, 남편의 유무에 관한 영향이 코호트와 교육수준의 변수를 첨가했을 때에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코호트변수는 그 영향력이 다소 약화되어 40대는 유의하지 않은 변수로 전환이 되고, 50대 이상만이 여전히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모형4는 직업과 관련된 변수를 채택하여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추정 결과대부분의 직업이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준거집단인 입법공무원 및 준전문가에 비해서 농림어업(JOB5)이 자영업을 지속하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5> 자영업 지속기간 추정결과

| 변 수 | | 모형1 | 모형2 | 모형3 | 모형4 | 모형5 | 모형6 |
|---------------------|----------|-------------------|-------------------|-------------------|------------------|-------------------|-------------------|
| | | 계수(표준편차) | 계수(표준편차) | 계수(표준편차) | 계수(표준편차) | 계수(표준편차) | 계수(표준편차) |
| 생애주기 관련 | 기혼 | -1.745(0.284) *** | | -1.515(0.306) *** | | | -1.691(0.318) *** |
| | 출산 | 1.987(0.372) *** | | 1.839(0.385) *** | | | 2.508(0.419) *** |
| | 배우자유무 | 0.691(0.255) ** | | 0.606(0.262) * | | | 0.655(0.271) * |
| 인구학적 특성/ 인적자원 | 40대 | | -0.697(0.209) ** | -0.395(0.220) | | | -0.273(0.228) |
| | 50대이상 | | -1.124(0.250) *** | -0.571(0.269) * | | | -0.595(0.272) * |
| | 고졸 | | -0.048(0.184) | -0.003(0.184) | | | -0.072(0.185) |
| | 전문대졸이상 | | -0.003(0.247) | -0.062(0.251) | | | 0.170(0.295) |
| 직종변수 | 사무직 | | | | -0.205(0.455) | | 0.480(0.513) |
| | 서비스직 | | | | -0.427(0.233) | | 0.479(0.342) |
| | 판매직 | | | | -0.310(0.226) | | 0.020(0.482) |
| | 농림어업 | | | | -1.697(0.539) ** | | 3.175(111.3) |
| | 기능직및노무직 | | | | -0.187(0.359) | | -0.617(0.421) |
| 산업변수 | 농림어업 | | | | | -2.085(0.536) *** | -5.673(111.1) |
| | 도소매수리업 | | | | | -0.706(0.220) ** | -0.862(0.453) |
| | 숙박및음식업 | | | | | -0.809(0.241) ** | -1.301(0.352) *** |
| | 운수창고통신 | | | | | -8.810(207.6) | -7.650(65.94) |
| | 금융보험부동산 | | | | | -1.374(0.734) | -2.170(0.775) ** |
| | 사회및개인서비스 | | | | | 0.832(0.252) ** | -1.678(0.331) *** |
| -2Log Likelihood | | 1835.228 | 1870.358 | 1829.704 | 1879.994 | 1868.319 | 1786.387 |

주: *는 5%, **는 1%, ***는 0.1%유의 수준임.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모형5는 자영업 최종시점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변수가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한 것이다. 추정결과를 보면 직업변수와는 달리 산업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준거집단인 광업제조업에 비해 농림어업(IND1), 도소매수리업(IND4) 숙박 및 음식업(IND5), 금융보험부동산업(IND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IND 8)이 자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형6은 가능한 변수를 모두 채택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모형1에서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결혼여부, 출산여부, 배우자유무가 여전히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 자영업 지속기간에 가장 강한 영향요인임을 드러난다. 코호트변수는 50대 이상이 준거집단인 30대보다 지속요인으로 나타나고있으며, 직업변수는 모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산업변수는 일부 효과가 없어지는 반면 숙박 및 음식업(IND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IND 8)이 자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영업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의 특성보다는 가족의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직업변수는 영향이 없지만 산업변수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소결

여성의 취업력을 분석하면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 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첫 종사상의 지위별 시작연령 역시 상용직은 20대 이전에 대부분 시작한 반면 나머지 집단들은 그 진입연령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취업력 상 여성취업자는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종사상의 지위별 이전의 노동력 상태 역시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크게 대별되어 상용직은 97%이상이 무직자에서 이전한 반면 자영자와 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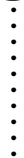
가족종사자 및 임신/일용근로자들은 상용직에서 이전한 비율이 8~12%의 높은 비율을 보여 상용직에서 다른 지위로의 이전이 용이한 반면 그 역의 이전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출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혹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 및 취업력 분석 결과 여성의 취업구조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별되기 보다는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별할 때 훨씬 특성이 잘 파악될 수 있다.

저학력 고연령으로 특징되는 자영자 집단의 특성이 점차 변하고 있음이 취업력 분석에서 드러난다. 취업력 분석결과 세대별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의 종사비율이 높아지며 직종 역시 전문직/준전문직의 비율이 높아져 자영자 내부의 이질성을 가져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력별 지속기간의 차이 역시 최근세대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 내부에서 학력에 따른 자영업의 운영결과가 더욱 달라질 전망이다.

자영업의 지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학력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가족의 특성인 결혼여부, 출산여부, 배우자유무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이 드러난다. 또한 세대차이가 있어 50대 이상세대가 더욱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변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산업변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IND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IND 8)이 제조업에 비해 자영업을 길게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VI



결론 및 정책방향

| | |
|---------|-----|
| 1. 결론 | 139 |
| 2. 정책방향 | 144 |



1. 결론

규모와 추이

한국은 경제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다른 국가에 비해 자영업비중이 높은 수준이며, 특히 1990년대를 기점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독일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의 자영업 증가가 서비스부문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자영업자의 진출에 의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남성자영업자의 증가가 여성보다 더욱 가파르며, 여성의 종사업종도 아직은 전근대적인 업종에의 비율이 높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고용주집단의 여성비율 증가하고, 자영업자의 여성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향후 자영업부문의 여성취업자들의 성격변화가 예상된다.

인구학적 특성

여성 자영업주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고연령, 저학력의 특성을 보인다. 특히 자영업자의 학력은 일용직근로자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여성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진입하지 못한 낮은 인적자본의 집단일 확률이 높다. 반면 고용주는 자영업자보다 평균연령이 낮으면서 동시에 고학력이어서 자영업자 중 성과가 좋은 집단이 성공적으로 고용주로 진입하기보다는 두 집단의 진입경로가 처음부터 다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영업주내의 학력의 편차가 매우 커서 자영업자들이 매우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같은 비임금근로자 집단으로 양쪽 모두 기혼의 비율이 높은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 자영업자는 사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유배우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대조를 보인다. 여성 자영업자 다음으로 일용근로자의 사별의 비율이 높는데 이 두 집단의 경우 사별 이후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에서 진입이 용이한 취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자영업이나 일용직이 취업선택에서 중요한

대안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여성 자영자 중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 남편이 있는 자영자에 비해 가구총수입이 절반에 불과해 이들의 자영업 선택이 결코 좋은 대안이 아님을 보여 준다.

근로조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고용주가 60시간, 자영자 50.7시간으로 평균인 48.7시간에 비해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노동패널』 역시 전체 표본에 비해 평균 5-6시간 긴 것으로 나타나며 남녀 집단 모두에서 고용주의 근로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근로시간의 분포를 볼 때 여성 자영자는 남성 자영자와 여성 임금근로자에 비해 가장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을 탄력있게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노동패널』에 의하면 여성 고용주와 자영자의 근로소득이 임금근로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용주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장시간 근로를 고려할 때 시간당 임금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취업실태조사』결과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 종사상의 지위별 수입을 보면 고용주, 자영자, 상용고, 임시/일용고의 순서로 적어지나, 시간당 수입을 보면 상용고와 자영자의 수입수준이 역전되어, 상용고의 수입이 자영자보다 약간 높게 나온다. 즉 자영자의 높은 수입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성 자영자의 수입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여성 자영자가 가구주인 경우이다. 여성 자영자의 가구주일 경우 본인의 수입은 다른 자영자의 비슷한 수준이나 가구의 총 수입은 160만원으로 가구내 다른 위치에 있는 여성 자영자의 가구 총수입인 300만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수입은 기초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여성 자영업자의 정책마련시 특별 관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자영업 종사자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여성 자영업 종사자는 여성 임금근로여성보다 남성 자영업 종사자에 비해 가입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자영업 종사자가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낮은 가입비율의 원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낮은 취업률, 고용 불안정성, 자영업 종사자들의 외면 등이 총체적으로 여성들의 국민 연금 가입률을 낮추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노령화 사회에서 여성 노인의 빈곤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분석의 첫 단계인 취업/미취업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면 여성의 취업에 어린 자녀의 존재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존재여부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단계인 임금/자영업의 결정요인을 보면 이전 직장의 자영업 경험여부와 부모의 자영업 경험여부가 정의 효과를 타나내고 있다. 학력효과를 보면 여성은 고졸미만자가 자영업을 할 확률이 높은 반면 남성은 그 반대로 대졸미만과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성의 자영업 선택요인이 남성과 매우 이질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영업에 대한 정책수립 시 남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진입, 지속, 퇴장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월별자료를 패널화하여 자영업의 진입과 지속, 퇴장과정을 분석할 결과 결정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미혼의 경우 자영업에 진입하는 확률이 낮은 반면 혼인 후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진입할 확률이 높아지고, 특히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혼인해소(기혼무배우) 시에는 더욱 높아지고

있어, 자영업이 기혼여성의 취업선택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영업 진입과정을 볼 때, 남녀의 차이가 보여지는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한 후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로서 일자리를 이직 또는 실직한 후 진입하는 경우는 남성의 경우 60%를 초과하지만 여성은 40%를 하회한다. 이는 앞서의 지적처럼 자영업의 선택이 임금근로자보다 진입이 용이한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영업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기간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의 특성상 좌측절단 엄밀한 자영업의 지속기간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인 양상을 볼 때 자영업 지속기간이 짧은 편이나 자영업을 2년 이상 지속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게 (특히 양측절단된 표본의 경우에는 44%이며 평균 지속기간은 26개월 이상)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가구주와의 관계로 보면 본인이 가구주나 배우자일 경우 지속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가구원일 경우에는 상당히 짧게 나타나며 이는 연령대별 분포나 혼인상태별 분포와도 일치한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현저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의 역할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청년층이나 미혼의 경우 자영업이 임금근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30대에서 50대까지(또는 기혼 유배우)는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을 병행하는 제약을 우회하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제도적(정년퇴직이나 임금근로의 채용에서의 연령차별 등)으로나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바로 퇴장하기보다는 자영업을 가교로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을 그만둔 후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여성의 1/4만이 미취업상태로 이행하며, 다시 자영업으로 복귀하는(새로이 창업) 비중이 37%에 이르고 있으며 임금근로로 이행하는 비중도 37%에 이른다는 점

이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한 비중 역시 39%로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임금근로로 재진입할 때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중은 7%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재진입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로부터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자 중 상용직으로부터 진입하는 비중이 10%를 넘는 수준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이다 볼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자영업으로 진입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이 자영업에서 탈출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생애경력과 자영업

『여성취업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영업 선택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결혼, 출산 등의 생애단계를 거칠 때 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변하는 것은 물론 종사사의 지위 역시 달라진다. 결혼과 첫 출산을 전후해서 상용고의 비율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상승한다. 첫 종사상의 지위별 시작연령 역시 상용직은 20대 이전에 대부분 시작한 반면 나머지 집단들은 그 진입연령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어 취업력 상 여성취업자는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크게 대별될 수 있다. 종사상의 지위별 이전의 노동력 상태 역시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크게 대별되어 상용직은 97%이상이 무직자에서 이전한 반면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및 임시/일용근로자들은 상용직에서 이전한 비율이 8~12%의 높은 비율을 보여 상용직에서 다른 지위로의 이전이 용이한 반면 그 역의 이전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론은 앞의 결정요인 분석과 유동성 분석에서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30대 이후, 결혼과 출산 이후 상용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반면 자영자로의 진입비율이 높은 이유가 상용직에의 진입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 개인의 저능력 등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자영업을 선택한 비자발적 요인인지 혹은 자영업자의 높은 수익성과 일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선호하여 선택한 자발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연령, 학력 등 인구학적 특성 및 취업력 분석 결과 여성의 취업구조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별되기 보다는 상용직과 나머지 집단으로 구별할 때 훨씬 특성이 잘 파악될 수 있다.

저학력 고연령으로 특징되는 자영자 집단의 특성이 점차 변하고 있음이 취업력 분석에서 드러난다. 취업력 분석결과 세대별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근 세대로 올수록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에의 종사비율이 높아지며 직종 역시 전문직/준전문직의 비율이 높아져 자영자 내부의 이질성을 가져오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학력별 지속기간의 차이 역시 최근세대에서만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 내부에서 학력에 따른 자영업의 운영결과가 더욱 달라질 전망이다.

자영업의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특성보다는 가족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진다. 즉 개인의 학력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가족의 특성인 결혼여부, 출산여부, 배우자유무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대차이가 있어 50대 이상세대가 더욱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변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산업변수는 숙박 및 음식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이 제조업에 비해 자영업을 길게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정책방향

노동시장에서의 기능

지금까지 여성 자영업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여성 자영업자는 비경제활동과 임금근로자사이의 중간지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력단절로 재취업이 어려운 기혼여성들이 이전의 직장경험, 자본, 기술이 없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대안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진입이 용이한 반면 안정된 상태에서 일정 소득을 취득하기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

리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이 취약하다는 점도 임금근로자에 비해 불리하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취약점을 보충할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의 유동경로를 남성 자영업자와 비교하면 남성은 상용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확률이 남성이 더욱 높다. 반면 여성은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진입이 가장 많고, 상용근로자에서의 진입은 매우 적다. 퇴출 역시 비슷하여 자영업을 그만 둔 뒤 상용근로자로 진입확률은 매우 낮으며, 재창업 또는 임시/일용직으로 취업이 큰 비중을 보인다. 이러한 각 진입단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발성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의 자료수준으로는 판단이 불분명하다. 다만 여성의 경우 자영업자의 수입이 상용근로자의 비슷한 수준임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나 복지혜택이 상용근로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영업 선택이 비자발적인 가능성이 높다. 즉 노동시장의 차별로 인해 상용근로자로의 진입이 어려운 여성들이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을 대안으로 진입했을 확률이 높다. 즉 소수의 젊은 고학력여성들은 상용직으로 진입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학력 여성들은 임시/일용직으로 기혼 여성들은 자영업이나 임시/일용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연령, 학력등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혼인상태등을 보았을 때 여성 취업자의 특성이 크게 상용직과 자영/임시/일용근로자로 대별되는 결과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 변화를 보면 고용주의 비중과 함께, 시간당 수입이 높은 전문직/개인사회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자영업자의 비중이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여성 자영업자 내부에 점차 학력별, 연령별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수이지만 임금근로자보다 고수입의 자발적인 자영업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여성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관련교육이나 훈련이수비율이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영업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

식 등이 부족함을 예상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과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안정을 위하여 효과적일 것이다.

자금과 기술지원, 상담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자금의 중요성과 제약에 대해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지는 못했지만 자영업 운영에 있어 운영자금은 매우 중요하다. OECD국가의 여성 자영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자금지원이 주요 핵심내용

<표 VI-1> OECD국가의 여성 자영업 지원 정책

| 국가명 | 프로그램 | 도입 년도 | 적용범위 | 주요 내용 |
|----------|--------------------------|----------|---------------------------------|---|
| 캐나다 | 여성기업창업 융자 | | 자신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여성 | 최대 100,000CAD(USD67,400)까 지 자금대부가능 |
| 핀란드 | 여성기업인을 위한 융자 | 1997 | 여성 실업자 | 유급직원 5명 규모로까지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창업, 발전 설계 USD16, 000, 3.6% 자금 융자. 상 담(사업잠재력과 기업주의 능력 에 대한)과 사후 관리 |
| 독일 | 사업 시작프로 그램 | 1969 | 자신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여성 | 4.5%이자로 20년동안 최대 DEM 2,000,000(USD1,140,000)까지 융자 |
| 이태리 | 여성기업인을 위한 적극적 조치 | 1997 | 기업인이 되려는 여 성 | 저이자로 은행에서 융자받을 수 있게 함. 창업이나 현재의 기업 을 현대화할 경우 자금 융자를 지원함(전체 자금의 50%까지 불 리한 분야는 60%)운영비의 융자 (30%까지 , 불리한 분야는 40%). |
| 노르웨 이 | 네트워크 신용, 농촌발전지원 체계 | | 한명 이하의 시간제 근로자가 있는 여성 기업인 | 5-7인의 공동지원에 대한 소규모 융자. 이 구성원은 사전 훈련 과 상담서비스를 필히 받아야 함. |
| 스웨덴 | 여성융자, 네트워크 은행 | 1994 | 여성 실업자 | 창업촉진을 위한 저리 융자(최대 SEK50,000 약 USD 6,300) 융자 기간은 3년이고, 매달 상환. |

출처: OECD(2000), p. 186.

임이 나타난다. 노르웨이의 경우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은 필히 사전에 상담과 훈련을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점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자영업자의 융자자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창업과 자영업의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여성 자영업자의 창업자금신설이 필요하다.

여성 자영업자의 대상별 정책 수립

여성 자영업자의 이질성이 심화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여성 자영업의 정책 수립은 대상의 분류와 성격구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여성 자영업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은 1999년에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해 중소기업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이다. 이 정책의 수혜대상은 여성기업과 여성기업을 운영하는 여성경제인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여성 자영업자의 일부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현행 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 후 이 정책의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즉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지않거나 기업의 운영이 아닌 영세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책으로 나누어 제안한다.

1)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지원 정책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가 제출한 『2002년도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은 세가지 추진방향으로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 ‘여성기업의 내실있는 성장기반을 조성’, ‘여성기업의 활력제고를 위해 판로확대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의 정책들은 여성의 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실효성과 효율성이 엄밀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가지 추진과제를 제안하고 있다.(여성부, 2002) 첫째는 여성기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로 제반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는 창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자금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융자자금에 대한 접근 강화 및 새로운 여성창업자금을 신설하는 한편,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춰 여성 신생기업을 위한 벤처캐피탈 등 투자자금의 운용이다. 셋째, 지식정보분야의 여성창업을 촉구하기 위해 강력한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식집약업종으로 특화한, 피교육생의 수준에 적합한 유연한 지식집약적 창업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을 제안한다.

2) 영세 자영자 지원 정책

사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행상, 가두판매 등 영세 자영자들은 고연령, 저학력을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사별, 이혼 등으로 가구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영세 자영자는 일용직근로자와 비슷한 인적자본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수입 또한 근로자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들에게는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에 비해 적용되는 보호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4대보험에의 적용율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여성근로자에게 제한되어 있는 모성보호정책을 이들에게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에의 가입을 권고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비의 일부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지원에 드는 예산은 이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했을 때의 생계지원비보다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출산후 90여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는 여성 근로자와는 달리 영세 자영자의 경우 전혀 소득보전이 되지 않고 있어,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이 여성 근로자보다 과중하다. 90일의 출산 유급휴가 자체는 국제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받는 산모는 일부 안정된 기업의 상용직근로자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나 비임금근로자는 전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체 여성취업자의 출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비용에 대한 부담주체가 기업(60일간)과 고용보험(30일간)에서 다른 주체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 농업인에게 출산비 지원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 자영자 역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영세 자영자 집단중에서도 이혼, 사별상태의 중고령 가구주 여성 자영업자

의 경우 소득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정책지원방향을 수립한다. 이들은 개인의 수입이 대부분 가구총수입으로 배우자가 있는 자영자의 수입의 절반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저소득층이라는 특성을 보인다. 현재 노동부 및 중소기업청 등에 여성가장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이들의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전체규모의 파악과 소득수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사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3) 무급가족종사자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자영업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부인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실제 부부내 업무에의 기여도 혹은 결정권한 정도가 파악되지 못하여 여성 자영업자의 정확한 현실파악이 어렵다는 점이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일용직근로자의 40시간보다 4시간 많은 주당 평균 4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수준이다. 남성 무급가족종사자는 절대 규모도 작고, 근로시간도 36시간으로 여성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근로 시간상 전일제 수준의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공식 취업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여 많은 불리함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에의 적용시 무급가족종사자는 보상의 근거기준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등급의 도시 일용직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지방에서 남편은 직장일을 부인은 농사일을 하는 경우 농사일은 부인이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어 교통상해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이들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공동자영업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부부 공동 자영업의 규모파악, 부부간의 업무분담정도, 의사결정권한, 수입에 대한 귀속 등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자영업자 판별기준의 개선과 기초통계 인프라의 구축

경제활동관련 통계조사시 기혼 유배우자의 경우 부부가 자영업업을 공동으

로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경우 약 30%) 가구주에 해당하는 남성은 자영자나 고용주로, 배우자에 해당하는 여성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 연구에서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때 부부가 자영업을 공동운영할 경우에는 양자를 자영자(또는 고용주)로 변별하는 것이 통계적 오분류에 따를 잘못된 연구결과를 낳지 않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중의 하나는 통계자료의 제한에서 오는 것으로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자영업의 연구에 기본적인 내용만을 제시할 수 있으며, 본원의 『여성취업실태조사』는 가족과의 관련성을 깊게 분석할 수 있는 반면 남성자영업자와의 비교부분이 부족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제4차 한국노동패널조사』는 자영업 일자리에 대해 문항을 강화함으로써 많은 내용의 분석이 가능해졌지만 자영업자의 표본이 적다는 규모의 문제와 회고적 정보에 의존하는 점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여성취업실태조사』에서 자영업부문을 강화한 『여성자영업실태조사』나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기초로 한 『자영업패널조사』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자영업 실태조사』는 자영업의 운영에 있어 여성이 고유하게 직면하는 문제점 예를 들어 부부공동운영의 애로점, 가족병행과의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자영업 패널조사』는 남녀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자영업 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정보를 연계하고, 자영업자가 유급직원을 두고 있는 고용주이거나 고용보험 및 여타 사회보험 적용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 사회보험의 DB에 나타나는 정보, 더 나아가 기업정보에 나타난 자영업자에 대한 정보 및 국세청의 정보를 연계할 경우 자료상에 나타난 정보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노동시장에 비정규근로가 확산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따

라서 자영업의 연구가 가지는 가치는 점차 커질 것이다. 자영업 연구가 범위와 깊이의 양 측면에서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자의 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이 요구되어지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통계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재호·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論集』 제23권 특별호. 2000 : 81-107.
- 김태홍·김미경,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2.
-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論集』 제23권 특별호. 2000 : 55-77.
- 류재우·최호영. “우리나라의 자영업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論集』 제22권 제1호. 1999 : 109-140.
- _____.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 『노동경제論集』 제23권 제1호. 2000 : 137-165.
- 성지미.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論集』 제25권 제1호. 2002: 161-182.
-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탐색기간: 임금노동과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論集』 제23권 특별호. 2000 : 109-132.
- 여성부. 『제2차 기본정책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연구』 (2002)
- 정수연, “Cox의 비례적 위험모형(Proportional Hazard Model)을 이용한 한국기업의 상장기간지속요인에 관한 연구,” SPSS 인터넷 홈페이지(spss.co.kr).
- 정진성, 장지연.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특성과 생애경력.” 『성곡논총』 제32집 하권. 2001: 53-83.
- Aronson, Robert L. Self-Employment: A Labor Market Perspective. Ithaca, New York: ILR Press, 1991.
- Blanchflower, David, and Oswald Andrew J.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 (January 1998): 26-60.
- Blau, David. “A Time Series Analysis of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June 1987) : 445-67.
- Bregger, John E. “Measuring Self-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Monthly Labor Review 107 (January/February 1996): 3-9.
- Delage, Benoit(2002). *Results from the Survey of Self-Employment in Canada*.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 Dunn, T. & D. Holtz-Eakin. “Financial Capital, Human Capital, and the Transition to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Intergenerational Links. ”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8, No.2. (2000): 282-305.

- Evans, David S., and Leighton, Linda. "Some Empirical Aspect of Entrepreneurship." *American Economic Review* 79 (June 1989): 519-35.
- Evans, David S., and Jovanovic, Boyan. "An Estimated Model of Entrepreneurial Choice under Liquidity Constrain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August 1989): 808-27.
- Hout, M. & H. Rosen. "Self-Employment, Family Background, and Race."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35, No.4 (2000): 670-692.
- Hundley, G. "Male/Female Earnings difference in Self-Employment: The Effects of Marriage, Children and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54(1) (Oct 2000): 95-114.
- Meng, Chun-Lo and Schmidt, Peter. "On the Cost of Partial Observability in the Bivariate Probit Model."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26, No.1 (1985): 71-85.
- OECD(2000), *Employment outlook*.



부 록



<부표 II-1> 연도별 전체 취업자(비농가)의 자영업주 비율

단위: 명, %

| | 전체 취업자(비농가) | 임금근로자 | 자영업주 | |
|------|-------------|-------|------|---------|
| | | | 자영업주 | 자영업주 비율 |
| 1963 | 2691 | 1686 | 796 | 29.6% |
| 1965 | 3109 | 1871 | 973 | 31.3% |
| 1970 | 4580 | 2933 | 1236 | 27.0% |
| 1975 | 6181 | 4026 | 1651 | 26.7% |
| 1980 | 8575 | 5660 | 2273 | 26.5% |
| 1981 | 8871 | 5883 | 2330 | 26.3% |
| 1982 | 9579 | 6113 | 2640 | 27.6% |
| 1983 | 10011 | 6529 | 2676 | 26.7% |
| 1984 | 10454 | 7103 | 2606 | 24.9% |
| 1985 | 11165 | 7577 | 2799 | 25.1% |
| 1986 | 11766 | 7934 | 2996 | 25.5% |
| 1987 | 12630 | 8629 | 3135 | 24.8% |
| 1988 | 13216 | 9087 | 3238 | 24.5% |
| 1989 | 13920 | 9851 | 3188 | 22.9% |
| 1990 | 14629 | 10418 | 3273 | 22.4% |
| 1991 | 15357 | 10867 | 3504 | 22.8% |
| 1992 | 15759 | 11064 | 3717 | 23.6% |
| 1993 | 16291 | 11329 | 3871 | 23.8% |
| 1994 | 16959 | 11857 | 4014 | 23.7% |
| 1995 | 17652 | 12296 | 4263 | 24.2% |
| 1996 | 18133 | 12584 | 4424 | 24.4% |
| 1997 | 18479 | 12749 | 4616 | 25.0% |
| 1998 | 17348 | 11784 | 4425 | 25.5% |
| 1999 | 17762 | 12074 | 4553 | 25.6% |
| 2000 | 18583 | 12693 | 4715 | 25.4% |
| 2001 | 18959 | 12895 | 4892 | 25.8%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부표 II-2> 종사상의 지위별 노동시간 (1985, 2001)

단위: % (시간)

| | 노동시간 | | | | | | |
|-------------|------------|-------|--------|---------|---------|---------|--------|
| | 평균노동 시간 | 계 | 0-17시간 | 18-35시간 | 36-53시간 | 54-71시간 | 72시간이상 |
| 여자(1985년) | | | | | | | |
| 전체 | (57.6) | 100.0 | 1.2 | 5.0 | 34.3 | 43.0 | 16.5 |
| 고용주 | (68.8) | 100.0 | 1.6 | 2.7 | 15.0 | 36.1 | 44.5 |
| 자영자 | (61.5) | 100.0 | 1.3 | 7.1 | 25.9 | 37.9 | 27.8 |
| 무급가족종사자 | (59.6) | 100.0 | 0.1 | 7.7 | 29.6 | 41.2 | 21.3 |
| 상용직 | (54.3) | 100.0 | 1.3 | 1.1 | 45.6 | 44.2 | 7.8 |
| 임시직 | (60.8) | 100.0 | 0.5 | 1.9 | 25.9 | 54.1 | 17.6 |
| 일용직 | (48.5) | 100.0 | 3.2 | 15.0 | 42.6 | 32.8 | 6.4 |
| 남자(1985년) | | | | | | | |
| 전체 | (59.3) | 100.0 | 1.0 | 1.9 | 31.5 | 48.1 | 17.4 |
| 고용주 | (63.7) | 100.0 | 0.9 | 1.9 | 20.1 | 51.0 | 26.0 |
| 자영자 | (65.5) | 100.0 | 1.0 | 2.8 | 19.5 | 44.3 | 32.5 |
| 무급가족종사자 | (57.4) | 100.0 | 1.6 | 8.4 | 28.6 | 43.2 | 18.2 |
| 상용직 | (56.7) | 100.0 | 1.0 | 0.7 | 39.9 | 46.4 | 12.1 |
| 임시직 | (61.9) | 100.0 | 0.8 | 1.7 | 19.3 | 59.6 | 18.5 |
| 일용직 | (54.5) | 100.0 | 1.9 | 7.1 | 33.1 | 49.2 | 8.8 |
| 여자(2001년) | | | | | | | |
| 전체 | (48.7) | 100.0 | 8.1 | 8.6 | 46.9 | 29.4 | 7.1 |
| 고용주 | (59.5) | 100.0 | 2.8 | 3.3 | 25.4 | 46.3 | 22.2 |
| 자영자 | (50.7) | 100.0 | 10.1 | 9.5 | 29.5 | 36.7 | 14.2 |
| 무급가족종사자 | (44.1) | 100.0 | 19.7 | 7.9 | 29.9 | 31.2 | 11.3 |
| 상용직 | (47.7) | 100.0 | 2.7 | 2.2 | 69.9 | 23.4 | 1.8 |
| 임시직 | (48.7) | 100.0 | 4.0 | 7.9 | 51.2 | 31.7 | 5.3 |
| 일용직 | (40.1) | 100.0 | 11.8 | 21.9 | 44.2 | 19.2 | 3.0 |
| 남자(2001년) | | | | | | | |
| 전체 | (52.9) | 100.0 | 3.0 | 4.0 | 45.1 | 38.2 | 9.6 |
| 고용주 | (56.2) | 100.0 | 1.8 | 2.3 | 37.5 | 45.4 | 13.0 |
| 자영자 | (55.2) | 100.0 | 4.2 | 5.0 | 32.7 | 43.0 | 15.1 |
| 무급가족종사자 | (36.3) | 100.0 | 25.5 | 14.5 | 32.4 | 23.0 | 4.6 |
| 상용직 | (52.2) | 100.0 | 1.4 | 1.4 | 55.3 | 35.0 | 6.9 |
| 임시직 | (54.4) | 100.0 | 2.6 | 3.6 | 39.2 | 42.9 | 11.7 |
| 일용직 | (45.0) | 100.0 | 6.3 | 14.9 | 46.9 | 28.5 | 3.3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부표 II-3> 종사상의 지위별 평균 교육년수(2001)

| | 여자 | 남자 |
|---------|------|------|
| 전체 | 10.9 | 12.4 |
| 고용주 | 11.9 | 13.0 |
| 자영자 | 9.5 | 11.4 |
| 무급가족종사자 | 10.4 | 11.8 |
| 상용 | 12.9 | 13.4 |
| 임시 | 11.0 | 11.8 |
| 일용 | 9.2 | 10.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부표 II-4> 자영자의 직업, 산업, 학력별 월수입

단위: 만원(원)

| 직업별 | 월수입 | 시간당수입 | 가구총수입 | 평균기여율 |
|---|-------|-----------|-------|-------|
|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무원 및 준전문 (23) | 189.3 | (9438.8) | 340.7 | 64.3 |
| 사무직 (3) | 93.3 | (4565.0) | 160.0 | 77.8 |
| 서비스직 (103) | 117.6 | (4711.0) | 230.7 | 61.0 |
| 판매직 (68) | 122.5 | (5340.5) | 242.7 | 58.9 |
| 기능직,노무직,조립직,단순노무직 (7) | 91.4 | (3375.6) | 211.4 | 48.5 |
| Total (204) | 126.0 | (5405.9) | 245.4 | 60.5 |
| 산업별 | | | | |
| 광업제조업 (7) | 96.4 | (3927.4) | 176.4 | 63.4 |
| 도소매 수리업 (65) | 110.3 | (4287.5) | 216.5 | 58.6 |
| 숙박 음식업 (66) | 114.2 | (5286.2) | 223.4 | 64.2 |
| 운수 통신업 창고업 (1) | 250.0 | (11627.9) | 250.0 | 100.0 |
| 금융 보험 부동산 사업서비스 (7) | 264.3 | (10958.8) | 464.3 | 73.8 |
| 사회및 개인서비스업 (58) | 142.0 | (6196.4) | 284.6 | 55.7 |
| Total (204) | 126.0 | (5405.9) | 245.4 | 60.5 |
| 학력별 | | | | |
| 중졸이하 (77) | 101.7 | (3718.6) | 192.5 | 65.0 |
| 고졸 (101) | 134.4 | (5818.8) | 259.0 | 58.9 |
| 전문대졸 (3) | 116.7 | (9339.2) | 333.3 | 52.7 |
| 대졸이상 (23) | 172.0 | (8728.2) | 351.5 | 53.2 |
| Total (204) | 126.0 | (5405.9) | 245.4 | 60.5 |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제4차 여성취업실태조사』, 2002.

<부표 II-5> 연령집단별 종사상의 지위별 부부 교차표(2001)

① 30세미만

단위: %

| 배우자 여성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 가족 | 실업자 | 비경활 |
|-----------|-------|------|------|------|------|------|----------|-----|-----|
| 전체 | 100.0 | 53.0 | 19.9 | 3.5 | 7.3 | 11.3 | 0.1 | 2.6 | 2.4 |
| 상용직 | 100.0 | 72.6 | 12.3 | 1.4 | 3.4 | 4.8 | 0.0 | 2.7 | 2.7 |
| 임시직 | 100.0 | 44.8 | 33.6 | 3.2 | 4.0 | 5.6 | 0.0 | 4.0 | 4.8 |
| 일용직 | 100.0 | 37.1 | 28.6 | 11.4 | 5.7 | 5.7 | 0.0 | 5.7 | 5.7 |
| 고용주 | 100.0 | 33.3 | 50.0 | 0.0 | 16.7 | 0.0 | 0.0 | 0.0 | 0.0 |
| 자영자 | 100.0 | 48.4 | 19.4 | 3.2 | 6.5 | 19.4 | 0.0 | 0.0 | 3.2 |
| 무급가족 | 100.0 | 2.3 | 0.0 | 0.0 | 31.8 | 65.9 | 0.0 | 0.0 | 0.0 |
| 실업자 | 100.0 | 50.0 | 21.4 | 7.1 | 7.1 | 0.0 | 0.0 | 7.1 | 7.1 |
| 비경활 | 100.0 | 55.0 | 19.6 | 3.6 | 7.2 | 10.3 | 0.0 | 2.4 | 1.9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② 30대

단위: %

| 배우자 여성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 가족 | 실업자 | 비경활 |
|-----------|-------|------|------|------|------|------|----------|-----|-----|
| 전체 | 100.0 | 45.1 | 11.8 | 5.1 | 14.1 | 18.2 | 0.3 | 2.3 | 3.0 |
| 상용직 | 100.0 | 65.3 | 9.6 | 3.7 | 6.6 | 10.0 | 0.0 | 1.8 | 3.0 |
| 임시직 | 100.0 | 41.6 | 23.1 | 7.7 | 6.3 | 13.3 | 0.0 | 3.7 | 4.2 |
| 일용직 | 100.0 | 41.6 | 17.2 | 12.0 | 7.3 | 14.2 | 0.0 | 3.4 | 4.3 |
| 고용주 | 100.0 | 40.3 | 9.0 | 1.5 | 28.4 | 10.4 | 3.0 | 1.5 | 6.0 |
| 자영자 | 100.0 | 45.2 | 10.1 | 5.1 | 10.1 | 20.3 | 2.8 | 2.8 | 3.7 |
| 무급가족 | 100.0 | 0.3 | 0.0 | 0.0 | 42.5 | 57.1 | 0.0 | 0.0 | 0.0 |
| 실업자 | 100.0 | 42.9 | 17.9 | 10.7 | 3.6 | 14.3 | 0.0 | 7.1 | 3.6 |
| 비경활 | 100.0 | 52.4 | 10.9 | 4.7 | 13.1 | 14.1 | 0.1 | 2.1 | 2.7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③ 40대

단위: %

| 배우자 여성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 가족 | 실업자 | 비경활 |
|-----------|-------|------|------|------|------|------|----------|------|------|
| 전체 | 100.0 | 35.1 | 7.7 | 7.9 | 14.4 | 23.3 | 0.8 | 2.9 | 8.0 |
| 상용직 | 100.0 | 51.1 | 6.4 | 5.6 | 9.9 | 13.3 | 0.0 | 4.3 | 9.4 |
| 임시직 | 100.0 | 34.8 | 14.9 | 10.9 | 5.7 | 18.2 | 0.0 | 4.6 | 10.9 |
| 일용직 | 100.0 | 31.5 | 12.0 | 19.5 | 6.2 | 14.9 | 0.0 | 3.7 | 12.0 |
| 고용주 | 100.0 | 38.3 | 4.9 | 4.9 | 18.5 | 13.6 | 6.2 | 1.2 | 12.3 |
| 자영자 | 100.0 | 33.4 | 9.0 | 9.3 | 9.3 | 22.8 | 6.2 | 2.1 | 7.9 |
| 무급가족 | 100.0 | 0.2 | 0.0 | 0.0 | 33.9 | 65.8 | 0.0 | 0.0 | 0.0 |
| 실업자 | 100.0 | 28.6 | 11.4 | 14.3 | 2.9 | 17.1 | 0.0 | 14.3 | 11.4 |
| 비경활 | 100.0 | 45.5 | 6.6 | 7.2 | 14.8 | 15.1 | 0.0 | 2.7 | 8.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④ 50대

단위: %

| 배우자 여성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 가족 | 실업자 | 비경활 |
|-----------|-------|------|------|------|------|------|----------|-----|------|
| 전체 | 100.0 | 22.0 | 10.2 | 7.9 | 8.0 | 20.0 | 1.2 | 2.7 | 27.9 |
| 상용직 | 100.0 | 34.4 | 10.9 | 10.9 | 4.7 | 7.8 | 0.0 | 3.1 | 28.1 |
| 임시직 | 100.0 | 19.8 | 15.7 | 9.9 | 1.7 | 15.1 | 0.0 | 4.7 | 33.1 |
| 일용직 | 100.0 | 17.9 | 17.0 | 16.1 | 1.8 | 15.2 | 0.0 | 3.6 | 28.6 |
| 고용주 | 100.0 | 28.6 | 7.1 | 3.6 | 10.7 | 7.1 | 14.3 | 0.0 | 28.6 |
| 자영자 | 100.0 | 19.9 | 10.9 | 9.0 | 3.8 | 15.4 | 7.7 | 3.2 | 30.1 |
| 무급가족 | 100.0 | 0.7 | 0.0 | 0.0 | 21.9 | 75.3 | 1.4 | 0.0 | 0.7 |
| 실업자 | 100.0 | 8.3 | 16.7 | 16.7 | 0.0 | 8.3 | 0.0 | 8.3 | 41.7 |
| 비경활 | 100.0 | 26.3 | 9.9 | 7.5 | 8.8 | 14.0 | 0.0 | 2.5 | 31.1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⑤ 60대

단위: %

| 배우자 여성 | 전체 |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 가족 | 실업자 | 비경활 |
|-----------|-------|------|------|------|------|------|----------|-----|-------|
| 전체 | 100.0 | 4.8 | 8.2 | 4.1 | 4.4 | 11.1 | 0.7 | 0.6 | 66.0 |
| 상용직 | 100.0 | 40.0 | 0.0 | 0.0 | 0.0 | 0.0 | 0.0 | 0.0 | 60.0 |
| 임시직 | 100.0 | 5.6 | 18.5 | 3.7 | 1.9 | 13.0 | 0.0 | 0.0 | 57.4 |
| 일용직 | 100.0 | 6.7 | 8.9 | 17.8 | 0.0 | 11.1 | 0.0 | 2.2 | 53.3 |
| 고용주 | 100.0 | 0.0 | 14.3 | 0.0 | 0.0 | 28.6 | 28.6 | 0.0 | 28.6 |
| 자영자 | 100.0 | 3.6 | 12.7 | 5.5 | 1.8 | 10.9 | 7.3 | 1.8 | 56.4 |
| 무급가족 | 100.0 | 2.3 | 0.0 | 0.0 | 20.9 | 74.4 | 0.0 | 0.0 | 2.3 |
| 실업자 | 1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100.0 |
| 비경활 | 100.0 | 4.8 | 7.3 | 3.2 | 4.2 | 6.5 | 0.0 | 0.5 | 73.5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부표 Ⅲ-1> 경제활동상태, 연령 및 학력에 따른 여성표본의 분포

|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 | 소계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 |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20대 | 고졸미만 | 10 | (0.12) | · | · | · | · | · | · |
| | 고졸 | 199 | (2.32) | 14 | (0.16) | 2 | (0.11) | 6 | (0.34) |
| | 대졸미만 | 175 | (2.04) | 7 | (0.08) | 1 | (0.06) | 3 | (0.17) |
| | 대졸이상 | 165 | (1.92) | 9 | (0.10) | 1 | (0.06) | 5 | (0.28) |
| 30대 | 고졸미만 | 66 | (0.77) | 39 | (0.45) | 5 | (0.28) | 13 | (0.73) |
| | 고졸 | 162 | (1.89) | 107 | (1.25) | 12 | (0.68) | 36 | (2.03) |
| | 대졸미만 | 34 | (0.40) | 19 | (0.22) | 3 | (0.17) | 8 | (0.45) |
| | 대졸이상 | 67 | (0.78) | 23 | (0.27) | 8 | (0.45) | 9 | (0.51) |
| 40대 | 고졸미만 | 199 | (2.32) | 162 | (1.89) | 21 | (1.19) | 62 | (3.50) |
| | 고졸 | 125 | (1.46) | 90 | (1.05) | 15 | (0.85) | 30 | (1.69) |
| | 대졸미만 | 19 | (0.22) | 9 | (0.10) | 2 | (0.11) | 2 | (0.11) |
| | 대졸이상 | 25 | (0.29) | 15 | (0.17) | 10 | (0.56) | 3 | (0.17) |
| 50대 이상 | 고졸미만 | 147 | (1.71) | 221 | (2.58) | 14 | (0.79) | 110 | (6.21) |
| | 고졸 | 32 | (0.37) | 24 | (0.28) | 3 | (0.17) | 10 | (0.56) |
| | 대졸미만 | 1 | (0.01) | · | · | · | · | · | · |
| | 대졸이상 | 6 | (0.07) | 5 | (0.06) | 3 | (0.17) | 2 | (0.11) |

주: ()안은 총 8577명에 대한 백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부표 Ⅲ-2> 경제활동상태, 연령 및 학력에 따른 남성표본의 분포

|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미취업 | |
|--------|------|------|--------|-------|--------|-----|--------|-----|--------|
| | | | | 소계 | 고용주 | 자영자 | 무급 | | |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빈도 | % |
| 20대 | 고졸미만 | 32 | (0.37) | 3 | (0.03) | · | · | 2 | (0.11) |
| | 고졸 | 170 | (1.98) | 31 | (0.36) | 5 | (0.28) | 19 | (1.07) |
| | 대졸미만 | 121 | (1.41) | 4 | (0.05) | 1 | (0.06) | 1 | (0.06) |
| | 대졸이상 | 102 | (1.19) | 8 | (0.09) | 5 | (0.28) | 3 | (0.17) |
| 30대 | 고졸미만 | 74 | (0.86) | 32 | (0.37) | 8 | (0.45) | 22 | (1.24) |
| | 고졸 | 324 | (3.78) | 133 | (1.55) | 46 | (2.60) | 83 | (4.68) |
| | 대졸미만 | 118 | (1.38) | 33 | (0.38) | 13 | (0.73) | 16 | (0.90) |
| | 대졸이상 | 262 | (3.05) | 49 | (0.57) | 33 | (1.86) | 16 | (0.90) |
| 40대 | 고졸미만 | 161 | (1.88) | 126 | (1.47) | 31 | (1.75) | 89 | (5.02) |
| | 고졸 | 252 | (2.94) | 179 | (2.09) | 76 | (4.29) | 100 | (5.64) |
| | 대졸미만 | 46 | (0.54) | 35 | (0.41) | 21 | (1.19) | 14 | (0.79) |
| | 대졸이상 | 119 | (1.39) | 62 | (0.72) | 41 | (2.31) | 20 | (1.13) |
| 50대 이상 | 고졸미만 | 193 | (2.25) | 186 | (2.17) | 35 | (1.98) | 143 | (8.07) |
| | 고졸 | 123 | (1.43) | 103 | (1.20) | 24 | (1.35) | 75 | (4.23) |
| | 대졸미만 | 11 | (0.13) | 11 | (0.13) | 3 | (0.17) | 7 | (0.40) |
| | 대졸이상 | 71 | (0.83) | 33 | (0.38) | 22 | (1.24) | 11 | (0.62) |

주: ()안은 총 8577명에 대한 백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부표 III-3> 종사상지위별, 연령 및 학력별 여성취업자의 근로시간

|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 | | |
|--------|------|-------|---------|-------|---------|-------|---------|-------|---------|-------|---------|
| | | | | 소계 | | 고용주 | | 자영자 | | 무급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20대 | 고졸미만 | 56.90 | (12.89) | · | · | · | · | · | · | · | · |
| | 고졸 | 49.51 | (13.18) | 64.64 | (32.32) | 53.50 | (26.16) | 61.50 | (38.82) | 71.50 | (30.89) |
| | 대졸미만 | 47.37 | (14.24) | 45.14 | (28.77) | 60.00 | · | 17.33 | (11.68) | 68.00 | (17.09) |
| | 대졸이상 | 44.05 | (13.19) | 46.78 | (28.11) | 84.00 | · | 32.40 | (28.23) | 58.33 | (12.58) |
| 30대 | 고졸미만 | 49.91 | (18.73) | 60.36 | (22.47) | 67.20 | (16.89) | 64.85 | (16.24) | 55.95 | (26.44) |
| | 고졸 | 45.53 | (14.58) | 58.98 | (26.12) | 63.83 | (26.04) | 57.11 | (27.51) | 59.14 | (25.59) |
| | 대졸미만 | 41.68 | (12.11) | 46.58 | (25.99) | 37.33 | (36.07) | 39.00 | (23.92) | 57.63 | (23.48) |
| | 대졸이상 | 44.94 | (11.60) | 48.57 | (23.87) | 52.38 | (27.44) | 39.11 | (20.87) | 57.67 | (21.74) |
| 40대 | 고졸미만 | 50.84 | (16.95) | 59.12 | (24.33) | 62.00 | (27.94) | 61.63 | (23.39) | 56.38 | (24.06) |
| | 고졸 | 49.44 | (20.52) | 56.73 | (23.86) | 57.20 | (20.12) | 64.73 | (29.20) | 51.24 | (19.65) |
| | 대졸미만 | 46.32 | (11.87) | 52.00 | (20.22) | 65.00 | (24.04) | 65.00 | (07.07) | 41.60 | (18.89) |
| | 대졸이상 | 44.44 | (18.97) | 47.53 | (20.99) | 55.00 | (18.24) | 23.67 | (18.72) | 46.00 | (14.14) |
| 50대 이상 | 고졸미만 | 48.33 | (21.64) | 56.62 | (25.17) | 59.00 | (26.38) | 57.44 | (24.57) | 55.34 | (25.85) |
| | 고졸 | 46.16 | (10.21) | 45.58 | (22.02) | 57.67 | (20.60) | 37.80 | (29.01) | 49.36 | (12.36) |
| | 대졸미만 | 50.00 | · | · | · | · | · | · | · | · | · |
| | 대졸이상 | 38.33 | (13.88) | 62.00 | (08.60) | 60.00 | (10.39) | 65.00 | (07.07) | · | · |

주: ()안은 총 8577명에 대한 백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부표 III-4> 종사상지위별, 연령 및 학력별 남성취업자의 근로시간

|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 | | |
|--------|------|-------|---------|-------|---------|-------|---------|-------|---------|-------|---------|
| | | | | 소계 | | 고용주 | | 자영자 | | 무급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20대 | 고졸미만 | 52.31 | (19.76) | 73.33 | (51.08) | · | · | 98.00 | (39.60) | 24.00 | · |
| | 고졸 | 56.95 | (12.75) | 64.81 | (26.71) | 71.20 | (12.13) | 68.21 | (30.50) | 51.00 | (19.64) |
| | 대졸미만 | 54.79 | (15.48) | 52.75 | (15.17) | 45.00 | · | 36.00 | · | 65.00 | (07.07) |
| | 대졸이상 | 49.92 | (14.13) | 49.25 | (20.15) | 42.80 | (23.10) | 60.00 | (08.72) | · | · |
| 30대 | 고졸미만 | 53.84 | (14.87) | 53.25 | (23.59) | 57.25 | (18.37) | 52.64 | (25.10) | 44.00 | (36.77) |
| | 고졸 | 55.97 | (15.57) | 60.62 | (22.33) | 57.43 | (26.32) | 62.75 | (19.01) | 53.25 | (36.45) |
| | 대졸미만 | 52.02 | (12.87) | 64.09 | (21.65) | 60.69 | (15.51) | 67.75 | (24.71) | 60.50 | (29.09) |
| | 대졸이상 | 51.80 | (13.22) | 56.10 | (22.90) | 57.18 | (22.30) | 53.88 | (24.69) | · | · |
| 40대 | 고졸미만 | 53.06 | (17.22) | 57.52 | (22.81) | 57.68 | (23.97) | 58.08 | (22.55) | 48.33 | (22.38) |
| | 고졸 | 55.25 | (14.39) | 58.15 | (21.27) | 57.61 | (19.22) | 58.31 | (22.79) | 66.33 | (24.50) |
| | 대졸미만 | 54.67 | (17.65) | 58.43 | (16.58) | 57.86 | (16.08) | 59.29 | (17.89) | · | · |
| | 대졸이상 | 49.52 | (11.66) | 56.29 | (16.69) | 55.66 | (17.46) | 57.40 | (15.81) | 60.00 | · |
| 50대 이상 | 고졸미만 | 55.84 | (21.22) | 53.46 | (25.45) | 61.26 | (23.08) | 51.89 | (25.96) | 47.38 | (21.32) |
| | 고졸 | 54.51 | (18.13) | 51.87 | (24.13) | 49.92 | (24.95) | 52.21 | (23.99) | 57.25 | (27.46) |
| | 대졸미만 | 47.18 | (12.73) | 33.45 | (25.07) | 37.00 | (24.43) | 24.71 | (18.08) | 84.00 | · |
| | 대졸이상 | 47.17 | (16.14) | 57.00 | (17.75) | 57.55 | (18.86) | 55.91 | (16.11) | · | · |

주: ()안은 총 8577명에 대한 백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부표 III-5> 종사상지위별, 연령 및 학력별 여성취업자의 근로소득

|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 |
|-----------|------|--------|---------|--------|----------|--------|----------|--------|----------|
| | | | | 소계 | | 고용주 | | 자영자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20대 | 고졸미만 | 71.8 | (25.71) | . | . | . | . | . | . |
| | 고졸 | 79.58 | (34.91) | 70.71 | (94.26) | 65 | (49.50) | 93.33 | (80.42) |
| | 대졸미만 | 79.88 | (31.10) | 171.14 | (241.75) | 200 | . | 66 | (36.17) |
| | 대졸이상 | 101.73 | (36.87) | 86.67 | (72.80) | 150 | . | 86 | (51.28) |
| 30대 | 고졸미만 | 62.48 | (30.43) | 68.21 | (155.22) | 114 | (78.93) | 37.69 | (41.66) |
| | 고졸 | 72.91 | (42.62) | 80.21 | (106.63) | 187.5 | (144.80) | 91.19 | (86.92) |
| | 대졸미만 | 106.26 | (52.67) | 59.47 | (63.11) | 83.33 | (76.38) | 85 | (35.05) |
| | 대졸이상 | 158.73 | (65.75) | 192.39 | (215.79) | 266.88 | (235.69) | 210 | (234.57) |
| 40대 | 고졸미만 | 70.65 | (31.00) | 65.44 | (94.47) | 175.71 | (147.74) | 75.35 | (64.55) |
| | 고졸 | 91.72 | (50.79) | 80.33 | (181.32) | 114 | (152.12) | 145.67 | (262.61) |
| | 대졸미만 | 150.95 | (69.48) | 38.89 | (78.17) | 75 | (106.07) | 100 | (141.42) |
| | 대졸이상 | 138.92 | (82.77) | 236 | (370.44) | 310 | (433.85) | 146.67 | (136.14) |
| 50대 이상 | 고졸미만 | 57.49 | (24.68) | 59.86 | (126.65) | 87.86 | (73.19) | 73.65 | (132.31) |
| | 고졸 | 84.97 | (65.24) | 120.33 | (406.01) | 83.33 | (144.34) | 253.8 | (616.64) |
| | 대졸미만 | 150 | . | . | . | . | . | . | . |
| | 대졸이상 | 178.33 | (78.59) | 140 | (114.02) | 133.33 | (152.75) | 150 | (70.71) |

주: ()안은 총 8577명에 대한 백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부표 III-6> 종사상지위별, 연령 및 학력별 남성취업자의 근로소득

| | | 임금근로 | | 비임금근로 | | | | | |
|--------|------|--------|----------|--------|----------|--------|-----------|--------|----------|
| | | | | 소계 | | 고용주 | | 자영자 | |
| |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평균 | SD |
| 20대 | 고졸미만 | 94.41 | (27.14) | 83.33 | (76.38) | . | . | 125.00 | (35.36) |
| | 고졸 | 103.87 | (37.53) | 108.71 | (114.39) | 180.00 | (75.83) | 124.74 | (122.49) |
| | 대졸미만 | 107.45 | (43.09) | 87.50 | (90.69) | 200.00 | . | 30.00 | . |
| | 대졸이상 | 116.12 | (51.72) | 171.25 | (134.64) | 186.00 | (171.70) | 146.67 | (55.08) |
| 30대 | 고졸미만 | 105.92 | (39.48) | 129.84 | (106.50) | 158.75 | (95.53) | 131.14 | (108.52) |
| | 고졸 | 140.29 | (54.99) | 173.27 | (233.92) | 201.74 | (300.87) | 165.84 | (190.87) |
| | 대졸미만 | 157.72 | (56.72) | 183.64 | (132.87) | 240.77 | (163.63) | 168.13 | (89.46) |
| | 대졸이상 | 191.19 | (113.68) | 220.31 | (168.85) | 266.82 | (178.10) | 124.38 | (94.80) |
| 40대 | 고졸미만 | 113.42 | (46.71) | 141.71 | (235.41) | 135.16 | (108.41) | 142.76 | (256.81) |
| | 고졸 | 149.84 | (85.05) | 224.83 | (537.47) | 355.79 | (803.67) | 131.05 | (82.88) |
| | 대졸미만 | 173.80 | (65.35) | 237.49 | (186.91) | 288.67 | (216.29) | 160.71 | (93.93) |
| | 대졸이상 | 239.78 | (116.53) | 271.61 | (291.94) | 311.22 | (277.20) | 129.00 | (87.41) |
| 50대 이상 | 고졸미만 | 100.79 | (57.47) | 129.11 | (284.67) | 238.14 | (593.96) | 109.02 | (130.13) |
| | 고졸 | 123.15 | (67.61) | 181.89 | (288.72) | 197.92 | (143.16) | 179.13 | (327.56) |
| | 대졸미만 | 134.00 | (55.63) | 237.27 | (587.37) | 746.67 | (1088.40) | 38.57 | (34.85) |
| | 대졸이상 | 223.18 | (131.19) | 313.18 | (377.08) | 387.50 | (428.30) | 164.55 | (182.56) |

주: ()안은 총 8577명에 대한 백분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4차년도 (2001). 표본은 20세~65세 미만인 8,577명.
여성표본은 4406명, 남성표본은 4171명.

2002 연구보고서 230-20

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2002년 12월 27일 인쇄
2002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313-7593 (代)

<정가 7,000원>

ISBN 89-8491-051-1 93330